

# 濟州道 겨울作物(채소류)의 流通 및 對日 輸出增大에 대한 研究

姜景璿·宋昌吉

## 〈目 次〉

- I 序 論
- II 濟州地域農業의 生産構造
  - 1. 農業生産 및 所得構造의 推移
- III 濟州地域의 菜蔬生産과 流通實態 分析
  - 1. 菜蔬의 經營의 性格
  - 2. 菜蔬生産의 現象
  - 3. 暖地菜蔬産地의 形成
  - 4. 流通實態分析
  - 5. 産地組織과 Marketing計劃
  - 6. 經濟安定과 計劃出荷
- IV 日本의 菜蔬實情
  - 1. 農業生産의 變化
  - 2. 菜蔬의 供給構造
  - 3. 菜蔬의 消費構造
  - 4. 菜蔬의 需給調整
- V 日本의 農産物輸入
  - 1. 輸入農産物의 構成
  - 2. 主要食用農産物의 自給率
  - 3. 農産物貿易의 動向
- VI 日本의 菜蔬輸入
  - 1. 菜蔬輸入의 長期的인 推移
  - 2. 菜蔬輸入先의 動向
  - 3. 菜蔬輸入 實積
  - 4. 生鮮菜蔬의 輸入事情
  - 5. 양파의 輸入 및 價格
  - 6. 輸入 制度
- VII 韓國의 農産物輸出
  - 1. 農産物輸出의 推移
  - 2. 對日輸出動向
  - 3. 濟州地域의 農산물수출
- VIII 綜合結論
  - 1. 生産·出荷의 System化
  - 2. 輸出戰略化

## I 序 論

周知되는 바와 같이 濟州는 年平均氣溫이 서울보다 3°C 最寒月(1月)平均氣溫은 8°C가 높아 亞熱帶性의 主要因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暖地性農業이 일찍부터 발전하여 왔으며 그 代表的인 것은 柑橘로서 地域農業所得의 牽引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60年代初부터 經濟作物로서 高구마, 油菜, 麥酒麥의 主産地를 이루어 加工原料로서 輸入代替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暖地菜蔬의 양배추가, 最近은 당근, 極早生양파, 얼마늘의 産地形成이 促進되어 12月~4月間 都市의 消費市場 market share에 獨占性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연구는 산학협동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反面 Monsoon風土下の 乾燥地農業이라는 濟州道の 獨特한 農法の 形成과, 營爲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卽 이른 봄부터의 高溫多濕은 有用한 植物의 成長促進과 함께 雜草의 繁茂는 陸地部에 비하여 中耕除草의 끊임없는 노력이 集注되어야만 한다.

또한 島嶼性에서 오는 隔絶性은 生産物의 出荷에 海上輸送이 追加되어 이를 부담하고도 견딜 수 있는, 즉 비교 우위성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는 限界가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溫暖性은 自然獨占的 促進要素이며 隔絶性은 費用追加的인 制限要素인 것이다.

이러한 有利와 不利의 共存속에 濟州의 菜蔬類生産은 副業的 段階를 지나 專業的 商業經營으로 定着化하고 있다. 이에 따라 穀物爲主의 生産, 消費流通構造에서 탈피하여 生鮮, 製소의 大量 遠距離 輸送農業에 알맞는 流通體系가 세워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大型産地는 形成되면서도 流通體系는 폐쇄적, 고정적인 圃田去來가 支配하는 모순이 溫存하고 있으며 市場需要에 입각한 計劃生産은 이루어지지 않아 過剩에 따른 價格不安定性이 支配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제주 菜蔬의 流通實態解明과 日本의 菜蔬生産動向, 輸入動向分析을 통하여 輸出의 可能性을 탐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는 크게 8章으로 구성되었다. 즉

Ⅱ는 濟州地域農業이 60年代 以後 오늘에 이르면서 어떠한 構造的 變化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 間接資料를 가지고 해명하였으며,

Ⅲ은 菜蔬生産과 流通實態를 분석하였는데 暖地菜蔬立地의 特性, 가격동향, 經營의 性格, 發展可能性등의 검토와 事例調査와 追跡調査에 의한 流通의 實態, 費用分析에 主力하였다.

Ⅳ는 日本의 菜蔬生産動向을,

Ⅴ는 日本의 農産物輸入實態解明에, 그리고,

Ⅵ은 日本의 農産物수입과 관련하여 菜蔬 輸入問題를 특히 양과수입을 중심한 심층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우리는 현재 貿易逆調에 있으면서도 日本市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족하지 않으나 생각된다. 間接資料에 의했지만 본인이 Seminar 참석차 渡日함에 따라 資料蒐集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Ⅶ은 韓國의 農産物輸出出現況은 어떠한가 對日 農産物輸出은 어느 水準인가를,

Ⅷ은 綜合結論으로서 菜蔬류 對日 輸出의 可能性을 검토하였다.

## Ⅱ 地域農業의 生産構造

### 1. 農業生産 및 所得構造의 推移

#### 1) 農業生産構造의 變化

濟州地域의 농업은 60年代를 起點으로 하여 畝作作物과 성장作物의 뚜렷한 代替現象에 따라 自給的 形態에서 商業的 농업형태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表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食糧作物 爲主의 生産, 1934年 96%, 1957年 98%에서 1961年 94%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는 그 비중이 54%로 격감되고 있다. 이러한 감소현상의 主要作目은 麥類, 1957年 48%→80年 22%, 雜穀 32%→2%로서 雜穀의 감소는 너무나 뚜렷한 바이다. 좀 더 作付体系의 推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畝作作物으로서 上記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제주지역 農業을 지배해 왔던 麥類, 雜穀이 현저한 감소인데 麥類가 현재 22% 수준이나 原料用 麥酒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실질적인 食糧用 麥類는 훨씬 줄어들어 濟州의 食糧作物인 쌀, 잡곡, 豆類와 합쳐 30% 수준으로서 30 : 70(감귤등 경제작물 및 채소류)의 作付体系를 보여주고 있다.

② 반면 特用作物 1957年 0.4%→1980年 20.2%, 채소류 6%→6.1%, 감귤 0.3%→20%로 急증하여 選擇的 擴大가 進행되었다. 그 결과 이상의 作目과 經濟作物인 고구마 17%, 麥酒麥을 합치면 商品生産의 作目이 70% 수준에 이르러 이들이 濟州地域의 基幹作目化하고 있다.

雜穀의 구성은 조, 메밀, 수수 등인데 그 所得率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食生活의 변화에서도 麥類, 雜穀은 기간作物에서 탈락되어지고 있다. 특히 濟州는 島嶼性에서 50年代까지 自給自足的 即 自己完結性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60年代에 들어서면서 開放化-開發의 進進은 농업경영 方面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sup>1)</sup>

대체적으로 농업경영은 自給經濟段階에는 自然條件의 制限을 받으면서도 自給의 必要에서 多樣的 作目的 生産을 불가피 하게 하지만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商品生産이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한 形態가 粗放作目이 集約作目으로 交替되는 것인데 自家消費用 農産物生産이 畝作하고 국내수요에 유리한 상품생산화라 할 수 있는 감귤, 경제작물, 채소 등이 主体作目化하는 것

1) 특히 濟州地域은 陸地部와 連陸化의 進展인데 즉 交通의 발달인 것이다. 이에 따라 古典의 島嶼性은 解消되나 絕對的인 距離空間은 不變이다. 交通路의 多樣化, 交通手段의 발달, 저장기술의 발전은 立地配置에 미치는 影響은 뚜렷하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송비의 節減, 운송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운송비의 地域差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킨다. 그 결과 ① 農産物의 市場供給圈을 擴大하며 ② 經濟地位에 의한 立地配置力을 감소케 하고 여기에 대신하여 自然條件에 의한 立地配置力이 증대한다. ③ 市場遠隔地를 상대적으로 有利케 하여 市場競争力을 높여주어 輸送農業(Truck Farming)을 발달케 한다.

이다.

또한 農業經營組織의 발전은 농업생산의 垂直的 分化(Vertical Differentiation)와 結合(Vertical Integration)이다.<sup>2)</sup> 즉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 加工食品消費의 증대, 농업 및 가공기술혁신의 진전은 食品加工業의 규모확대를 촉진하여 수직적 분화, 즉 原料農產物 生産과 加工의 分離에서 加工原料農產物 生産農家와 加工業과의 結合이라는 수직적 통합을 보여준다. 특히 契約農業(Contract Farming : 미국, 캐나다에서 보여준 일찍이 傾向임)이 여러가지 부문에서 나타난다. 제주에는 고구마, 맥주맥, 유채의 契約栽培 감귤의 加工資本과의 연계등 뚜렷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요의 과점성에서 가격형성에 문제점이 없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농업생산의 水平的 分化(Horizontal Diffentation) 또는 地域的 分化이다. 농업생산의 발전은 市場競爭을 유발케 한다. 그래서 보다 유리한 생산을 하기 위하여 特定の 생산이 자연조건 및 경제조건에 알맞은 특성의 지역에 발달하여 집중하게 된다. 이것은 大都市 市場에 규격이 통일된 생산물을 대량출하 하려는 것으로서 더욱 지역적 집중의 발전을 촉진하여 主産地形成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濟州地域은 經濟的 條件보다 自然條件에 힘입어 감귤, 맥주맥, 고구마, 유채 등의 主産地를 形成케 하였으며 최근 채소류 재배의 확대는 당근, 양배추, 입마늘 등 溫暖性을 利用하는 作目이 特化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통의 발달, 기술의 발전에 의해 收益力이 낮았던 土地가 逆으로 高收益力의 土地로 전환케 하고 있는 것으로서 輸送 農業의 발전은 高溫性 채소류를 多樣化, 大量生産化가 가능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商品生産이 아닌 市場競爭力이 강한 상품생산이 필요한 것이며 市場競爭力을 규정하는 것은 결국 ① 生産費 ② 品質 ③ 規格을 통하여 大量 出荷하는 出荷体制의 세가지 점에 귀착된다.<sup>3)</sup> 그러므로 특히 輸送農業으로서의 高溫性 채소류의 발전에는 上記한 경쟁력조건을 갖출 수 있는 主産地形成에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主産地要件中 流通組織과 관련하여 生産段階 및 流通段階에서의 機能的 組織을 강화하는 것은 급선무의 일이다.<sup>4)</sup> 또한 主産地化→單一作目化에 따른 連作의 피해를 극복하는 윤작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문제는 園藝-畜産의 結合構造에서 찾아질 필요가 있다.

2) 磯邊秀俊 : 農業經營學, p.119.

3) 上掲書, p.141.

4) 姜景禧 : 「감귤의 경영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 論文集, 1978.

〈表 II-1〉

年度別, 作物別 植付面積推移

단위: ha

年度	耕地面積	總植付面積		식량작물		특용작물		채 소		감 곽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93,154)										
1934	58,431	82,207	100	78,705	95.74	2,976	3.62	526	0.64	-	-
1957	39,369	65,055	100	63,470	97.56	234	0.36	13,051	2.88	-	-
1961	44,299	67,592	100	63,580	94.1	2,498	3.7	1,282	1.9	232	0.3
1966	56,666	80,408	100	71,678	89.14	6,291	7.82	1,780	2.21	659	0.82
1970	35,810	77,167	100	58,354	75.62	11,808	13.30	2,003	2.60	5,002	6.48
1975	49,499	80,115	100	47,751	59.60	19,914	24.86	1,519	1.90	10,931	13.65
1976	49,918	79,424	100	45,403	57.17	20,737	26.12	1,753	2.21	11,566	14.56
1977	50,101	79,858	100	40,282	50.44	25,722	32.21	2,144	2.69	11,710	14.66
1978	49,981	76,917	100	42,140	54.79	20,467	26.61	2,220	2.89	12,090	15.72
1979	50,111	73,645	100	43,797	59.47	14,136	19.20	2,803	3.81	12,909	15.53
1980	50,117	72,237	100	39,144	54.19	14,614	20.23	4,384	6.07	14,095	19.51

註: 1980년 현재 耕地利用率은 141.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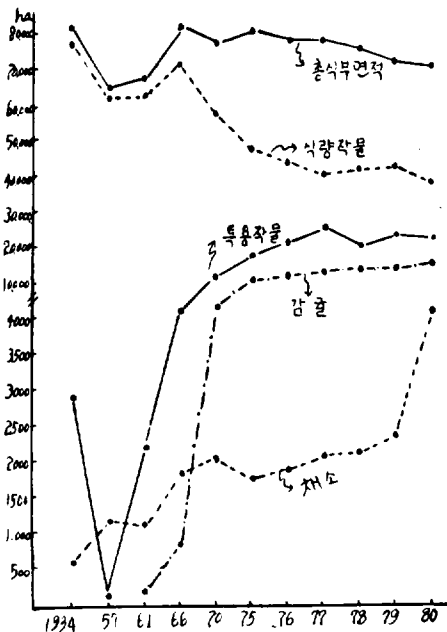
資料: ① 韓國統計 年鑑 1967.

② 農水産部: 農林統計年報 1981.

③ 濟州道: 濟州道統計年報 1981.

〈圖 II-1〉

年度別, 作物別 植付面積推移



## 2) 農業所得의 推移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는 農業所得構成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表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業粗收入中 食糧作物의 비중은 1970年 60.1%에서 1980년에는 33%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는 반면 감귤은 17%에서 45%로의急増을 나타낸다. 또한 特用作物은 감소추세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참깨는 증가추세이나 主要作物인 油菜粗收入이 상대적으로 낮은 水準에 정제되고 있음에 비롯된 것이다. 채소류는 75年 8.1%에서 80年 13.4%로 증가를 보여주어 특용작물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채소류의 농업소득상 비중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表Ⅱ-2) 濟州의 農産物別 農業粗收入 構成費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합 계		식량작물		특용작물		감귤		채소류	
	조수입	구성비	조수입	구성비	조수입	구성비	조수입	구성비	조수입	구성비
1970	6,907	100%	4,149	60.1	673	9.7	1,193	17.3	892	12.9
1975	42,148	〃	18,248	43.3	5,469	13.0	14,599	34.6	3,832	8.1
1976	45,796	〃	19,424	42.4	6,432	14.0	16,138	35.2	3,801	8.3
1977	62,887	〃	24,176	38.4	7,544	12.0	25,876	41.2	5,291	8.4
1978	80,571	〃	31,596	39.2	10,530	13.1	31,907	39.6	6,538	8.1
1979	104,083	〃	34,347	33.0	9,368	9.0	55,088	53.0	6,291	6.1
1980	116,014	〃	38,218	32.9	9,765	8.3	52,500	45.3	15,530	13.4

註: 70, 75년의 채소류에는 약용작물이 포함되며 76년이후는 특용작물에 포함된다.

資料: 濟州道 産業課資料에서 作成.

참고로 全國의 農産物別 粗收入構成을 다음 <表Ⅱ-3>에서 보면 농업조수입중 채소류의 비중이 79年 8.3%에서 80年 16.2%로 약 2배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동안에 果實의 비중은 1.9%에서 5.2%, 그리고 축산물은 5.9%에서 12.1%로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쌀을 제외한 穀物이 농업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年 17.8%에서 80年 10.2%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特用作物, 양잠, 농산가공 및 부산물 수입등 기타 농산물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농업조수입중 쌀의 비중은 同期間中에 50~60%로서 큰 변동이 없는데 이는 신품종의 개발, 보급등으로 생산량이 同期間에 현저히 증가한데 주로 기인된다.

제주지역의 농업조수입은 이상 살펴본 전국 추세치와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으나 두드러진 것은 제주의 田作地帶는 麥類등의 食糧作物 栽培가 급격히 감소하여 60% 비중에서 절반수준(33%)으로 떨어지는 반면 감귤의 현저한 증가, 채소류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용작물 구성비가 저하되는 요인은 한때 경제작물로 일컬어졌던 油菜收入의 상대적 정제에서 비롯된 것

〈表Ⅱ-3〉 農産物別 農業租收入 構成費(全國, 1965~80) 단위: %

年 度	쌀	기 식 량 작 물	타 작 물	채 소	과 실	가 축 및 그 생 산 물	기 타	계
1965	58.2	22.1		4.6	0.6	2.8	11.7	100.0
70	55.6	17.8		8.3	1.9	5.9	10.5	100.0
75	54.8	16.8		7.4	2.5	7.4	11.1	100.0
78	51.5	11.0		11.2	4.1	14.5	7.7	100.0
79	57.0	11.3		11.8	4.6	7.6	7.7	100.0
80	48.7	10.2		16.2	5.2	12.1	7.6	100.0

자료: 농수산부 「농가가격조사보고」 각 년도.

이라 보아진다.

또한 쌀 10a當 所得을 100으로 하여 他作物과 비교하여 보면 〈表Ⅱ-4〉 경제작물과 果實은 비교적 쌀보다 높으나 他穀類는 월등히 낮다. 1980年度の 경우 쌀(일반 수요)의 10a당 소득은 16만원으로 他穀類(보리, 소맥, 옥수수, 대두 등) 소득의 약 2.6배~3.2배나 된다. 감자의 10a당 소득은 최근 3年동안에 쌀과 비슷한 수준이며 고구마의 경우는 79년까지 낮은 수준이었으나 (78年 41.8% 76年 43.9%) 80年은 쌀 소득보다 약 50%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제주의 경제작물인 油菜는 쌀에 비하여 무려 5/1수준(80年 20.1%)에 머물고 있어 主 体作目的 收益性에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 油菜는 우리나라에서 제주지역이 1960年 (353ha 151%) 처음 재배하기 시작하여 64年度까지만 하여도 全油菜生産量의 70% 이상을 생산한 바 있다. 70年代에 들어와서 74年 13,485ha (30,618%)를 정점으로 하여 80年 현재는 8152ha(총식부 면적의 11.3%, 15,648%)로 떨어지고 있다.<sup>5)</sup>

제주의 田作物을 쌀의 소득과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맥주맥 48.2%, 유채 20.1%, 콩 32.5%, 쌀 29.2%, 녹두 72.8%, 조 33.7%, 메밀 11.3%, 감자 97.4%, 맥류 35.6%~38.3% 수준인데 이들 재배면적은 26,521ha로서의 식부면적의 37.4%를 차지하고 있어 農家所得向上에 새로운 体系形成이 바라지고 있다. 제주지역의 농가소득을 牽引하여 온 감귤의 재배농가는 76年 과수센서스에 의하면 농가호수 54,650戶中 18,264戶인 33.4% 정도이며 900坪 미만의 영세농이 32.5%로서 이들 재배면적은 감귤전체재배면적의 9%에 불과하다. 76年 900坪 미만의 영세농이 32.5%로서 이들 재배면적은 감귤전체재배면적의 9%에 불과하다. 80年 감귤재배 면적은 14,095ha로 총식부면적의 약 20%정도이다. 비감귤재배농가가 대략 3/2로서 이들 농가의 소득은 밭작물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농가소득 향상책

5) 사료확보책의 일환으로 수입되는 大豆와의 관계성이 깊다. 즉 大豆油와 油菜油는 경쟁제로서 그 생산성은 콩기름 보다 훨씬 낮으며 콩수입은 70年 36,291%에서 80年 41,700%으로 10年사이에 11.5배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따라 콩의 自給率은 78年 59.3%로 저하되고 있다.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表Ⅱ-4〉 全國 主要農産物의 段當所得比較(1979~1980)

品目別	1978		1979		1980		1980年의 所得率(%)	비 고
	所得	比率	所得	比率	所得	比率		
일반수도	130,385	100	152,726	100	160,683	100	65.6	재래종單作
통일벼	158,257	121.4	174,770	114.4	177,343	110.4	65.5	신품종單作
대맥	41,348	31.7	52,889	34.5	57,255	35.6	54.1	논대맥
과맥	42,554	32.6	54,956	36.0	61,476	38.3	53.1	논과맥
밭소맥	23,896	18.3	37,200	24.4	49,921	31.1	54.7	
택주맥	-	-	-	-	77,425	48.2	62.6	
대두	41,630	31.9	45,045	29.5	52,260	32.5	67.9	택후작
팥	-	-	-	-	46,879	29.2	65.8	
녹두	-	-	-	-	116,998	72.8	84.5	
조	-	-	-	-	54,197	33.7	67.7	
메밀	-	-	-	-	18,118	11.3	47.0	
감자	140,022	107.4	168,456	110.3	156,449	97.4	61.6	밭봄감자
고구마	54,479	41.8	67,086	43.9	239,610	149.1	84.4	
무우	175,258	134.4	182,225	119.3	204,939	127.5	79.1	가을무우
배추	271,691	208.4	302,290	197.9	360,042	224.1	83.9	가을배추
양파	322,280	247.2	90,232	59.1	361,744	225.1	79.4	밭양파
마늘	390,502	299.5	57,787	37.8	374,393	233.0	67.2	밭마늘
당근	-	-	-	-	230,403	143.4	74.5	
고추	326,774	250.6	527,360	345.3	582,266	362.4	84.9	노지고추
참깨	60,505	46.4	72,379	47.4	160,632	100.0	84.6	단작
유채	29,551	22.7	25,912	17.0	32,276	20.1	46.9	밭유채
사과	341,138	261.6	360,225	235.9	329,077	204.8	57.0	
배	347,510	266.5	396,693	259.7	428,946	267.0	62.7	
복숭아	208,671	160.6	296,478	194.1	289,506	180.2	56.4	
포도	441,048	338.3	511,675	335.0	517,096	321.8	72.6	
감귤	461,909	354.3	578,849	379.0	346,998	216.0	61.4	
스테비아	-	-	159,000	104.1	-	-	44.0	
양배추	-	-	474,986	311.0	-	-	85.0	
잎마늘	-	-	350,000	229.2	-	-	58.0	

註：① 所得率 =  $\frac{\text{經營費}}{\text{粗收入}} \times 100$

② 스테비아, 양배추, 잎마늘의 所得率은 1979年值임.

資料：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 1980 및 제주도 「농작물작부계획(안)」 1980에서 작성.



## II 濟州地域의 菜蔬生産과 流通實態 分析

### 1. 채소의 經營的 性格

#### 1) 채소류 分類

채소류의 性質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로 資本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노동력을 크게 요하는 채소류가 있으며, 둘째로 勞動力은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보다 일층 자본을 크게 요구하는 야채가 있는 것이다.<sup>6)</sup> 그래서 前者는 勞動集約的인 채소, 後者는 資本集約的인 채소류를 뜻한다. 채소류는 일반적으로 作物의 性格에서 包容力(capacity)과 그의 能率(efficiency)이 다른 作物보다 높다. 그러므로 集約化 性能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채소의 包容力과 能率=集約度의 逆數  $(\frac{1}{10a \text{當經營費}} \times 100)$ : 包容力이 큰 채소는 能率도 높고(果菜類), 包容力이 작은 채소는 能率が 낮다.(根菜類·葉菜類)

한편 채소류를 集約度에 의해 分類하면 세가지 系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채소류중에는 物的生産費보다도 勞動費를 많이 요하는 作物=勞動集約的 채소=例: 무우, 파 등과 物的生産費 및 勞動費 모두를 특히 物的 生産費의 증가율이 큰 資本集約的 채소=배추, 수박, 양파, 가지, 오이 등이 있으며 그 中間型인 양배추, 토란, 당근 등의 系列이 있다.<sup>7)</sup>

이상의 세 系列을 生産費 構成面에서 보면 쌀과 거의 비슷한 성격의 채소와 果菜類와 같이 가장 集約的인 채소 및, 中間型的 채소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 2) 菜蔬作 經營의 型

菜蔬作經營은 資本構成에 비하여 勞動費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경영조직인데 勞動投入이 많아도 3가지의 다른 方向이 있다. 첫째는 勞動力投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채소를 多樣하게 組合하여 土地利用率을 높이고, 延作付面積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勞動力을 吸收하고 있는 經營이다. 둘째는 作付 面積이 작아도 가장 勞動集約的인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經營이고, 셋째는 粗放的인 채소를 大面積에 재배하는 型이다.<sup>8)</sup>

6) 채소류를 포함하는 青果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腐敗變質性이 강하므로 장기간의 보전과 鮮度維持가 곤란하며 ② 品質이 多樣하여 切一性에 따른 規格化와 等級化가 어려우며 ③ 實質的 重量에 비하여 그 가격이 저렴하고 저장성이 낮으며 수송이 곤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농산물이다. ; 朴基赫; 現代農業經濟, p.128.

7) 小野誠志; 野菜作의 展開, 1980, p.66.

8) 小野誠志; 上揭書, p.72.

이상 세가지 型中 첫째와 세째의 經營型은 노동력 이외의 고정적 經營費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 流動的 經營費 投入率이 높다. 그런데 둘째型은 流動的 經營費 投入이 많을 뿐만 아니라 固定的 經營費 投入도 크다. 따라서 영세하고 資本蓄積이 빈약한 채소작 經營에서는 도입하기 어렵다. 한편 우리는 첫째의 經營型을 多毛作 土地利用 集約型 菜蔬作經營이라 부르고, 둘째型은 單一集約 菜蔬經營, 세째型은 單一粗放型 菜蔬作經營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3가지 型에서 어떠한 型이 성립케 되는가에는 市場立地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으로 보아 近郊産地는 多毛作 土地利用 集約型 菜蔬재배가 立地하는데 대하여 遠隔地일수록 單一大規模 集約型 혹은 單一粗放型의 菜蔬작으로 指向하고 있다. 어쨌든 둘째型에의 指向은 필연적으로 集約菜蔬에의 勞動力의 집중적 투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와 競爭되는 作目은 粗放化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면서도 單一大規模集約型 菜蔬作經營에 있어서는 粗放作物을 結合하여, 즉 保護作物로서 보통작물을 併行하게 된다(連作障害 등을 회피하여 安全性과 지속적인 소득의 추구에서 보통작물과 결합하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주도의 현재 채소작은 일반작물과의 副作目的 性格에서 主産地 形成에 따라(당근, 잎마늘, 극조생양파, 양배추 등) 基幹作目化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파, 양배추, 당근 등은 單一集約型으로 성립되고 있으며 勞働集約型이 또한 併行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 2. 菜蔬生産의 現象

菜蔬의 生産量은 總作付面積×10a當 收量으로 決定되어 都賣市場에의 供給量은 거기에 商品化率을 곱한 量이 될 것이다. 商品化率은 生産量으로부터 生産農家の 自給量과 商品이 될 수 없는 規格外品 혹은 폐기부분을 뺀 量의 生産量에 대한 비율인 것이다.

우선 作付面積과 收量에서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채소류 생산은 表Ⅱ-1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의 總作付面積上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1961年 약 2% 수준이 큰 변동없이 유지되다 1977年 약 3%로 증가, 현재 그의 배가 되고 있으며 그 生産額에 있어서도 농업생산액에서 13.4%를 점하고 있어 그 비중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作付面積推移를 보면(圖Ⅲ-1) 최근 현저한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 根菜類에서 당근(70年 4.2ha → 80年 494.3ha, 118배 증가) 및 마늘이며 葉莖菜類에서는 양배추(70年 52ha → 80年 197ha, 3.8배), 파(79年 19ha → 80年 112ha, 5.9 배, 엽상치 70年 12ha → 80年 33.4ha, 2.8배)등이고 果菜類에서는 그 절대량은 얼마 되지 않으나 가지, 딸기 등이다. 이상 재배면적 추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需要動向의 反映과 특히 교통 조건의 발달에 따라 수송농업의 성립은 그 수송성능이 높은 根菜類나 엽경채류의 양배추 등이 선호되게 마련으로서 이들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다.

채소류는 대부분 일정 時期에 수확되어 저장해 두었다가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아니다.

채소는 수확과 동시에 出荷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濟州地域은 소비시장면에서 狹小性이 支配되는 곳으로서 소위 陸地部로 搬出이 되지 않은 한 그 생산, 소비는 限界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금만 과잉 생산되어도 價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地域보다도 높게 마련이다. 현단계의 채소작 경영은 商品生産 經營指向으로서 價格變動에 따라 作付面積은 크게 변동한다. 채소작경영은 일반적으로 價格이 상승하면 작부면적이 증가하고 下落하면 감소하는 변동이 심한데 제주는 이러한 일반성에서 예외일 수 없으나 基幹作物作化—專業化함에 따라 價格변동에 관계 없이 固定性을 보여주는 品目(당근, 양배추, 마늘등)이 없지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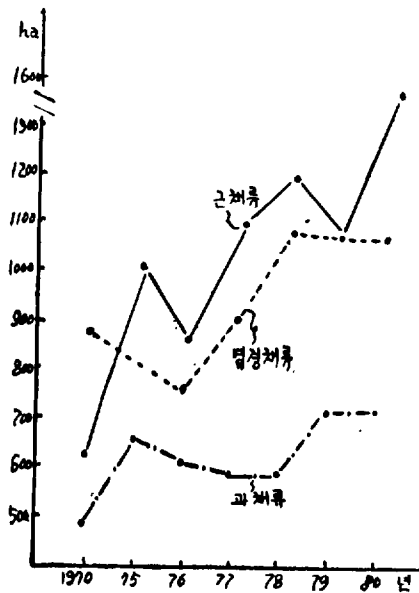
한편 채소류의 총수확량은 70年 24,230t에서 그 후 현저히 증가하여 80年 98,237t으로 4배의 증가를 보여준다(圖Ⅲ-2)

종류별로 보면 作付面積 推移에 대응하여 양배추(70年 1,332t→80年 8,842t, 6.6배), 당근(70年 29t→80年 11,788t, 406배), 파(70年 210t→80年 2,669t, 13배) 등이 현저하며 地域內消費의 多樣化와 연관되는 果菜類의 토마토(70年 586t→80年 2,465t, 4.2배) 노지메론(75年 10.8t→79年 115t, 10.5배), 딸기(70年 2.8t→80年 73t, 26배) 등이 뚜렷하나 채소 전체로는 增減이 심하여 不安定하다.

채소류의 생산량이 豫測 가능한 推勢變動을 나타낸다면 供給은 作付面積에서 調整될 수 있을

〈圖Ⅲ-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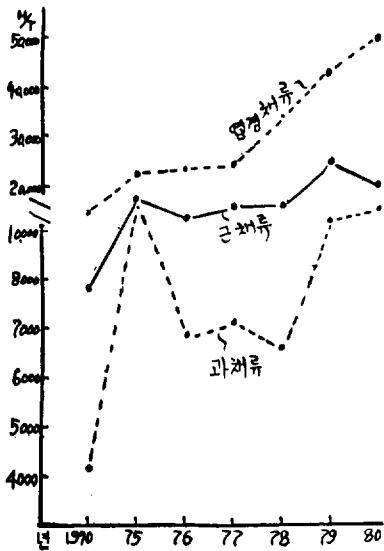
채소류작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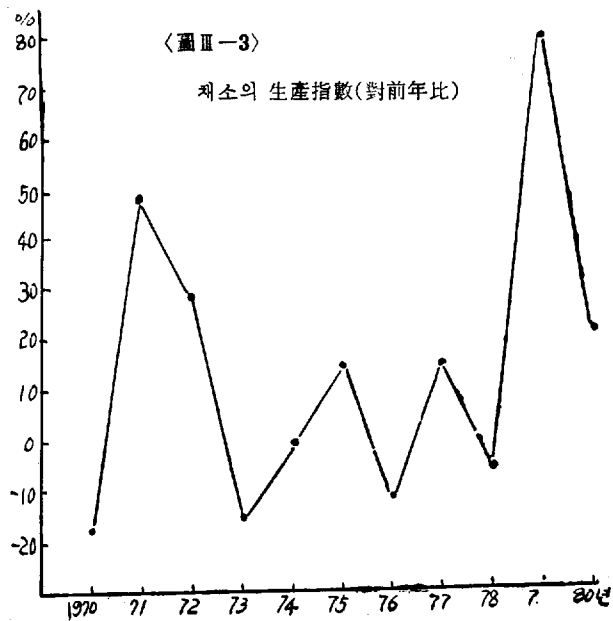
것이다. (생산량 변동에 대한 單位數量과 值付面積의 기여율은 평균해서 3:7정도이다. 즉 생산량 변동의 약 30% 정도는 단위 수량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의 70% 가량은 식부면적에 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량 조정은 식부면적 조정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렇지만 농산물 중에서는 채소만큼 不規則變動이 큰 것은 없다. 對前年の 生産指數를 보면 <圖Ⅲ-3>과 같다. 1970年 이후에 대해서 보면 前年比最高의 79年과 最低의 70年の 差는 103.8%에 이르고 있어 그 변동폭은 대단히 심하다. 채소류의 특징의 하나인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낮은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작다는 것은 需要에 대한 供給量이 약간의 增減이 있어도 심한 가격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생산량이 增減이 되풀이 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島嶼性으로서의 狹小性(市場)은 이를 더욱 촉진케 한다, 따라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변동의 폭을 작게 하려면 市場에 대응한 생산조정이 있어야만 한다.

<圖Ⅲ-2> 채소류수확량



<圖Ⅲ-3> 채소의 生産指數(對前年比)



그러나 일부의 品目은 陸地部 搬出을 目標로 생산되어 산지형성이 되고 있지만 무우, 배추 등은 주로 地域內 消費로서 그 不安定性은 더욱 크다.

그리고 濟州地域 채소류 전체의 10a當 收量은 70年 1,210kg에서 80年 2,809kg, 2.3배의 신장을 보여주고 있다.

### 3. 暖地菜蔬産地의 形成

#### 1) 菜蔬의 立地條件

채소의 立地條件을 規制하는 條件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채소는 Vitamin을 함유하고 있어 必需的 副食物의 給源으로서 특히 新鮮度를 중시하는 作物이다. 또한 腐敗性과 變質性이 강하여 輸送費用이 많이 걸린다. 반면 市場價格面에서 實質重量에 비하여 그 價格이 저렴하기 때문에 채소작을 消費地(都市) 近郊에 立地케 한다.

② 채소는 端境期에 비교적 高價를 형성하며 재배기간도 짧기 때문에 收益力이 크고 土地利用度도 높다. 따라서 高所得, 高地代를 마련케 해주기도 한다.

이상 두가지 조건은 채소재배를 自然立地에 혜택이 큰 輸送地帶에 立地시킴과 동시에 都市 近郊에서 集約度가 높은 施設園藝를 발달케 한다. 自然條件에 힘입어 생산비용이 크게 절약될 수 있어 그 節約部分으로 市場까지의 운임, 출하비용을 감당할 수 있기도 하다. 市場價格條件이 有利한 時期에는 輸送地帶가 生産費用이 많이 걸리는 도시근교의 집약적 시설 채소생산을 앞질러 생산을 독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채소생산은 수송비와 시장가격과의 관계에서 都市 近郊에 立地하는 것과 自然의 혜택에 의한 輸送地帶(暖地 혹은 高冷地)에 立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立地類型에서 제주지역은 暖冬의 氣象條件을 활용하여 冬季期間 채소를 재배하는 暖地 채소산지형성이 가능하다. 채소류의 作型에 따라 濟州地域과 연관하여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Ⅲ-1), (表Ⅲ-2)

#### 2) 産地의 競爭力

一般的으로 産地는 所與의 生産物을 판매하여 얻어지는 賣上高의 最大와 總生産費用과 總販賣費用의 最小를 目的으로 活動하게 된다. 앞서는 自然的 暖冬性의 立地의 有利性에 의한 生産의 展開를 보았는데 이를 他地域의 生産費와 비교하여 그 利点의 可能性은 어떠한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表Ⅲ-1〉 제주지역과 관계되는 채소류의 作型

作目	作 型	播種期	出荷期	(栽培地域)	備 考
당근	春播栽培	3~4월	7~8월	全國平地	우리나라의 당근은 주로 이것이며 저장된 것이 다음해 3월까지 출하된다. 제주지역은 冬季월동 및 生育可能
	高冷地 〃	6월	9~10월	고냉지(강원도)	
	여름과중재배	7월하~8월상	11~12월	全國平地	
	하우스및턴널재배	7월하~8월상	5~6월	남부지방	
양파	極 早 生	8월하	4월상~하	제주지역	일양과는 3월부터 출하되나 다른지역에 비해 1個月 早期出荷 可能
	早 生		5월초~	全南, 경남의 남해안지역	
	中 晚 生		6월초~	무안, 함평지역	
양배추	겨울재배	7월하	12월하~5월	제주지역	제주지역은 冬期間 수시 출하가 가능, 겨울철 공급의 主産地
	가을재배	6~7월	10월~12월	강원도지역	
	봄재배	이른봄과중	7월~8월	전국 명지	
일마늘		8월하	12월하~3월하	제주지역	이때 공급되는 것은 일마늘로서 겨울동안 수시 출하가 가능하다. 마늘은 용도에 따라 일마늘, 꽃마늘(장아찌용) 및 일반용으로 생산 출하된다 (꽃마늘은 5月中旬부터 출하)
		8월하	3월하~5월상	남해안지역	
감자	춘 작	3월	6~7월	전 국	감자의 단경기는 5월로서 제주지역에서는 겨울동안 圃場일동이 가능하여 단경기 공급이 가능하다
	하 작	5월	8~9월	강원, 경북고령	
	추 작	8월	10~11월	제주, 남해	
	동 작	1월	4~5월	제 주	

※ 감자의 단경기 : 5월

당근의 〃 : 4~6월 특히 5월이나 濟州産은 12~3월에 출하되어 저장당근을 상품가치면에서 압도하고 있다.

마늘의 〃 : 1~4월 이때 일마늘로서 제주지역이 출하한다.

양배추 〃 : 1~3월.

(1) 生産要素價格에 대한 검토

채소생산에 있어서 最大의 費用은 動勞費인데 이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평야지역(김해, 함안, 삼천포, 진주, 창령 : 이들 지역은 濟州의 菜蔬들과 경쟁성을 갖고 있다)의 생산수량 및 생산비를 100으로 하여 제주지역과의 비교 우위성을 당근과 양파에서 살펴보면 (表Ⅲ-3), (表Ⅲ-4)와 같다.

<表Ⅲ-2> 제주지역의 暖地 채소 生産량(1981)

品目	栽培面積	生産量	備 考
당근	1,168ha	22,262t	全國 生産量(3,952ha, 69,821t)의 32%로 第1位의 主産地가 되고 있으며 第2位는 강원도(491ha, 9,182t)가 11.7%이다. 그러므로 당근의 主産地는 제주지역으로 이동되었다.
조생 양파	289	9,508	무생은 전국생산량(600ha, 16,800t)의 56%를 제주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양배추	315	14,545	모든 作型을 포함한 우리나라 生産量(1,961ha, 58,597t)의 24.8%를 점하고 있어 第1位의 主産地가 되고 있으며 다음이 강원도(12,522t 생산, 21.4%)이다.
일마늘	745	6,734	일반용 마늘까지를 합친 생산량이나 이증에서 일마늘 출하동향을 보면 79年 7,034t의 23%인 1,604t, 80年 6,031t의 38.4%인 2,318t, 81年 6,734t의 59.7%인 4,017t이, 일마늘로 출하되었는데 일마늘 출하비율이 높아가고 있다.

註: 겨울작물에 대한 統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生産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 1981年度 것만 정리해 본 것이며 무생양파는 1982年 生産이다.

또한 겨울감자는 제주도농촌진흥원이 시험에 성공하여 보급단계에 들어서고 있어 生産량은 아직 극히 소량이다.

① 당근은 數量, 總生産費와 특히 고용노임, 地代面에서 제주가 월등한 우위성을 갖고 있

<表Ⅲ-3> 당근 生産비 비교(경남 평야지역, 제주) (基準: 10a當)

數 量	2,010 kg	100.0	2,717 kg	135.2
生産 費	180,155	100.0	142,556	79.1
勞賃(日當)	35,002	100.0	7,865	22.5
〃 (자가)	66,623	100.0	63,319	95.0
(小 計)	(101,625)	(100.0)	(71,184)	(70.0)
地 代	21,875	100.0	17,085	78.1
純 收 益	148,480	100.0	301,674	203.2
所 得	240,911	100.0	385,218	159.9
附加價值	276,625	100.0	393,631	142.3
純收益率	45.2	-	67.9	-
所得率	73.3	-	86.7	-

註: 경남평야지역: 김해, 함안, 삼천포, 진주, 창령  
 제 주 : 제주전역

資料: 농촌진흥청: 1980 農産物 標準所得

〈表Ⅲ-4〉		양파 생산비 비교(경남평야지역-제주)			(基準: 10a當)
數 量	3,551 kg	100.0	2,853 kg	80.3	
生 産 費	215,705	100.0	205,926	95.5	
勞賃(고용)	33,346	100.0	40,714	122.1	
〃 (자가)	80,865	100.0	98,397	121.7	
(小 計)	(114,211)	(100.0)	(139,111)	(121.8)	
地 代	43,750	100.0	34,170	78.1	
純 收 益	237,758	100.0	138,402	58.2	
所 得	367,911	100.0	276,858	75.3	
附 加 價 值	401,805	100.0	318,284	79.2	
純 收 益 率	52.4	-	38	-	
所 得 率	81.1	-	76	-	

資料: 上同

나. 그 결과 純收益은 10배에 달하고있어 제주의 立地優位性은 뚜렷하다.

② 양파: 경남평야지역이 제주에 비해 數量, 勞賃에서 훨씬 有利하다. 다만 제주는 地代만이 有利할 뿐이다. 그 결과 純收益은 거의 절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生産費面에서는 경남평야 지역이 양파재배는 보다 큰 有利性을 갖고 있다고 보아지며 제주로서는 一般 양파 作型이 아닌 極早生作型이 바람직하나 여기에는 저장양파의 數量과 函數關係가 있으므로 저장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에 따른 계획생산이 있어야 될 것이다. 또한 一般作型에 있어서는 10a當 數量의 增大, 勞賃의 절약에 노력이 가해져 生産성향상이 바라 진다.

### (2) 輸送費의 產地別 格差

產地 立地條件의 經濟的 競爭力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앞서 살린 生産비용에 나타나는 生産要素 價格의 產地別 格差문제와 함께 販賣費用에 나타나는 輸送費의 產地別 問題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Ⅲ-5 產地組織의 marketing 計劃에서 취급되겠지만 우선 당근에서 蒐集 및 中繼段階의 費用(輸送費가 포함된 비용)을 보면 kg當 부산→서울, 제주→서울의 비용을 보면 부산에서가 40.4원 제주에서가 72.3원이 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주요농산물의 유통경로 및 마진조사보고 1979. 2. 21조사) 이러한 格差는 80%가 더 부담되는 즉 輸送立地面에서 濟州의 不制性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상 產地의 立地條件과 경쟁력을 규정하는 產地內的 要因으로서는 經營規模, 組織力, 生産條件, 生産技術水準, 販賣政策 등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는 宿命적인 海上輸送費의 追加負擔을 產地內的 要因을 보다 整備하여(Ⅲ-5에서 論함) 產地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만 될 것이다.

## 3) 暖地菜蔬의 發展可能性

### (1) 施設菜蔬의 生産動向



1980年 현재 시설 채소재배면적 9,228ha에서 全菜蔬 生産量 7,269,000t의 3%인 216,500t을 생산하고 있으며 성장율은 23.2%로서 全菜蔬의 9.7% 보다 훨씬 높다(表Ⅲ-5). 이와 같이 전

〈表Ⅲ-5〉 年度別 비닐하우스 채소의 생산실적 단위 면적: ha  
생산량: 千t

年度別	全 体 菜 蔬 生 産 量 (A)	비닐 하우스		
		재배면적	생산량(B)	B/A(%)
1975	4,576	3,349	71.4	1.6
76	6,055	3,276	81.0	1.3
77	6,202	3,981	89.2	1.4
78	7,698	4,971	115.5	1.5
79	8,142	6,348	174.0	2.1
80	7,269	9,228	216.5	3.0
平均成長率 (75~80)(%)	9.7	22.5	23.2	—

資料: 農林部

채소량에 대한 시설채소는 生産量의 比重은 3.0%에 불과하나 品目別로 보면 토마토의 경우 생산량(80年 49,000t)의 49.1%인 21,700t이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치와 오이는 각각 53,600t의 32.6%인 17,500t, 112,600t의 33.7%인 37,900t으로서 시설 채소 비중이 높다.<sup>9)</sup>

한편 80년의 양배추와 당근을 보면 각각 73,200t의 0.4%인 300t, 75,100t의 3.2%인 2,400t이 비닐하우스에서 생산공급 되었다. 이들은 釜山등 南部地方에서 주로 생산되어 5月出荷를 그 目標로 하고 있다. 또한 80년의 品目別 生産實績을 보면 葉채류로서는 배추와 상치가 총하우스생산량중 각각 26.2%, 8.1%로 主作目を 이루고 있으며 根菜類에서는 무우 9.9%, 果菜類는 오이 17.5% 딸기 4.8% 順으로 되어 있다.

## (2) 濟州 露地栽培의 可能性

濟州는 冬季溫暖性を 活用하여 house재배를 露地栽培로 施設加溫栽培를 無加溫栽培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물론 溫暖한 自然條件의 優越성은 技術進歩에 따라 극복되며 條件으로서의 絕對性은 상실되어 나가겠지만 다음 〈表Ⅲ-6〉例와 같은 에너지 投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施設物을 갖추어야만 한다.

오늘의 농업은 機械化, 化學化, 裝置化라는 기술혁신의 결과 石油使用이라는 에너지 소비증대가 불가피하고 있다. 예를 보면 畚作에 있어서 경운, 이앙, 刈取, 調整까지의 기계작업은 石油를 필요 불가결케 하고 있으며 除草劑, 農藥, 化學肥料, 포장대는 대부분 石油化學製品

9) 農協中央會; 시설농업 경영실태조사보고, 1981.

들이다.<sup>10)</sup> 그럼에 따라 monoculture化의 경향, 나아가서는 土地利用度의 저하, 多肥. 多農藥農法에 의한 환경오염, 식품오염 등 公害의 多發化, 제조의 대규모 連作에 의한 地力障害, house病, 에너지의 대량소비와, 에너지 效率低下, 技術 cost의 상승과 과잉투자 문제등 demerit가 파생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日本の 경우를 보면 (우리는 아직 농가에 투입되는 에너지 및 그 效率性 문제가 아직 체제화 되어 있지 못하다) 施設園藝產 토마토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石油는 약 200cc, 오이 1個에는 100cc, 메론 1個에는 18ℓ, 감귤 200cc, 가지 50~60cc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시설 원예에 있어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확물 1kg當 暖房燃料의 量을 계산하여 換算한 것이다)

좀 더 에너지 소비의 구체성을 보면 즉 露地菜蔬와 施設園藝의 에너지 效率 및 Vitamin

〈表Ⅱ-6〉 生鮮農産物の Energy消費比較

	投入Energy (Gcal/ha)	産出Energy (Gcal/ha)	效率 = 産出 / 投入	Vit.C 생산에 투입된 Energy (Kcal/mg)	露地栽培에 대한 倍率	露地것에 대한 價格 倍率
쌀	30.1	16.7	0.55	—	—	—
토마토(1)	35.3	23.2	0.66	2	1.0	1.0(7~9)
토마토(2)	631.0	31.0	0.05	67	33.5	} 2.3(12~3)
토마토(3)	693.0	28.3	0.04	80	40.0	
오 이(1)	48.8	6.8	0.14	4	1.0	1.0(6~8)
오 이(2)	1,023.0	10.9	0.01	111	27.8	} 2.4(12~3)
오 이(3)	818.0	8.9	0.01	110	27.5	
가 지(1)	70.0	17.3	0.25	16	1.0	1.0(7~9)
가 지(2)	461.0	23.5	0.05	156	9.8	2.3(12~3)

資料：全國農業新聞(1977. 3. 18)：東京大學農學部，高倉直 算出.

註：① house內에 作物에 함유된 Vit.C는 露地것의 1/2로 가정되어 있음.

② (1)은 露地栽培 (2)는 加溫house內의 半促成栽培 (3)은 加溫 house內의 促成栽培.

③ 露地의 것에 대한 가격의 배율은 東京 都賣市場을 기준한 것임.

首都圏流通問題研究會編：農産物流通の現代的 課題，統計協會 p.27에서 인용.

C 1mg을 생산하기 위한 투입 에너지를 본 것이다.(表Ⅲ-6)<sup>11)</sup>

그런데 에너지 效率이 露地의 것에 비하여 하우스의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더욱 Vit.C 1mg의 생산에 요하는 投入 에너지는 house 토마토 67~80kcal, 오이 111~110kcal로서 露地에 비하여 토마토는 33~40배, 오이 27~28배를 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른 에너지 供給源을 토마토의 例에서 보면 化石燃料 65% 施設 및 土地 22% 肥料 9%, 農藥 3%

10) 西獨 및 日本의 농업용에너지 소비량은 全体の 3%전후로 되어있다.

11) 首都圏流通問題研究會編；農産物流通の現代的 課題，1981, p.27.

등의 구성인데 石油 에너지소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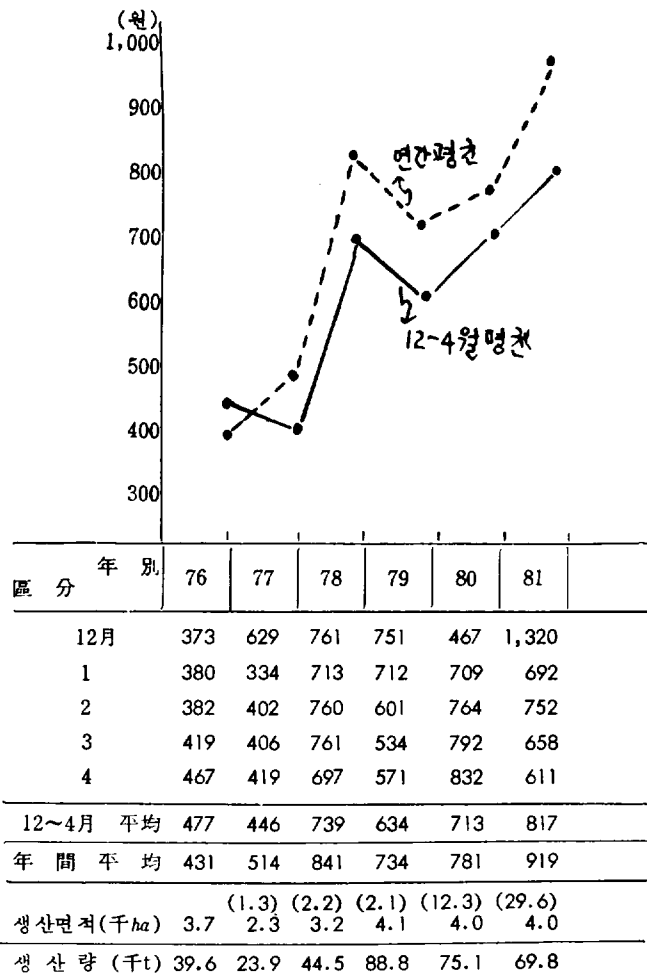
이상 日本의 예를 요약해 보았지만 우리의 경우도 비슷한 施設園藝의 에너지소비는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濟州는 겨울의 溫暖性を 活用하는 農法의 開發은 더욱 立地的 獨自性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 4) 主要菜蔬의 價格動向

##### (1) 당 근

① 75年 基準 80年 價格指數는 218.2로서 80年の 全都賣物價指數 225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

〈圖Ⅲ-4〉 당근의 產地價格(中品基準) 單位: 원/3.75kg



註 : ( )는 전체에 대한 제주지역의 비중(%)

며 年間 價格變動幅은 200~400% 수준이고 9月前後가 年中 高價格을 형성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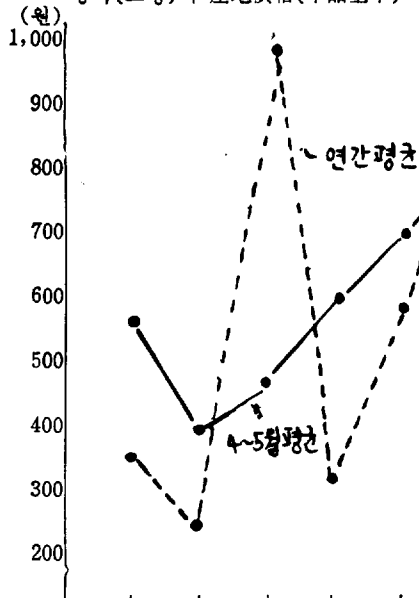
② 다음 (圖Ⅲ-4)는 5年間('77~'81年) 濟州당근이 出荷되는 時期인 12~4月的 價格을 본 것인데 年平均 價格보다 낮은 것이 주목된다.

③ 1kg當 소비는 '75年 0.56kg에서 '80年 2kg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主로 副食으로 消費되고 있으나 最近건강식으로 또는 넥타등 加工原料의 소비가 늘고 있다. 또한 당근의 수출은 76年 1,380t, 77年 838t, 79年 291t, 80年 229t이 된다.<sup>12)</sup>

(2) 양 파

① 양파가격은 장기적으로 上昇하는 추세('70=100, 0——'81年 220)에 있으나<sup>13)</sup> 年度別로 심

〈圖Ⅲ-5〉 양파(조생)의 產地價格(中品基準) 단위: 원/3.75kg



區 分	年 別	76	77	78	79	80	81
	4月	591	429	476	745	657	949
	5月	549	395	508	500	785	787
	4~5月 平均	570	412	492	623	721	868
	年 間 平 均	373	277	994	352	608	965
		(5.3)	(1.9)	(3.5)	(2.7)	(2.7)	(5.8)
	생 산 면 적(千ha)	5.1	12.1	7.1	9.7	7.4	9.8
	생 산 량(千t)	124.1	257.7	165.2	393.1	274.9	281.4

註 : ( )는 全体에 對한 濟州地域의 比重(%)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食品需給表, 1980.

13) 農水産食品價格指數 277 및 全都賣物價指數 225에 못미치고 있다.

한 起伏을 보이는데 생산량 및 재배면적과 價格間에 일정한 時差(time lag)를 두고 등락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季節變動幅('80年 313.3)이 큰 농산물의 하나이며 수확기인 6~8월이 가장 낮고 3~4월이 가장 높다. 그럼에 따라 極早生出荷期인 4~5월의 平均價格은 '78. '81年을 제외하면 年平均價格을 上回하고 있다.(圖Ⅲ-5)

② 極早生の 가격은 前年の 生産動向 및 低溫 저장물량과 깊은 함수관계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情報가 需給調整 즉 生産調整에 중요하다. 현재 全國 低溫倉庫施設은 142棟, 38,016坪에 114,048t 저장가능하며 49%가 경북에 집중되어 있고 (사과의 저장과 연관된다) 全南은 생산량의 45.7%는 점유하고 있지만 시설은 13% 수준에 불과하다.<sup>14)</sup> 제주 (4棟 227坪)는 681t의 저장가능데 생산량의 0.6% 정도이다(極早生은 저장불가).

③ 1人當 消費量은 '75~'76年 2~3kg에서 '80年 7kg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수출은 表Ⅲ-7과 같이 78年을 제외하고 계속 수출이 되고 있으나 81年の 수출량은 전생산량의 0.5% 수준이다.

<表 Ⅲ-7> 양파의 生産量, 收買量, 輸出入量 (1971~81) 단위: t

年 度	生産量 (A)	輸 入 量	輸 出 量 (B)	收 買 量	B/A
1971	89,690	-	-	3,000	-
72	119,628	-	388	-	0.0
73	91,476	-	785	-	0.9
74	128,043	-	2,434	-	1.9
75	94,882	-	2,238	-	2.4
76	124,102	-	2,210	-	1.8
77	257,709	-	7,752	-	3.0
78	165,241	23,401	-	23,401	-
79	393,009	-	13,304	1,848	3.4
80	274,918	-	500	81	0.2
81	281,420	-	1,300	-	0.5

註: ① 收買量=備蓄量

② 79收買價 kg/67원, 80收買價 kg/75원.

자료: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1972~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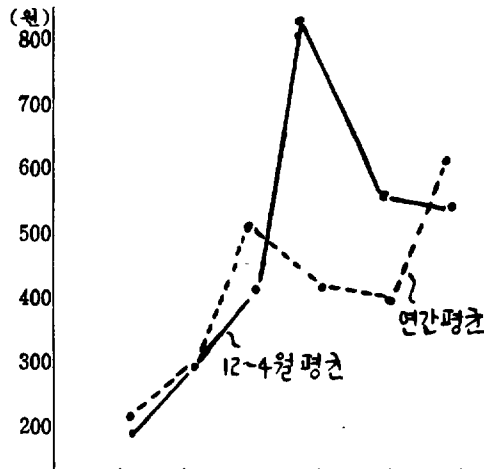
“ 농업경제국.

14) 農漁村開發公社; 農産物の 流通實態와 當面課題 1981, p.88.

(3) 양배추

- ① 양배추는 周年 供給되고 있는데 제주産의 出荷時期는 12~다음해 4月까지이다.
- ② 양배추의 소비는 食生活의 改善, 肉類消費增加, 洋食化, 세러드用 등으로 소비증가는 뚜렷하여 이제는 무우나 배추의 代用品이 아닌 獨立品으로서의 위치가 견고해지고 있다.
- ③ 시기별 가격변동을 보면 7~10月이 하락하고 12~5月까지는 높게 형성되나 2月부터 점차 하락한다. 年間 價格變動幅은 200~600% 内外로서 가격 안정성이 결여되고 있다. 또한 12~4月의 평균가격은 진폭이 있으나 年平均 價格을 上回하고 있다(圖 Ⅱ-6).

〈圖 Ⅱ-6〉 양배추의 產地價格(中品基準) 단위: 원/3.75kg



區分	年別	76	77	78	79	80	81
12月		230	10	518	434	382	676
1		246	263	368	1,093	521	383
2		246	298	386	967	560	415
3		244	317	377	786	598	298
4		300	349	411	745	657	374
12~4月 平均		211	308	412	805	540	429
年間 平均		226	305	508	403	390	595
생산면적(千ha)		(11) 1.2	(24) 0.95	(17) 1.1	(12) 2.2	(9) 2.2	(-) 2.0
생산량(千t)		28.2	23.3	25.7	86.9	73.2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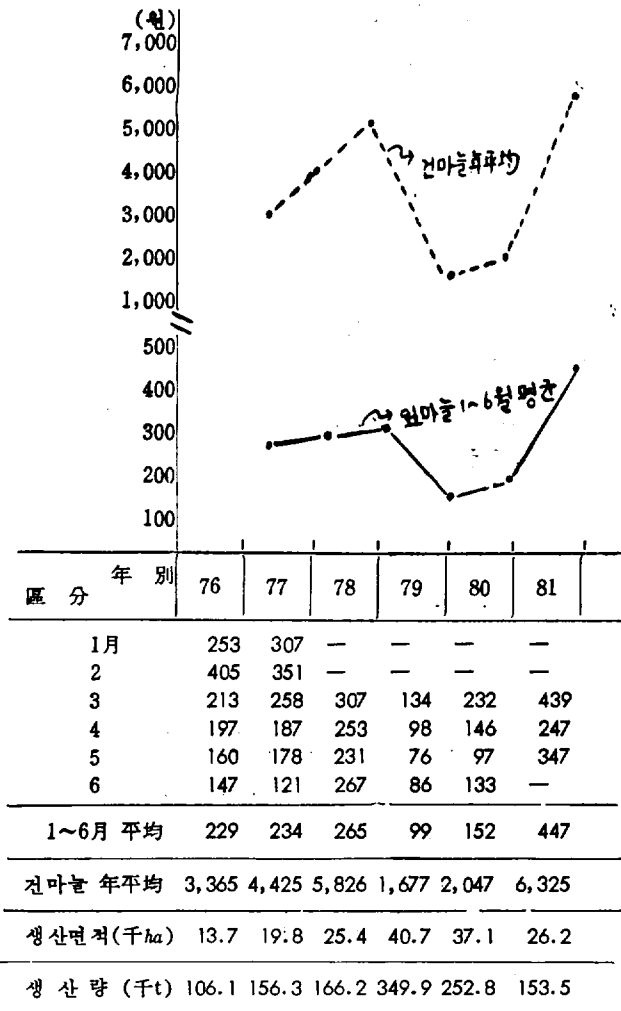
註 : ( )는 전국에 대한 제주지역의 비중(%)

④ 양배추는 '76 : 1,810t '77 : 557t '78 : 1,346t '79 : 1,932t '80 : 1,346t이 수출된 바 있다.<sup>15)</sup>

(4) 잎 마늘

① 마늘은 用途에 따라 잎마늘用(잎, 줄기利用) 풋마늘用(깎아찌用) 및 一般用으로 생산출

〈圖 Ⅲ-7〉 잎마늘 都賣價格(中品基準) 단위: 원/kg



註 : 전마늘은 접당(100개)가격임.  
 資料 : 농협중앙회국제부 차관사업단 ; 81施設園藝 1982.  
 농협중앙회유통부 ; 10대도시 농산물 가격현람에서 작성.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前掲書.

하되며 일반 調味用 67.8%, 김장용 24.2% 절임용 8% 비율로 소비되고 있다.<sup>16)</sup>

② 年度別 價格등락이 현저하며 雜球 및 김장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강세를 보인다 (특히 3. 4. 5월에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③ 3年 適期の 價格變動을 보이며<sup>17)</sup> 잎마늘은 2. 3月 출하기에 고가격을 형성하고 4~5月 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된다. 또한 건마늘 가격과 같은 가격추세를 보인다(圖Ⅲ-7). 乾마늘과 鮮마늘의 가격차는 81年에서 볼 때 1kg당 2,689원인데 잎마늘은 447원으로서 16.6% 수준이다.

④ 마늘은 '73: 180t '74: 193t '75: 7t '79: 9,466t '80: 2,645t이 수출된 바 있으며 80年의 主要輸出對象國은 홍콩(2,203t) 일본(135.9t) 미국(80t) 등이었다.

#### 4. 流通實態分析

##### 1) 生産 및 出荷의 構造

※ 당근, 양배추, 잎마늘의 판매시기, 장소, 대상과 그 방법등의 實態把握은 事例調査를 통하여 있는데 다음의 調査地域에 대하여 各生産農家 15戶(計 45戶)를 有意抽出하여 調査票에 의한 面接調査나 地域內的 기타 生産農家 및 有關機關의 共通意見을 취합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

구좌읍 평대리: 당근 주산지역

애월읍 팍지리: 양배추 주산지역

애월읍 애월리: 잎마늘(마늘)주산지역

조사기간: 1982. 2. 12~ 2. 20.

##### (1) 生産概況

다음 (表Ⅲ-8)에서 보면 總耕地面積에 대한 當該作物栽培面積은 대략 32~38%로 되고 있으며 作況에 따라 다르지만 재배기간(7~12月) 동안 태풍, 旱害 등이 겹쳐 廢作比率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당근 44.5%, 양배추 30.9%) 이러한 廢作은 圃田賣買時 評價에서 제외됨은 물론으로서 실제로는 기상요인, 連作피해 (양배추)등에 의한 것과 밭매기 거래는 目測에 의하기 때문에 減歩率이 혼잡작용하여 非商品化 面積은 생산자에 불리하게 늘어남은 물론이다 (밭매기 評價時 減歩率은 보통 20%~30%가 적용되고 있다)

16) 농어촌개발공사; 前掲書, p. 48.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農産物價格 變動分析 및 豫測과 收買事業의 效果分析 1980, p. 55.



〈表 III-8〉 生産 概 況 단위: 호당, %, 원

구 분	총경지면적	재배면적	비율(%)	예상수확량 또는 면적	판매수량 또는 면적	비율(%)	판매가격
당 근	8,320(坪)	3,133(坪)	37.7	3,133(坪)	1,723.2(坪)	55.5	1,720(坪)
양배추	3,973(〃)	1,357(〃)	34.2	11(本)	7.6(本)	69.1	147.5(本)
잎마늘	2,496(〃)	804(〃)	32.2	5.8kg	5.8kg	100.0	2,300(坪)

註: 당근재배농가의 平均총경지면적 및 당근재배면적이 큰것은 賃借耕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栽培動機

당근 잎마늘은 「수익성이 좋아서」가 80% 이상이지만 양배추는 60%로서 조사대상지역아 양배추 재배경력이 10년이상으로서 連作의 피해등으로 廢作率이 높고 收益性이 需給에 따라 安定性이 크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지나(表III-9). 그래도 他作物에 비해 收益性이 높다. 당근은 최근 3年内外에 형성된 신흥산지로서 7월에 파종하여 10~11월에는 生長期靑田賣買가 이루어져 영농기간이 짧아 다른 作物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잎마늘은 잎마늘→뚝마늘→진마늘로 가격사정에 따라 팔수 있기 때문에 판매시기등에 탄력성을 갖고 있다<sup>18)</sup>

〈表 III-9〉 재 배 동 기 (단위: %)

區 分	당 근	양 배 추	잎 마 늘	平 均
① 수익성이 좋아서	86.6	60	80	75.5
② 자연조건이 좋아서	6.7	26.7	13.3	15.6
③ 재배가 용이해서	6.7	13.3	6.7	8.9
計	100	100	100	100

### (3) 生産者意向

생산자 意向은 대체적으로 現規模를 유지하고자 하는 見解가 59%로서 지배적이고 규모확대

18) 일반 水稻의 所得=100일때 당근=143.4 유채=20.1 마늘=233.0(이상은 농촌진흥청 1980年 標準 所得에서 계산) 양배추=311.0 잎마늘=229.2 (이상은 제주도 자료에서 계산)로서 유채에 비해서 는 훨씬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6 논 문 집

를 지향하는 의견은 25%이며 규모축소에 대한 의견도 17%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가격안정성이 없어서 59% 가격하락으로 수익이 낮아서 29%순이다. 이러한 견해는 가격전망성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안정성이 제기된다(表Ⅲ-10, Ⅲ-11).

(단위: %)

<表 Ⅲ-10>                      生 産 者 意 向

區 分	당 근	양 배 추	일 마 늘	평 균
① 규모를 늘리려 한다	26.7	27.2	21.4	25.1
② 규모를 줄이려 한다	13.3	20.4	14.3	16.8
③ 현재정도로	60.0	50.0	64.3	58.1
④ 모르겠다	—	2.2	—	—
計	100	100	100	100

(단위: %)

<表 Ⅲ-12>                      縮 少 理 由

區 分	당 근	양 배 추	일 마 늘	平 均
① 가격하락으로 수익이 낮아	46.7	20	19.9	28.9
② 재배적지가 아니어서	—	—	6.7	2.2
③ 전망이 흐려서	—	13.3	26.7	13.3
④ 가격안정성이 없어서	53.3	76.7	46.7	58.9
計	100	100	100	100

(4) 過剩生産에 대한 態度

일마늘(마늘) 생산농가들은 과잉생산이 되더라도 이에 代替할만한 作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재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60%로서 조절의 견해는 희박했으며 당근, 양배추는 80~93%가 조절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조절의 실현성에는 문제가 없지않다. 왜냐하면 양배추 재배지역은 생산자조직으로서 作目班이 그나마 조직되어 있으나 당근재배지역(구좌읍 평대리)에는 하고 많은 作目班 하나 조직되어 있지않아 개별적인 조절의 뜻이 集團의으로 표현되는 즉 실질조절의 실현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表Ⅲ-13)

〈表 Ⅲ-13〉 과잉생산에 대한 태도 (단위: %)

區 分	당 근	양 배 추	앞 마 늘	平 均
① 조절할 생각이 있다	80	73.3	20	57.8
② 조절할 생각이 없다	—	20	60	26.7
③ 다른 사람이 하면 따른다	20	6.7	20	15.6
④ 모른다	—	—	—	—
計	100	100	100	100

(5) 販賣方法

濟州의 당근, 양배추, 잎마늘의 主販賣方法은 圃田販賣方法인데 당근은 93.3%로 거의 전부이며 양배추, 잎마늘은 60% 수준이다. 이와 같이 양배추, 잎마늘의 圃田販賣率이 낮은 것은 이지역은 오랫동안의 재배경력을 갖고 있어 그 나름의 流通處理에 대해 발전적인 적응력이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당근 93%가 產地蒐集商에게 양배추, 잎마늘은 產地委託商에 60%가 발매기로 거래되고 있다.<sup>19)</sup> 또한 양배추, 잎마늘은 上記 발매기 판매외에 수확시기에 販賣委託이 20%정도 追加되고 생산자의 直接 도시위탁상에의 出荷(個人出荷)는 20%로서 결국 產地委託商에의 의존은 80%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表 Ⅲ-14).

〈表 Ⅲ-14〉 販賣方法 (단위: %)

區 分	당 근	양 배 추	앞 마 늘	平 均
圃田賣買	93.3	60	64.3	72.5
直接出荷	6.7	40	35.7	27.5
計	100	100	100	100

註: 생산농가의 직접출하에는 소비자위탁상에의 직접 출하와 산지위탁상에의 판매를 포함하고 있는 것임.

19) ① 產地委託商; 靑果物生産 地域에서 商業的 基盤을 확고하게 잡은 상인들이다. 그들은 청과물 생산지에서 생산자로부터 委託받거나 혹은 자기가 직접 買取하여 蒐集하는 靑果物을 中繼市場(주로 도시 委託商)이나 產地蒐集商에게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전역에는 채소류, 감귤등을 취급하는 산지위탁상, 산지수집상이 800여명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② 產地蒐集商; 靑果物主產地를 순회하면서 自己 責任下에 청과물을 수집, 大量規模化하여 消費地의 도매시장에 반출하는 상인이다. 이들은 產地에 일정한 施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과물 생산시기에 생산지를 순회하며(주로 판매시기에 생산지에 온다.) 產地委託商이나 生産者로부터 직접 買集하여 中央都賣市場 또는 委託商에 판매한다. 자기계산하에 買集하기 때문에 상품지식이 풍부하고 作況을 원히 알고 있어 대부분 靑田去來=발매기를 하게 된다(당근은 거의 전부 이들에게 팔려지고 있다).

그런데 당근의 경우 圃田賣買에 의한 買集에는 產地蒐集商과 大都市委託商(서울, 부산, 대구 등지의 委託商)이<sup>20)</sup> 참여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를 보면 (평대리의 경우)5만~10만坪 50%, 1만~5만坪 40%, 10만坪 이상 10%로서 資本規模는 5억이상의 大商과 1~2억 商人등 15名内外가 평대리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大商인 경우는 現地駐在員과 차량을 파견하고 있으며 買集된 물량은 12월~4월까지 소비시장의 사정에 따라 탄력성 있게 조정, 출하하며 이중 30~40%를 저온 저장하였다가 단경기인 5월에 시장출하를 하고있다(低溫 倉庫는 대구등지에 집결되어 있음, 양파의 저온 창고에서 참고 할 것).

#### (6) 圃田販賣

農産物은 商品으로서의 性格(저장 성능이 낮은 점, 運搬性能의 저하성, 等級化, 規格化의 곤란성등 物理的 性格)의 特殊性과 生産構造의 特質(零細分散性, 生産量조정의 곤란성, 自然조건의 제약등) 및 消費構造의 特質(소비규모의 영세 분산성, 日常性 등)로 인하여 생산자가 직접 中繼市場에 出荷하는 것이 理想的인 方法이나 현실적으로는 제약성이 많다. 그 이유는 上記한 것과 併行하여 농가 市場活動에 경험이 적고 市場情報에 어둡고 출하에 따른 危險과 不確實性이<sup>21)</sup> 常存하기 때문에 中間商人을 거쳐서 판매하거나 생산자 조직인 產地農協, 任意出荷組織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流通上의 必要充分條件을 充足시켜주는 데는 무엇보다 農協에 의한 共同販賣가 가장 바람직하나 불행하게도 제주지역에는 아직까지(調査時點) 농협의 참여는 물론 任意組織도 없었다. 그럼에 따라 생산물은 생산자의 自己 責任下에 出荷하여야 하므로 바로 여기에 圃田賣買成立의 여건이 마련되고 만다 (圃田販賣는 여러가지 名이 있는 데 靑田去來, 圃田賣買, 발메기로도 불리워지며 종류로는 당근과 같이 生長期 靑田 매매가 있고 비닐채소나 일반 露地채소와 같이 收穫直前의 收穫期靑田 매매가 있다. 이것은 상인의 去來動機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前者가 投機的인 요소가 강하다. 이외에 收穫契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生育中인 作物에 대하여 얼마라는 예상가격을 정하고 수확시 독점적으로 자기에게 판다는 조건하에 약간의 전도금(=계약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서 만약 수확시기에 가격이 하락하면 아예 계약금을 포기하기도 한다. 어떻게 靑田賣買는 產地를 순회하며 다니는 產地仲買人, 投機業者, 產地 Broker 등이 사용하는 거래 방법으로서 산지가격형성은 상인의 부

20) 과거에는 蒐集商으로부터만 物量을 확보하는데 의존하여 왔으나 近間에는 직접 사전에 物量을 확보하여 出荷는 委託商下手人을 통하여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산지와외의 장거리 전화로 出荷物量 및 時期를 調節한다. 당근은 발메기 去來時 紹介한 仲買人(broker)이 수확, 출하의 下手人役을 맡고 있다.

21) E. O. Heady; 「現代農業經濟學」(川野重化監修譯), 1962, pp.594.

당한 조작의 결과 생산자에 불리하기 쉽다<sup>22)</sup>.

生産農家は 價格 및 販路의 위험과 不確實性으로 포전거래를 하게 되는데 營農費의 早期回收, 수확시 노동력완화(表Ⅲ-15), 小規模生産者의 流通活動의 어려움 완화등의 면에서 利点도 없지 않다. 反面 中間商人은 物量의 사전확보, 作況과 價格豫測의 自信 消費地委託商의 無利子 先渡資金活用, 需給不均衡時 不當利得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성립케 해주고 있는 것이다.

〈表 Ⅲ-15〉 販賣時期의 決定要因 (단위: %)

區 分	당 근	양 배 추	앞 마 날	平 均
① 현금수요	46.7	40	53.3	46.7
② 저장 장소부족	—	13.3	—	4.4
③ 노동력 부족	—	6.7	—	2.2
④ 가격변동	40	33.3	33.3	35.3
⑤ 상인의 권유	13.3	6.7	13.3	11.1
⑥ 기 타	—	—	—	—
計	100	100	100	100

圃田賣買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產地蒐集商이 취급하는 채소류의 제한성인데 일반적으로 運搬性能이 높고 적정량을 쉽게 集荷할 수 있으며 가격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것만 취급한다. (例 당근)

② 투기성이 농후하며 出荷價格上昇時 超過收益이 一方的으로 商人의 手中에 들어감으로써 農家受取價格의 上昇에 기여하지 못하고,

③ 商人은 出荷를 調整하므로써 供給不足時 價格상승을 더욱 加速化시키는 性向이 있으며,

④ 去來基準이 目測에만 依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市況全般에 관한 情報面에서 농가는 언제나 상인에게 뒤져 있기 때문에 不公正去來의 素地가 있다. 실제 김장무우의 경우 靑田賣買를 할 때 수확예상량에서 30% 內外로 공제한 量을 出荷量으로 보고 거래하고 있다.<sup>23)</sup> 제주지역의 경우도 이 범위내에 있으며 價格形成의 한 例를 보면 일단 坪當 1,000원에 買入할 것으로 契約이 성립되면 契約金을 지불한다. 얼마후 地域브로커 또는 상인이 찾아와 消費地時勢下落으로 살 수 없으니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하고 돌아간다. 이쯤 되면 생산농가는 價格이나 販路問題에 조바심이 앞서게 되는데 이무렵 다시 찾아와 700원 線이면 現金을 完拂하고 사겠다 하면 이러한 線에서 가격은 성립되고 이웃 농가에는 500線으로 팔았다고 하도록 약속을 한다.

22) ①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센터; 「農產物價格의 諸問題 및 安定對策」 1980, pp.7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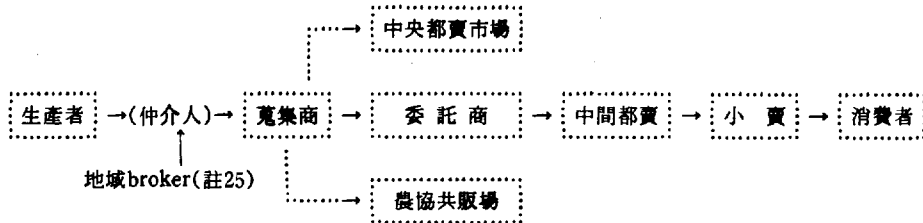
② 權元達; 農產物流通論 1982, p.262.

23) 大韓商工會議所 上揭書, p.80.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의 가격은 500線으로 落着되고 만다. 물론 商人들이 集荷競争이 없는 것은 아니나 地域單位로 활거되어 있어 상호간에 談合이 사전에 이루어져 第3者가 이 地域에 침투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생산농가는 앞서의 상인에 팔수 밖에 없는 소위 集荷寡占이 성립되고 만다.

⑤ 이상의 集荷過程의 準獨占性과 함께 都市委託商에의 出荷体系는 固定성과 폐쇄성이 支配하게 된다. 물론 새로운 蒐集商 특히 地域商人들이 新規參入이 가능하나 소비지에 出荷되었을 때 가격의 하락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여 결국 새로운 참여는 봉쇄되고 만다. 기존 蒐集商들은 위탁상(주로 대도시의 類似都賣市場內)과의 人的 結合이 강하여 수요정보, 先渡資金 등을 지원받는 結束의 system이 되어 있다. 폐쇄적 유통체계=포전매매에 의한 유통형태를 model化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24)</sup>



※ 中央都賣市場 등으로 入荷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類似都賣市場의 委託商과 의 進속거래 형태임.

〈表 Ⅲ-16〉 價格情報은 어디서 듣고 시세는 어떻게 아는가? (단위: %)

區 分	당 근	양 배 추	일 마 늘	平 均
① 상 인	66.7	53.3	73.3	64.4
② 이 유	33.3	33.3	26.7	31.1
③ 시장에나가	—	—	—	—
④ 메 스 킨	—	6.7	—	2.2
⑤ 산 지 농 형	—	6.7	—	2.2
計	100	100	100	100

- 24) 당근의 유통은 他作物에 비하여 出荷經路가 단순하여 小數商人에 의하여 物量流通이 좌우되고 (一 폐쇄적, 고정성— 集荷寡占性을 보임) 중간 도매 단계에서 세척, 재선별 포장 분산되기 때문에 市場造作, 追加마진의 소지가 높다. 開放的, 競争的 競賣는 찾아볼 수 없다).
- 25) 仲介人(商)은 居間(broker)이라고도 하며 商業知識에 밝아 市場情報機能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賣方과 買方중간에 介在하여 거래를 알선해 주고 주로 買方으로부터 一定한 口錢(brokerage)로 받는 機能中間商이다. 당근의 경우 소개료는 坪當 50원에서 300원을 수집상들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들은 收穫, 包裝등 出荷業務를 담당하여 都市商人의 下手人役割도 담당하고 있다.

⑥ 取扱物量擴大→商業利潤總額을 높이기 위하여 產地形成의 初期段階에는 生産擴大에 적극 노력하기도 하여 相互 補完關係가 성립되는듯 하기도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商業的 利潤追求의 結果이지 生産자 입장에서의 生産확대와는 다르다. 설사 生産확대가 이루어져도 가격하락시에는 참여하지 않음에서이다.

⑦ 商人에의 依存關係의 심화인데 다음 <表Ⅲ-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정보를 64.4%가 상인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狀況下에서 公正價格의 성립은 어렵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당근의 종자구입도 상인에 70%이상을 의존하고 있어 生産자들은 어떤 品種의 당근을 재배하고 있는지, 자기밭에서 당해년도에 실제 얼마 수확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表Ⅲ-17>.

<表 Ⅲ-17> 價格情報의 事前 청취여부 (단위: %)

區 分	당 근	양 배 추	잎 마 늘	平 均
① 사전에 꼭 알아본다	26.7	60	60	48.9
② 알아보는 경우가 더 많다	66.7	40	20	42.2
③ 알아보지 않는다	6.7	—	20	8.9
計	100	100	100	100

<表 Ⅲ-18> 圃田販賣에 대한 態度 (단위: %)

區 分	당 근	양 배 추	잎 마 늘	平 均
① 계속하겠다	6.7	20	46.7	24.5
② 하지 않을 계획이다	26.7	26.7	33.3	28.9
③ 두고 보아 결정하겠다	66.7	53.3	20	46.7
計	100	100	100	100

한편 圃田販賣에 대한 生産者의 態度를 보면(表Ⅲ-18) 두고 보아 결정하겠다가 46.7%로서 두고 보아 달리 販賣方法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그나마 圃田去來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의 태도인 듯하다. 또한 계속하겠다고도 24.5%로 나타나고 있는데 早期資金의 必要, 노동력 부족문제와 복합되어 미래의 不確實性을 감안 적당한 수준이면 어떻든 팔겠다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현행판매 방법에 대해서는 77.8%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表Ⅲ-19) 生産자들과의 對話과정에서 流通의 合理化를 한결같이 이야기 하고 있음을 볼때 하루속히 產地의 大型化에 相應하는 生産者組織이 育成強化 되어 marketing 計劃下에 販賣戰略이 세워





또한 流通 margin率 (Percentage margin)이란 각 단계별 금액 마진의 該當段階 販賣價格에 대한 比率를 말하며 각 단계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8)</sup>

$$\text{蒐集段階 마아진率 } (M_s) = \frac{(P_A - P_F)}{P_A} \times 100 = \frac{M_A}{P_A} \times 100$$

$$\text{都賣段階 마아진率 } (M_w) = \frac{(P_w - P_A)}{P_w} \times 100 = \frac{M_w}{P_w} \times 100$$

$$\text{小賣段階 마아진率 } (M_r) = \frac{(P_r - P_w)}{P_r} \times 100 = \frac{M_r}{P_r} \times 100$$

$$\text{總 마아진率 } (M_t) = \frac{(P_r - P_F)}{P_r} \times 100 = \frac{M_t}{P_r}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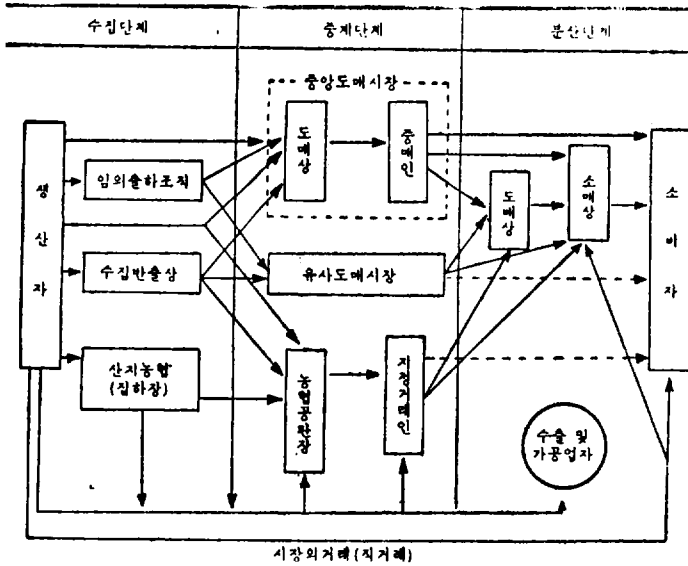
마아진率は 언제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따라 事例調査의 마아진이 계산되었음)

(2) 流通經路

농산물은 생산과 소비의 영세 분산성등 여러가지 영향을 아직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多數의 商人이 介在된 多段階 마아진型的 유통구조를 보여 주는데 靑果物 生産者와 消費者間的 流通經路는 다음과 (圖 III-8) 같다.<sup>29)</sup>

<圖 III-8> 靑果物市場의 流通經路



上記(圖 III-8)에서 보는 바와같이 主要經路는 다음 세가지 形態이며 現行農產物 流通制度下에서는 실제 어느하나를 거쳐야 하는데 유통과정에서 누가 需給調節機能을 主導하느냐에 따라

28) 農協中央會 調査部; 「주요농산물의 유통경로 및 마아진조사」 1979,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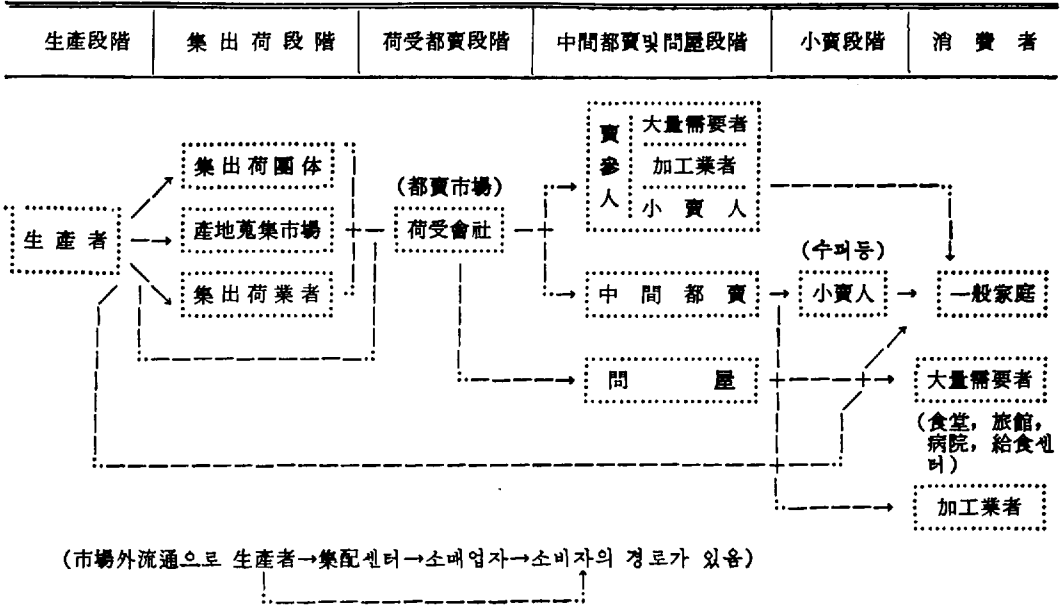
29) 權元達; 前掲書, p.265.

달라진다. 제주지역의 당근, 양파, 양배추, 잎마늘 등은 ②의 形態가 支配的이다.

- ① 생산자→(개인 또는 임의출하조직)→중앙도매시장→도매상→(소매상)→소비자
- ② 생산자→(산지수집, 반출상)→유사도매시장→(도매상)→소매상→소비자
- ③ 생산자→(산지농협, 집하장)→농협공판장→도매상→(소매상)→소비자.

참고로 日本의 青果物 流通經路를 보면 다음과 같다(圖Ⅲ-9).

〈圖Ⅲ-9〉 菜蔬의 流通經路



農林水産省：園藝統計 1980에서 引用.

(3) 濟州地域의 당근, 양배추, 잎마늘의 流通마아진 調査

商品別 流通費用과 마아진을 測定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다음과 같이 두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事例調査에 의한 方法인데 이것은 流通經路別로 生産者에서 消費者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추적조사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長點은 流通費用의 構成을 要素別로 파악하기 쉬운 점이며 단點으로는 일반성의 결여이다.

둘째는 段階別 價格水準에 의한 方法인데 농가 판매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을 비교하여 마아진을 計算하는 것으로서 前提가 되는 것은 流通段階別 價格資料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長點은 費用과 마아진에 대한 일반성을 가지나 단點은 마아진의 구성요소별 파악이 곤란하

〈表 III-20〉  
〈蒐集商經由出荷〉

당 근 流通 마 진(제주→서울)

單位: 원/kg

區 分	價 格	마 진(額)	流通마진 構 成 比	小賣價格 構 成 比	
農 家 受 取 價 格	152.2	—	—	33.8	
蒐集 및 中繼 段階 (蒐集商)	收穫, 運搬, 包裝, 上車費	—	22	7.4	4.9
	材 料 費	—	4.4	1.5	1.0
	輸 送 費	—	36	12.1	8
	下 車 費	—	1.6	0.5	0.4
	諸 雜 費	—	10	3.4	2.2
	減 耗	—	22.1	7.4	4.9
	利 益	—	27.7	9.3	6.2
	手 數 料 計	—	24	8.1	5.3
		(147.8)	(49.6)	(32.8)	
委 託 商 價 格	300	—	—	66.7	
都 賣 段階	洗 滌 費	—	5	1.7	1.1
	滌 掃 費	—	1	0.3	0.2
	利 益	—	44	14.8	9.8
	小 計	—	(50)	(16.8)	(11.1)
都 賣 價 格	350	—	—	77.8	
小 賣 段階	物 的 經 費	—	5	(1.7)	1.1
	利 益	—	95	31.9	21.1
	小 計	—	(100)	(33.6)	(22.2)
小 賣 價 格	450	—	—	100.0	
流 通 마 진 合 計	—	297.8	100.0	66.2	
農 家 受 取 價 格	152.2	—	—	33.8	
流 通 마 진	直 接 經 費	—	85	28.5	18.9
	中 間 利 益	—	190.7	64.0	42.4
	減 耗	—	22.1	7.5	4.9
	小 計	—	(297.8)	(100.0)	(66.2)
消 費 者 價 格	450	—	—	100.0	

註: ① 調査日: 1982. 2. 22.

② 小賣段階의 減耗는 파악하지 못했음. 그러므로 감모량이 과소평가 되어 있음.

③ 수송비는 평대리→제주시→(목포경유)→서울의 비용임.

④ 계잡비에는 産地의 소개료가 포함되어 있음.

〈表 Ⅲ-21〉  
〈蒐集商經由出荷〉

양배추 流通마진(제주→서울)

單位：포기(2.5kg)/원

區 分		價 格	마 진(額)	流通마진 構 成 比	小賣價格 構 成 比
農 家 受 取 價 格		152	—	—	22.8
蒐 集 及 中 繼 段 階	收 穫, 運 搬, 包 裝, 上 車 費	—	40	7.6	6.0
	材 料 費	—	15.5	3	2.3
	輸 送 費	—	119.6	23.2	17.9
	下 車 費	—	6.3	1.2	0.9
	諸 雜 費	—	8	1.6	1.2
	減 利 耗 料	—	22.5	4.4	3.4
	手 數 料 益 計	—	36	7.0	5.4
小 計	—	37.6	7.3	5.6	
			(285.5)	(55.3)	(42.7)
委 託 商 價 格		437.5	—	—	65.5
都 賣 段 階	直 接 經 費	—	9.4	1.8	1.4
	減 利 耗	—	18	3.5	2.7
	小 計	—	21.9	4.2	3.3
	益 計	—	(49.3)	(9.6)	(7.3)
都 賣 價 格		478.8	—	—	72.9
小 賣 段 階	直 接 經 費	—	15.6	3.0	2.3
	減 利 耗	—	25	4.8	3.7
	小 計	—	140.6	27.2	21.1
	益 計	—	(181.2)	(35.1)	(27.1)
小 賣 價 格		668	—	—	100.0
流 通  마 진 合 計		—	516	100.0	77.2
農 家 受 取 價 格		152	—	—	22.8
流 通  마 진	直 接 經 費	—	214.4	41.6	32.1
	中 間 利 益	—	236.1	45.8	35.3
	減 利 耗	—	65.5	12.7	9.8
	小 計	—	(516)	(100.0)	(77.2)
消 費 者 價 格		668	—	—	100.0

註：① 調査日：1982. 2. 22.

② 수송비는 광지리→제주시, 제주시→(목포경유)→서울의 비용임

〈表 Ⅲ-22〉  
〈蒐集商經由出荷〉

임마늘 流通마진(제주→서울)

單位：단(2kg)/원

區 分	價 格	마 진(額)	流通마진 構 成 比	小賣價格 構 成 比	
農 家 受 取 價 格	742	—	—	46.4	
蒐 集 및 中 繼 段 階	收穫, 運搬, 包裝, 上車費	—	100	11.7	6.3
	材 料 費	—	10.3	1.2	0.6
	輸 送 費	—	75	8.7	4.7
	下 車 費	—	3.1	0.4	0.2
	諸 雜 費	—	10	1.2	0.6
	減 耗 數	—	46.7	5.4	2.9
	利 益 小 計	—	116.9	13.6	7.3
委 託 商 價 格	1,200	—	—	—	
都 賣 段 階	直 接 經 費	—	20	2.3	1.3
	利 益 小 計	—	80	9.3	5
	小 計	—	(100)	(11.7)	(6.3)
都 賣 價 格	1,300	—	—	—	
小 賣 段 階	直 接 經 費	—	50	5.8	3.1
	利 益 小 計	—	250	29.1	15.6
	小 計	—	(300)	(35.0)	(18.8)
小 賣 價 格	1,600	—	—	100.0	
流 通 小 賣 合 計	—	858	100.0	53.6	
農 家 受 取 價 格	742	—	—	46.4	
流 通 마 진	直 接 經 費	—	268.4	31.3	16.8
	中 間 利 益	—	542.9	63.3	33.9
	減 耗 小 計	—	46.7	5.4	29.2
	小 計	—	(858)	(100.0)	(53.6)
消 費 者 價 格	1,600	—	—	100.0	

註：① 調査日：1982. 2. 22.

② 小賣段階의 減耗는 파악하지 못했음. 그러므로 감모량이 과소평가 되어 있음.

③ 수송비는 애월리→제주시, 제주시→(목포경유)→서울의 비용임.

다.<sup>30)</sup>

이상과 같이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모든 방법이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

30) 成培永；農水産物 流通經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1, p.125. 農協中央會調査部； 주요농산물  
의 유통경로 및 마진 조사보고 1979, p.17.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첫째의 방법—事例調査의 方法을 택하여 유통비용 및 마아진을 농가단계로부터 소매단계(서울)까지 유통사례의 추적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우선 밝혀들 것은 도매단계, 소매단계는 서울의 용산청과물시장內의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도매비용 및 마아진, 소매비용 및 마아진이 일반 既存의 事例와 차이가 있다 (본 조사는 도매시장에 集荷되기까지의 수집, 반출단계를 中心으로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農家受取價格은 委託商에서 都賣商으로 分散되는 순간 결정되어지므로 그 이후의 도매→소매과정은 생산자로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된다).

또한 費用은 物的 流通過程에서 나타나는 直接費用(比例性 費用) 즉 수송비, 직접 인건비, 포장비, 수수료, 上下車費가 主要項目이 된다. 그런데 濟州地域인 경우는 收穫過程의 費用이 더 追加되었다(圃田去來로 이미 生産者의 손을 떠나 있어 수확과정의 비용도 유통비용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점포유지관리비, 간접 인건비, 자본이자, 소득세, 감가상각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費用을 파악하려면 별도의 都賣經費, 小賣經費調査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減耗는 流通過程中の 流失量, 廢棄量 및 品質低下에 따른 가격하락도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調査가 미흡되었다.

다음과 같이 당근, 양배추, 잎마늘의 流通마아진 明細表를 보기로 한다(表Ⅲ—20, Ⅲ—21, Ⅲ—22)

〈表 Ⅲ—23〉 主要菜蔬類流通 마아진 比較 單位：%

經路別	品 目	總마아진率	段階別마아진 構成比			要素別마아진 構成費			調 查 事 例		備 考
			수집계	도매	소매	직접비	중간이익	減耗	時 期	產 地	
商人經路	고냉지무우	88	37	9	54	43	27	30	79. 7. 25	평창→서울	소매가격개당(1.9kg)122원수준
	고냉지배추	78	35	11	54	39	27	34	71. 7. 25	평창→서울	소매가격 포기(3.7kg)당 25원
農協經路	고냉지무우	59	21	10	69	21	45	34	79. 9. 5	평창→서울	소매가격 1.7kg당 350원
	고냉지배추	54	21	12	67	21	44	35	79. 9. 5	〃	소매가격 포기당 650원
商人經路	마늘	40	26	26	38	34	65	1	79. 7. 20	당진→서울	소매가격 접당 2,000원
	양파	75	54	14	32	62	33	5	79. 6. 4	무안→서울	소매가격 20kg당 1,370원
農協經路	양파	75	44	16	40	61	34	5	79. 6. 4	〃	소매가격 20kg당 2,050원
商人經路	당근	78	40	12	48	30	55	15	79. 2. 12	제주→서울	소매가격관당 673원
	당근	42	27	16	57	15	59	26	79. 5. 31	부산→서울	소매가격 관당 1,450원
商人經路	당근	66	49	17	34	29	64	7	82. 2. 22	제주→서울	소매가격 1kg당 450원
	양배추	77	45	10	35	43	46	13	82. 2. 22	제주→서울	소매가격포기(2.5kg)당 668원
	잎마늘	54	53	12	35	31	63	5	82. 2. 22	제주→서울	소매가격 단(2kg)당 1,600원

(4) 당근, 양배추, 잎마늘의 流通마아진에 대한 검토

일반적으로 農産物의 流通마아진은 농산물의 종류, 조사시기와 조사자, 장소 및 유통경로에 따라서 相異하나 靑果物의 경우에는 30~70%, 畜産物의 경우는 10~20%의 margin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調査되고 있지만 品目別로 나누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表Ⅲ-23).

上記(表Ⅲ-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서울의 流通마아진 蒐集 中繼段階마아진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船舶輸送料 및 收穫에 따른 人件費가 追加되기 때문이다. 또한 농협이 '79年 제주→서울간에 調査한 당근의 農家受取價格率은 22% (流通마아진 78%)인데 비하여 釜山에서 서울에 출하한 당근의 農家受取價格率은 58%로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당근의 상기 22%에 비하여 필자가 조사한 82년 2월 22일의 사례조사에서는 農家受取價格率이 34%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比較時点이 다르지만 생산자에 약간 有利한 것으로 보여진다.

양배추의 事例調査에서 農家受取價格率이 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은 調査時点의 도매, 소매 가격이 낮은 수준에 있었고 생산지의 作況이 좋지 않았던 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한국, 일본, 대만과의 流通마아진을 비교 해보면(表Ⅲ-24) 양배추는 우연히도 비슷한

〈表 Ⅲ-24〉 한국, 일본, 대만의 流通마아진比較 單位: %

區	分	農家受取率	流通總마아진	蒐集 및 中繼段階	
				大賣마아진	小賣마아진
양 배 추	한 국	22.8	77.2	42.7	27.1
	日 本 { 東 京 市 場 大 阪 市 場	22.3	77.7	39.3	38.4
		8.5	91.5	44.4	41.3
양 파	한 국	25	75	54	32
	日 本 { 東 京 市 場 大 阪 市 場	16.2	83.8	33.8	50
		22.6	77.4	42.0	24.7
무 우	한 국	17	83	80	20
	日 本 { 東 京 市 場 大 阪 市 場	34.8	65.2	22.4	42.8
		48.5	51.5	27.2	19.3
배 추	한 국	21	79	79	21
	日 本 { 東 京 市 場 大 阪 市 場	52.3	47.7	19.9	27.8
		31.7	68.3	24.7	36.5
채 소 류	대 만	59.5	40.5	14.0	30.8

註: ① 양배추: 事例調査 82. 2. 제주→서울

② 양 파: 농협중앙회, 주요농산물의 유통경로 및 마아진 조사보고, 1979(김장무우, 김장배추 상인경로)

③ 무 우: " "

④ 배 추: " "

⑤ 日 本: 農林水産省 1979. 11. 調査. 수집 및 중계단비용에는 出荷費用에 手數料가 +된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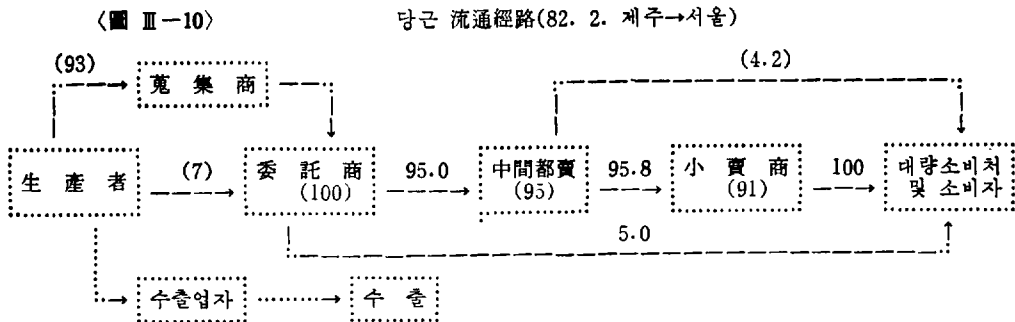
⑥ 大 韓: 權元達; 농산물 유통론에서 인용.

農家受取價格率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파는 한국이 높게, 무우, 배추는 日本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전체 菜蔬類 農家受取價格率이 한국, 일본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蒐集段階의 搬出商 마아진 및 갑모량이 낮은데서 비롯되는 것이며 전반적인 流通體系가 能率化되어 있기도 하다.

(5) 流通經路의 특징

일반적인 流通經路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濟州地域의 당근, 양배추, 잎마늘 등 圃田去來의 대상이 되는 品目の 流通體系는 蒐集搬出上의 談合에 의한 集荷 과정적인 성격과 함께 도매시장에서의 分散體系에 있어서도 相對去來形式으로 一貫돼 있다. 즉 일반 생산농산물은 도매시장에서의 價格形成이 公開競買에 의하지만 위탁상과 중간 도매상간에 相對去來를 하고 있어 상호간의 談合에서 不公正去來가 성립될 수 있는 요인을 內包하고 있다.

어떻든 流通體系의 특징은 集荷段階 및 分散段階에서 共히 固定的, 閉鎖的 市場構造를 형성하는데 있다. 당근을 중심으로 한 flow를 보면 다음(圖Ⅲ-10)와 같다.<sup>31)</sup>



- 註: ① ( )內 數値는 全流通量比 즉 각 유통단계별 占有物量比率임.  
 ② 유통경로상의 수치는 각 유통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분산되는 물량비임.  
 ③ 委託商以後의 分配過程 및 數値는 農漁村開發公社; 農産物의 流通實態와 當面課題에서 참고한 것임.

5. 產地組織과 Marketing計劃

商品生産者로서의 個別經營이 存立되기 위해서는 生産物이 市場에서 販賣되어 再生産을 維持할 수 있을 만큼의 價格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즉 販賣가 끝나지 않으면 生産이 完結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販賣過程의 活動은 生産活動과 똑같이 重視되어야 만한다(농업생산과

31) 서울에서 去來되는 全体物量의 70~80%가 용산 類似 郊賣市場의 委託商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中間都賣商은 委託商으로부터 구입하여 1979년부터는 洗滌機를 導入 여기에서 洗滌한 후 再包裝되어 分散販賣되고 있다.



정은 여러가지 生産財貨를 結合하여 새로운 財貨를 만들어 내는 物的 過程—技術的 過程과 價値를 희생하여 새로운 價値를 實現하는 價値的 過程—經濟的 過程이 있다.<sup>32)</sup> 그러므로 經濟的 過程으로서의 최종적 가치실현은 販賣를 통하여 달성될 수 밖에 없는데 生産자들은 後者의 과정을 거의 등한시 한다). 특히 菜蔬는 거의 完全競爭市場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販賣活動의 여하는 經營成果를 支配한다.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露地菜蔬는 生産, 消費가 극히 零細한 것을 특징으로 하여 生産技術特性, 商品的 特性에서 價格變動이 극심하다. 그래서 生産자는 언제나 不安定한 經營이 되기 쉽다.<sup>33)</sup> 價格變動은 露地菜蔬가 대부분 價格彈性值가 1이하라는 점에서 價格의 하락은 直接 收益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生産자는 불리하게 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生産者는 市場對應에 보다 적극적,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生産者의 市場對應이란 生産자가 再生産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타당한, 또 안정된 價格을 얻기 위해 市場 mechanism을 전제로 한 生産자의 生産과 판매활동의 体系이다. 즉 生産자가 市場의 價格形成 mechanism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판매수량의 조정에 의해 價格을 意識的, 計劃的으로 創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主產地化와 販賣主體의 확립을 전제로 하는 集團的 對應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生産, 販賣計劃과 生産統制에 있다. 이의 실현에는 販賣主體의 組織化가 전제됨은 물론이다.

周知되는 바와같이 濟州의 暖地菜蔬는 遠隔產地로서의 輸送農業에 그 특징이 있다. 產地形成에 따른 販賣戰略이 서 있지 않으면 地域內 消費로서는 限定되어 있어 조금만 과잉되어도 가격은 폭락하고 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生産에 못지 않게 어떻게 팔 것인가라는 販賣計劃도 더욱 중요한 것이다. 사실 아무리 生産이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리지 않으면 農家所得을 높이지 못한다. 즉 增産은 농가소득향상의 必要條件은 될 수 있어도 充分條件은 되지 못한다. 그것은 流通過程에서 利潤이 실현되기도, 소멸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濟州의 菜蔬농업은 이제 단순한 產地形成이 아니라 產地組織이라는 관점에서 生産一出荷의 計劃的인 노력이 있어야 할 단계이다. 우선 產地의 주요한 要件부터 살펴 보면서 몇 가지 방향점을 정립해 보기로 한다.

產地의 重要한 要件은 첫째 需要에 적합한 生産으로서, 즉 生産을 消費에서 출발하는 마아

32) 磯邊秀俊; 前掲書, p. 26.

33) 露地菜蔬價格變動의 市場 mechanism을 이해하는 데는 「거미집 定理(cobweb theorem)」가 있다. 이것은 生産의 零細性和 生産物의 同質性에 따른 市場의 純粹競爭 市場構造를 전제로 하여  
 ① 固定資本 節約, 勞動多投의 生産技術의 性格 및 1年性 作物이라는 점에서 供給彈性性이 크고  
 ② 商品的 性格으로서의 輸送性, 貯藏性이 낮고 新鮮性에의 요구는 期間內의 供給彈性性을 작게 한다. ③ 需要의 必需的 性格과 小賣margin은 需要의 價格彈性性을 작게 한다. ...이러한 노지 채소의 특성은 作付面積과 價格의 2年周期의 거미집 Cycle을 발생시켜, 이 Cycle을 發散케 한다. 永木正和; 野菜의 價格と 市場對應 1977, p. 53.

케팅 戰略이 있어야 하며, 둘째 적정한 價格과 安定的 實現이고 세계 消費와 生産의 調整인 것이다. 이것들은 生産, 流通体制 즉 產地組織의 構築인 것으로서 산지조직의 주요한 기능은 生産과 출하의 調整에 있다.<sup>34)</sup>

그러므로 우리는 여하히 產地 組織을 형성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 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要件들이 만족되어야만 한다.

### (1) 生産体制 整備對策

販賣志向이란 戰略에서 需要에 적합한 計劃生産을 확립하기 위하여 地方自治體, 農協 指導機關 등의 結合的(integrated) 노력이 요구되는데 실현되어야 할 사항들을 들어보면

- ① 全國의인 視野에서 조정, 계획, 生産을 지도한다.
- ② 品目別 用途別에 따라 主産地의 조성, 育成을 기한다.
- ③ 基幹作目과 補完作目的 組合으로 周年 栽培体系를 수립한다. 계주의 당근, 양파, 마늘, 양배추 등은 1年 1작이 支配的이어서 윤작체계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 ④ 生産기반을 정비하여 生産시설의 대형화, 기계화, 共同化를 촉진하고 省力栽培体系의 확립이다.
- ⑤ 生産기술의 개선 향상과 標準化
- ⑥ 生産組織인 作目班을 「生産단위 $\longleftrightarrow$ 出荷單位」로 育成 강화 시킨다.

### (2) 販賣對策

都賣市場은 大量, 多品目, 繼續, 迅速의 出하를 바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통체계의 확립이 있어야 하는데 當근등의 小數商人에 의한 集荷寡占, 固定的, 閉鎖的인 市場体系를 公開的 競爭的인 体系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農協이 參與함은 물론 生産농가의 任意組織을 우선 育成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產地 全体로서의 販賣純收益의 最大化를 目標로 하는 生産, 판매계획이 책정되어야 한다. 物的 流通施設로는 애월, 한림, 성산 등의 항구 중심에 集荷 Center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 (3) 商品計劃

① 規格生産은 우선 品種을 통일하여 品質의 改善과 均一化, 出荷規格의 簡素化이다. 특히 이문제는 輸出增大問題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規格生産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까지의 전망은 희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② 加工用 原料는 판로의 개척과 契約栽培에 의해 계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生産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34) 小野誠志; 野菜作經營の展開, 1932, pp.175~76.

(4) 包裝計劃

包裝에는 商品包裝과 輸送包裝등이 있는데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流通하는 과정에 品質을 유지하고 中間業者의 商品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① 規格, 資材를 통일, 개선하여 상품성의 향상과 간소화를 기한다.

② 포장자재는 상품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제주 는 소비시장에서 遠隔地에 있기 때문에 또한 海上輸送이 追加되므로 포장방법, 자재등 다각적 인 검토가 요한다. 현 당근의 경우는 용산청과물시장에서 中間都賣商이 洗滌機를 갖추어 세척 한후 再包裝 分配하고 있는데 이를 생산지에서 세척, 포장하여 수퍼마켓 등에 直送하는 방법등 이 검토되어야만 한다. 현재의 輸送包裝 방법도 개선되어 상품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

(5) 種苗의 調達과 配布計劃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량품종을 선정하여 統一되어야 하는데 현재 種子의 공급(당근) 은 상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6) 輸送對策

제주의 輸送農業의 發展問題는 사실 輸送對策에 있다 해도 過言은 아니다.<sup>35)</sup>

流通마아진중 輸送費는 당근 12.1% 양배추 23.2% 잎마늘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양 배추가 높은 것은 海上輸送에서 重量%이 아닌 容積%에 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輸送費는 일정한데 調查時点(82. 2)의 양배추 가격이 낮은 수준이 있다는 점에서 커진 것이다.<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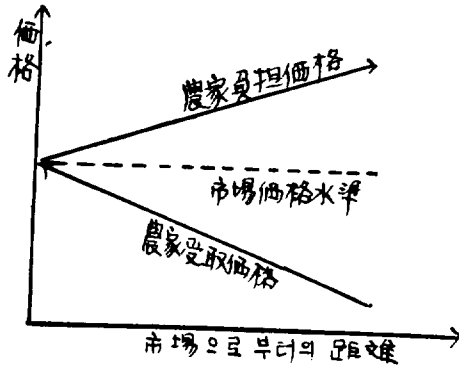
海上 輸送費의 追加負擔(陸地部에서는 해상수송비가 있을 수 없다)을 다음(表Ⅲ-25)에서 보 면 輸送費中 濟州生産農家만이 追加負擔하는 海上輸送費는 당근(1kg)15원, 양배추(1포기)75원, 잎마늘(2kg)37.2원이 되고 있다. 이것을 總마인진 구성상의 비중은 각각 5%, 14.5%(比價 Specific Value가 相對的으로 낮다) 4.3%인데 이것을 農家受取價格과 直接關係되는 市場價

35) 輸送은 場所의 効用을 창조하는 마아켓팅 기능으로서 생산과 소비간의 장소적 격리를 조절해 주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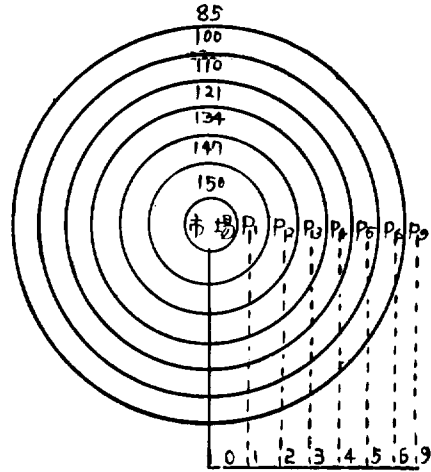
36) 輸送費가 다만 輸送距離와 重量 또는 容積에 比例하여 결정된다면 市場距離가 멀어짐에 따라 農家受價格이 低下하는 경우는 生産物의 重量 또는 容積單位 및 市場價格 즉 (市場價格 ÷ 重量 또는 容積)의 高低에 좌우된다. 이것을 比價(Specific Value)라 하는데 一般的으로 比價가 낮은 농산물은 輸送性能이 낮은 농산물이며(都市近郊에 立地) 比價가 높은 것은 輸送性能이 높은 농산물이다. 물론 輸送性能은 단순한 比價뿐만 아니라 保存性등도 관계된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輸送農業은 比價가 높은 농산물이 立地할 때 더욱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磯邊秀俊; 前掲書, pp. 130~131.



<圖 III-11> 農家の 受取價格



<圖 III-12> 市場과의 距離별 포도의 농가수취가격(관당)



자 료: 농촌진흥청; 「포도주산지 農家와 市場과의 距離(km)에 관한연구」

볼 수 있다(선박 수송 原價중 船內荷役費와 沿岸荷役費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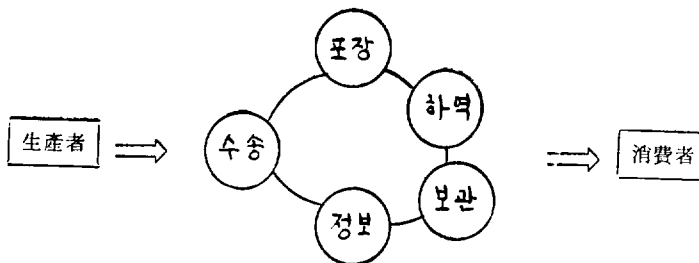
① 신속한 하역작업이나 低原價의 荷役作業을 하기 위해서는 貨物의 flow를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서 하역작업의 신속화와 단순화, 표준화가 실현되고 하역작업이 합리화 될 수 있다.

② 人力荷役に 의한 하역작업을 代替하고 機械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物的 流通「시스템」의 觀點에서 하역부문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를 일관한 物的 流通 system으로 하여 하역작업을 分析해야 한다(圖 III-13)

④ 양배추, 마늘의 主產地인 西部圈은 애월항, 한림항을 農산물 수송거점으로 당근등의 主産

<圖 III-13> 物的流通活動과 荷役活動과의 관계



38) 林浩奎;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韓國開發研究院 1980, pp.89~90.

地인 東部圈은 成山항을 中心으로 園藝作物 수송 center가 建設되어 수송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만 될것이다.

(7) 流通施設의 擴充強化

현재 제주지역의 流通施設은 뚜렷한 것이 없는데 產地擴大에 相應하는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大量出荷와 規格統一, 計劃出荷를 실현하는데 不可欠한 분야이다.

(8) 價格安定對策

① 需要에 적합한 計劃生産은 供給의 基本인 것으로서 供給의 全面的 管理体制와 種苗의 共同購入을 실시하여 自己調整의 生産體制를 확립한다.

② 우선 適量生産과 出荷管理의 강화와 함께 生産자, 행정, 농협 등이 一體가 되어 가격안정 에, 나아가서는 가격폭락등에 대비한 補償方式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價格安定과 計劃生産

產地가 計劃出荷를 하기 위해서는 計劃生産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作付는 個別經營의 판단 에 의하자면 產地組織이 (產地組織을 前提로 한다) 精確한 市場情報 產地情報를 生産자에 전달 하여 個別生産者의 作付計劃을 조정하는 기능을 다하게 된다면 產地로서의 計劃生産, 計劃出荷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農산물에 대한 諸情報 특히 全國의인 안목에서 產地情報의 파악, 전달체계가 미흡하다.

計劃生産, 計劃出荷의 調整순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기로 한다.

- ① 出荷指定 市場의 適正需要量<sup>39)</sup> 파악  
↓  
產地組織에 依한 產地生産計劃의 基本案 策定
- ② 生産者에게 市場, 產地 情報의 제공  
↓  
農家別 作付計劃과 經營目標의 策定
- ③ 產地組織이 農家別 計劃을 集計  
↓  
農家別 計劃이 적정성 여부를 個別的으로 검토
- ④ 산지조직의 生産계획과 個別 農家計劃의 調整  
↓  
農家計劃決定  
↓  
產地組織의 計劃決定

39) 都賣市場의 적정 수요량이란 도매시장에서 실현되는 都賣價格이 經營의 再生産에 요하는 適正價格 이 되고 또한 消費者로서는 적정한 消費支出水準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 ⑤ 產地組織에 의한 生産, 出荷資材의 調達, 供給
- ⑥ 生産技術의 濃密指導
- ⑦ 市場指定, 分荷計劃

가격안정을 實現할 수 있는 產地組織은 下位組織인 農家로부터 上位組織까지 一貫된 上記의 活動이 달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 IV 日本의 菜蔬實情

### 1. 農業生産의 變化

다음 (表Ⅳ-1)은 作目別로 농업생산의 변화를 본 것이다. 쌀은 1960年 900億 産業(農業總生産額의 47.4%)에서 1980년에는 3兆円 産業(農業總產出額의 30%)으로 성장했지만 이것은 價格上昇에 의한 名目的인 成長인 것이다. 數量面에서 본 成長作目은 生産指數의 伸張率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畜産(브로일러, 養豚, 酪農) 花卉園藝이다. 이들은 65년부터 80년의 15年間에 생산지수가 2배이상 증가되었다. 다음은 果實과 양계이며 반대현상을 보인 것은 穀物과 蠶蚕으로서 成長水準이 저하되었다. 即 양잠은 60年の 56%에서 80년에는 33%로 쌀은 47%에서 30%로 저하한 것이다.<sup>40)</sup>

이상과 같이 축산, 채소류, 과실이 主導되어 增加되었으며 근래에 와서는 쌀을 위시하여 供給過剩 내지 需給緩和基調에 있다. 즉 쌀은 1978년부터 水田利用 再編對策이 실시되어 쌀생산은 억제되고 麥類, 大豆, 飼料作物 등이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65年代까지 成長해온 축산, 과채류 등의 施設型農業이 65年代 후반에 와서는 1次 石油危機를 계기로 하여 物價高와 경기 후퇴에 따라 食料需要伸張이 둔화되어 경제현상을 보이고 있다. 生産과잉에 있는 品目은 쌀을 비롯하여 감귤 채소류의 일부, 生乳으로서 生産調整이 실시되고 있다.

### 2. 菜蔬의 供給構造

國內 生産量은 60년부터 79년에 걸쳐 1.4배가 증가하고 있는데 (表Ⅳ-2) 이것은 農業基本法(구체적으로는 農業構造改善事業), 「野菜生産出荷 安定法」(指定產地制度)및 1, 2次에 걸친 水田의 轉作化 즉 水田利用編에 따라 菜蔬栽培面積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특히 水田利用 面積에 따른 채소류 재배면적의 확대는 79年 현재 生産량 1,600만톤 수준까지 끌어올려 일부 과잉

40) 叶 芳和; 農業先進國型産業論, 1982, pp.188~190.

〈表 IV-1〉

작目別農業生産額의推移와 構成比

(100億圓, %)

	1960	65	70	75	80	生産指數伸張 率 (55/40)	point (55/35)
農業總產出額	1,915(100.0)	3,177(100.0)	4,664(100.0)	9,051(100.0)	10,196(100.0)	117.1	—
耕種計	1,542(80.5)	2,416(76.1)	3,421(73.4)	6,502(71.8)	6,918(67.8)	96.3	▲12.7
米	907(47.4)	1,369(43.1)	1,766(37.9)	3,466(38.3)	3,062(30.0)	79.9	▲17.4
麥類	106(5.5)	94(3.0)	48(1.0)	57(0.6)	170(1.7)	44.0	▲3.8
雜穀·豆類	60(3.1)	58(1.8)	58(1.2)	77(0.9)	104(1.0)	*23.0	▲2.0
감자類	58(3.0)	79(2.5)	78(1.7)	128(1.4)	219(2.2)	62.9	▲0.8
野菜	174(9.1)	374(11.8)	740(15.9)	1,467(16.2)	1,781(17.5)	130.9	8.4
果實	115(6.0)	210(6.6)	396(8.5)	646(7.1)	740(7.3)	175.0	1.3
花卉	8(0.5)	19(0.6)	43(0.9)	79(0.9)	174(1.7)	(55/45)234.9	1.2
工藝農作物	82(4.3)	153(4.8)	204(4.4)	389(4.3)	519(5.1)	90.6	0.8
養蠶	56(2.9)	73(2.3)	126(2.7)	146(1.6)	156(1.5)	69.6	▲1.4
畜產計	291(15.2)	663(20.9)	1,084(23.2)	2,340(25.9)	3,046(29.9)	207.6	14.7
乳用牛	64(3.3)	146(4.6)	283(6.1)	566(6.3)	809(7.9)	*190.3	4.6
肉用牛	38(2.0)	75(2.4)	97(2.1)	247(2.7)	368(3.6)	138.0	1.6
養豚	56(2.9)	141(4.4)	254(5.4)	733(8.1)	843(8.3)	269.0	5.4
鷄	121(6.3)	276(8.7)	414(8.9)	747(8.3)	954(9.4)	*291.0	3.1
鷄卵	106(5.6)	227(7.1)	306(6.6)	478(5.3)	564(5.5)	170.1	▲0.1

(資料) 農水省『生産農業所得統計』, 生産指數는同『ボケント農林水産統計』, 1982年版.

註: 內는構成比. \*印은筆者推計. 叶芳和: 農業先進國型産業論. 1982, p189에서인용.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sup>41)</sup>

재배면적은 72年 이후 76년까지는 감소경향이 있었지만 78年 이후는 微増狀態에 있으나 대략 60만ha 水準에서 推移하고 있다(이중 指定 채소 13品目の 作付面積이 60%를 차지하고 있음).

品目別로 보면 根菜類, 葉莖菜類, 果菜類 모두가 65年 이후 감소하고 있음에 반하여 洋菜類의 증가가 현저하다. 이에 따라 생산량은 根菜類가 微減傾向에 있고 葉莖菜類, 果菜類는 76年 이후 微増하면서 安定狀態에 있다(指定 채소의 출하량은 총 출하량에 대한 비중이 65年 60%에서 78년에는 76%로 증가하고 있다).

41) 1977~79년에 걸쳐서 秋冬期무우, 배추, 양배추의 품작은 이들 채소의 「과잉기조」를 심화시켜 出荷團體의 出荷調整機能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바 있다.



洋菜類의 生産增加가 현저한데 主要品目은 양상치, 셀러리, 카리플라워, 피만 등으로서 그 재배면적은 70年 全菜蔬類栽培面積에 대한 比重이 2.8% 였지만 80년에는 5.3% 수준에 이르러 3만ha에 달하고 있다(80年 채소류 作付面積은 644,000ha로서 이중 主要 28個品目の 재배면적은 559,200인데 根菜類 29.3%, 葉경채류 28.1%, 과채류 26.7%, 과일적 채소 10.6%의 순위이다).

채소의 10a當 收量を 보면 채소류 평균이 60年 2t에서 78년에는 2.6t으로 약 3%가 증가 되었다.

이상 生産동향에서 보면 재배면적 60만ha수준, 生産량 1,600만t으로 安定期에 있다고 보아진다.

〈表 IV-2〉 채소류의 作付面積 및 生産量, 生産指數(全國) 單位 { 面積: 1,000ha  
比率: %  
生産량: 1,000t

區 分		1960	1965	1970	1975	1976	1977	1978	1979
作 付 面 積	耕 地 面 積	6,071	6,004	5,796	5,572	5,536	5,515	5,494	5,474
	作 付 面 積	8,084	7,367	6,311	5,755	5,730	5,707	5,656	5,662
	耕 地 利 用 率	133.9	123.8	108.9	103.3	103.5	103.5	102.9	103.4
	채소류 작부면적	574	628	688	632	626	630	641	636
	作付面積에 대한 比率	7.1	8.5	10.8	11.0	10.9	11.4	11.7	11.6
國 內 生 産 量		11,742	13,490	15,131	15,612	—	—	16,410	16,314
生 産 指 數	채 소 류 全 体	70.3	81.3	96.7	100.0	100.2	105.4	107.0	108.4
	과 채 류	60.1	69.0	90.9	100.0	96.3	102.6	105.4	107.3
	엽 경 채 류	60.9	80.3	95.9	100.0	105.0	109.6	107.2	108.2
	근 채 류	107.8	111.0	110.1	100.0	95.8	102.8	97.4	110.9
	농 업 綜 合	75.3	84.3	94.7	100.0	96.5	104.1	105.3	105.6

資 料: 農林水産省: 「耕地 및 作付面積統計」, 1980.

“ : 「農林水産生産指數」, 1980에서 작성.

한편 價格動向을 보면 (表 IV-3)와 같으며 需要가 飽和狀態에 달하여 있기 때문에 生産 변동은 價格에 크게 따르고 있다. 指定채소의 種別과 期間別로 價格變動系數를 보면 (表 IV-4)와 같은데 15% 이상인 것이 22品目이고 20% 以上인 것도 5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價格制度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作型으로 구분하여 보면 供給變動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채소류의 需給調整은 年平均이 아니라 季節, 品目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채소는 年間을 통하여 高價 또는 低價가 되는 것이 아니라 年初에 비싸면 年末에는 싸지는 것이 通例로 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대상이 되는 당근, 양배추, 양파는 모두가 가격변동 계수가 높은

品目들이며 그러한 期間에 供給할 수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채소가격은 需給動向을 반영하여 변동하지만 가격형성은 복잡하고 資材價格이나 수송 cost의 변화, 入荷量의 增減外에 長期的인 需要變化, 天候 등 여러가지 요인이 作用하고 있다. 그러나 변동의 큰 요인은 入荷量의 增減이고 入荷量의 增減은 作況에 支配된다.

〈表 N-3〉 主要채소류의 全國都市場價格 單位：(円/kg)

	全体	무	당근	배추	양배추	시금치	파	양상치	가지	오이	토마토	피망	감자	양파	토란
1970	65	30	74	26	41	78	68	93	81	89	82	120	51	55	79
1975	108 (100)	45 (100)	118 (100)	35 (100)	43 (100)	153 (100)	125 (100)	133 (100)	146 (100)	143 (100)	154 (100)	226 (100)	67 (100)	58 (100)	162 (100)
1977	122	51	109	33	60	165	160	143	166	149	158	222	78	84	138
1978	125	54	106	34	60	166	129	151	166	184	168	276	85	68	225
1979	131	57	115	49	45	212	120	163	196	183	176	307	74	64	190
1980	165 (152.8)	89 (197.8)	103 (87.3)	86 (245.7)	120 (279.1)	220 (143.8)	194 (155.2)	263 (197.8)	315 (215.8)	256 (179.0)	236 (153.2)	408 (180.5)	104 (155.2)	86 (148.3)	126 (77.8)

註：1980年은 東京中央都賣市場價格의 平均임.

資料：農林水産省；國藝統計 1981, 日本農業年鑑 1982.

〈表 N-4〉 價格變動幅이 큰 品目(事例)

種 別 · 期 間	變動係數	種 別 · 期 間	變動係數
봄 양 배 추	23.4	秋 冬 무 우	16.2
"    "    "    "	18.9	春 夏 당 근	19.2
겨울 양 배 추	27.9	"    "    "	19.3
"    "    "    "	23.1	가 울 당 근	17.0
秋 冬 배 추	15.4	겨 울 당 근	15.8
"    "    "    "	18.4	양      파	23.8
"    "    "    "	16.1	"    "    "	16.5
봄 양 상 추	17.7	"    "    "	15.0
겨 울 "    "	19.8	冬 春 피 만	17.2
秋 冬 파	21.7		

註：變動係數 =  $\frac{\text{市場實勢價格의 標準偏差}}{\text{市場實勢價格의 平均}} \times 100$

채소류의 생산전망을 보면 (表 N-5)와 같으며 生産面에서 예상되는 構造變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畚作地轉換에 따라 채소류 생산에의 新規參入(表 N-6)이며

〈表Ⅳ-5〉 野菜生産展望

	作付面積(萬ha)		10a當收量(kg)		生産量(萬t)	
	1978	1990	1978	1990	1978	1990
野菜合計	61	58	2,660	3,030	1,641	1,799
葉莖菜類	22	23	2,820	3,070	663	725
果菜類	16	14	2,430	2,950	378	406
果實的野菜	5.9	5.3	2,740	3,340	162	178
根菜類	17	17	2,630	2,950	439	491

資料：農林水産省食料需給表 農林統計協會 1981.

② 施設園藝의 擴大(表Ⅳ-7)에 따른 Energy 問題이다. ①은 채소증산의 ②는 減産의 要因으로 作用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채소의 需給均衡을 교란하여 價格의 騰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채소에의 轉作面積은 總轉作面積의 30%에 달했지만 78年이후는 18%로 떨어졌으며 채소재배면적에 대한 비중은 79年 현재 13% 수준이다. 10%를 上回하는 채소작에의 신규참여는 과잉생산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서 공급교란의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作付面積水準 60만 ha가 수급균형에 거의 가까운 면적으로 보고 있다).

〈表Ⅳ-6〉 채소에의 轉換面積 (單位：1,000ha, %)

年次	71	72	73	74	75	76	77	78	79
轉作  채소면적	73	66	62	57	55	62	64	80	86
構 成 比	13.6	11.7	11.0	18.1	20.8	31.8	30.4	18.3	18.3
채소면적에  대한  비중	10.6	9.8	9.5	8.9	8.7	9.9	10.2	12	13

註：轉作 채소면적이란 畝作地가 채소재배지로 전환 된 면적을 말함.

두번째의 施設菜蔬(主로 겨울에 공급됨)는 터널재배를 제외하고 유리 溫室 및 house시설만 을 중심으로 하여 채소생산에 접하는 面積과 收穫量을 보면 면적에서 18.5% 수확량에서 28.5% 를 차지하고 있다. (1978年) 최근 채소 소비의 周年化등을 배경으로 시설 채소재배면적은 65年 ~73年間에는 매년 19.8%의 증가를 보였으나 石油波動등에 따라 73年-79年間에는 6.5% 증가 로 둔화되고 있다.

〈表Ⅳ-7〉 〈表Ⅳ-8〉에서 보면 유리室+house+터널의 시설화 面적은 69,600ha이며 수확량 275,000t으로 해당 채소에 대한 시설화율은 44%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 面적의 증가에 따라 채소의 周年供給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생산자들에게도 house內의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문제, 농약의 多量 살포에 의한 安定性 問題, 暖房用 燃料의 Energy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다.(省 Energy에 대한 연구가 進行되고 있음)

〈表Ⅳ-7〉 주요 채소생산의 施設化狀況 (1979年産)

品 目	項 目	作 付 面 積		收 穫 量	
		實 數(ha)	施設化率(%)	實 數(千t)	施設化率
計		69,600	44	2,747	54
가	지	3,600	17	231	35
토	마 토	5,870	31	407	39
오	이	8,690	35	584	54
호	박	3,180	23	78	34
피	만	1,530	34	104	61
달	기	8,850	74	171	87
수	박	21,200	64	804	74
露 地	메 른	10,500	82	235	88
溫 室	메 른	1,170	100	36	100
양	상 치	4,980	30	97	28

資 料 :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野菜生産出荷統計」1980.

註 : 시설화율이란 시설 채소작부면적(수확량)/當該 채소총작부면적(총수확량)을 말한다.

〈表Ⅳ-8〉 채소용 유리室 및 하우스의 施設面積의 推移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設 置 實 面 積 (ha)	9,343	13,049	17,701	18,679	21,727	24,837	
面 積 比 率 (%)	加 溫 施 設 設 置 面 積	33.8	38.3	43.8	45.3	41.9	40.0
	中 高 溫 裝 置 設 置 面 積	—	—	—	(28.9)	(44.0)	(50.9)
	保 溫 用 카펫 設 置 面 積	—	—	—	28.5	33.1	39.3

資 料 : 農林水産省 「園藝用 유리室 house 등의 설치상황」.

註 : ( )內는 가온시설 설치면적에 대한 비율

이상의 構造變動要因외에 생산공급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表Ⅳ-9〉와 같이 零細農家가 탈락하여 生産戶數가 감소하는 反面 50a 이상 대규모층은 증가하고 있다. 그 요인은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 充足率을 經營階層에서 보면 施設채소는 2,000㎡前後 露地채소는 1.5~2ha가 100% 水準에 있다. 그러나 노지 채소는 노동생산성이 1~1.5ha 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42)</sup>

나) 主要産地가 遠隔化하고 있다.

지금까지 채소생산은 도시 근교에서 鮮度를 重視하여 왔지만 「高度成長」下에서의 都市開

42) 梶井 功編; 農産物過剩 1981, p.240.

〈表Ⅳ-9〉 채소의 收穫面積 規模別 農家數 單位：1,000戶

年次	計	채소의 收穫面積 規模別 農家數										농업사업체구		
		5a 미만	%	5~10	%	10~20	%	20~30	%	30~50	%		50a 이상	%
70	4,480.4	2,790.4	61.8	804.1	17.9	465.4	10.4	163.8	3.7	139.5	3.1	139.0	3.1	34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5	4,100.2	2,655.3	64.8	637.1	15.5	387.4	9.4	141.5	3.5	125.9	3.1	153.1	3.7	450
80	3,750.2	2,431.9	64.8	553.9	15.0	353.5	9.4	131.2	3.5	115.9	3.1	154.0	4.1	596
	(83.7)	(87.8)	(70.1)	(76.0)	(80.1)	(83.4)	(110.8)						(130.2)	

資料：農林水産省，農林水産統計，1981.

發(東海道 megalopolis의 형성에 따라 그 주변의 채소 산지는 파괴되었다.) 수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시 근교 산지는 쇠퇴하여 遠隔地에서의 主產地形成이 進行되어 大量生産, 大量流通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그럼에 따라 大都市 中央都賣市場에서의 全國流通의 據点化=集散市場化는 長距離 수송으로 운임부담이 커지고 있기도하다.

다) 主產地 形成-專作化에 따라 地力低下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라) 生産費의 cover率을 보면 平均 양배추 61%, 배추 64%, 무우 87%로 되고 있어 生産물가격 즉 生産者 受取價格이 第2次 生産費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채소작 경영의 企業의 展開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데 가족경영이 되지 않으면 그 存立이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채소 生産費中 勞賃이 접하는 비중이 약 23~73%로서 勞動集約的이다. 勞賃上昇과 결부되어<sup>43)</sup> 生産費增加는 그만큼 경쟁력을 弱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채소생산의 경영단위가 영세하여 채소생산의 合理化, 現代化를 가로막고 있다. 채소생산 자체가 勞動多投의 性格으로 機械化를 어렵게 하는 요소를 스스로 갖고 있다.<sup>44)</sup>

### 3. 菜蔬의 消費構造

1955年 무렵부터 시작된 채소의 商業的 農業의 本格化는 우선 生産量增大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多樣化, 周年化, 平準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日本의 菜蔬消費量은 純食料 base로 年間 國民 1人當 1953~59年의 60~70kg 台에서 60~62年의 80~90kg 台 63년에는 100kg 台에 달하

43) 韓日間 農業勞動의 勞賃水準(日當)을 비교해 보면 한국 '76年; 男3.92\$ 女2.79\$ '77年; 男4.85\$ 女3.49\$ 인데, 日本은 76年; 12.99\$ 女10.29\$ 77年; 男16.61\$ 女12.73\$ 로서 노동력 부족-노임상승은 채소재배에 어려움을 던져 주고 있다.

44) John. M. Brewster; "The Machine Process in Agriculture and Industry, Journal of Farm Economics vol xxx11 No. 1. 1950, p.69.

였고 '65년 이후는 '71년의 119kg를 최고로 하여 110kg대에서推移하고 있다.<sup>45)</sup>

이러한 추세는 '55년에서 '75년 사이에 4.4배로 증가된 畜産物, 12kg에서 43kg으로 3.5배 늘어난 果實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이다.<sup>46)</sup>

그런데 以上の 數値는 「食料需給表」에 의거한 1人 1年當 菜蔬全体消費量이지만 直接消費(生食消費)量은 80年 현재 64kg 水準이며(表 IV-10) 年間 5kg以上 消費하는 종류는 양배추(5.94), 양파(5.47), 무우(5.91) 등이고 또 4kg이상 5kg까지 소비하는 종류로서는 감자(4.83kg), 오이(4.64kg), 배추(4.34) 등이다. 이들은 채소 중에서도 비교적 大量消費되고 있는 종류이다. 한편 이들 채소류를 포함하여 채소 구입량의 長期的 動向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sup>47)</sup>

① 양상치, 셀러리, 칼리플라워, 토마토 등의 激增 group('55년부터 '75년까지 5배 이상의 伸張)

② 購入量이 많으면서 上昇傾向을 보이는 채소: 양배추, 양파, 오이(2~3배의 伸張)

③ 購入量은 많으나 下降傾向을 보이는 채소: 배추, 무우

④ 購入量이 中位の 品目이나 增加하는 group(1~4kg): 피만(0.87kg), 당근(2.50kg)

⑤ 微増 내지 停滯 group(1~2배 伸張) 가지, 순무, 파 등이 있으며 감소하는 group로는 토란, 호박 등이다.

55年代 이후 채소류 생산의 발전을 量的으로 보면 급伸장을 보인 양상치, 피만등의 洋菜類를 제외하면 토마토 양배추, 배추, 오이, 양파 등이었으며 經濟의 高度成長은 食生活에 있어서의 채소 소비를 무우로 代表되는 根菜類에서 果菜類, 葉菜類를 爲主로 하는 方向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채소 구입 금액은 每年 增加推勢에 있으나 '72년 이후 需要가 정체되어 있으며 所得彈力値는 그 以前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어 채소는 高級材에서 普通材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消費의 增加를 보이는 것은 채소 소비의 30%정도를 점하고 있고 냉동채소, 토마토 加工品, 채소류 통조림등 加工 및 外食의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이다.

### 1) 產地移動

이상의 消費動向의 변화는 급격한 產地移動을 불러 일으켰는데 한 例로 東京에의 入荷量을 보면 1955년부터 1965년까지 東京과 그 인근 3縣(千葉 埼玉 神奈川縣)의 share가 58%에서 43%

45) 粗食料 base로 年間 1人當 消費量은 日本 127kg 이탈리아 153.4kg 프랑스 111.8kg 미국 103.1kg 네델란드 87.3kg 스위스 84.1kg 西獨 70.5kg 한국 131kg이다.

46) 吉田 忠; 農産物の流通, 1981, p.173.

47) ①吉田 忠; 上掲書, p.174. ② 加賀見廣; 「食生活と野菜生産の將來」 農業と經濟 臨時復刊號, 1979, p.86.

(表 IV-10) 주요채소류의 年間 1人當 主食消費量(全國, 全世帶率) (單位: kg, %)

	1965	1970	1975	1977	1978	1979	1980	年 率		
								'65~75	'75~79	'79~80
채소류 합계	62.81	62.06	66.20	67.72	65.09	64.20	64.32	0.5	△0.7	0.2
무 우	6.32	6.12	5.98	5.86	5.38	5.68	5.91	△0.6	△1.3	4.0
당 근	1.70	1.92	2.17	2.48	2.38	2.38	2.50	2.5	2.3	5.0
배 추	7.43	6.91	6.00	5.64	5.17	4.15	4.34	△2.1	△8.8	4.6
양 배 추	6.17	5.97	6.39	6.34	6.12	6.52	5.94	0.4	0.5	△8.9
파	2.25	2.32	2.04	1.90	1.85	1.75	1.73	△1.4	△3.7	△1.1
가 지	2.54	3.00	2.75	2.73	2.59	2.36	2.30	0.8	△3.7	△2.5
토 마 토	3.42	3.97	3.95	4.15	3.90	4.10	3.92	1.5	0.9	△4.4
오 이	4.11	5.14	5.37	5.49	4.87	4.86	4.64	2.7	△2.5	△4.5
감 자	4.76	4.24	4.80	4.74	4.55	4.69	4.83	0.1	△0.6	3.0
양 파	4.51	4.83	5.23	5.49	5.29	5.30	5.47	1.5	0.3	3.2
양 상 치	0.30	0.92	1.30	1.43	1.48	1.59	1.62	15.8	5.2	1.9
피 만	0.43	0.89	0.97	0.85	0.85	0.87	0.87	7.5	△1.1	2.4
채소류구입금액(円)	4,032	7,178	12,663	15,089	15,107	15,619	17,873	12.1	5.4	14.4

資料: 總理府; 「家計調査」.

註: 수박, 딸기, 메론등 과일류 채소는 불포함.

로急落하고('76年 36%) 대신에 北關東, 中部 및 北海道, 高知등의 遠隔地가 두각을 나타내어 5~7%의 share를 占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古전의 都市近郊地帶에서 高冷地, 西南暖地를 포함한 中間, 遠隔地帶으로 채소산지가 급속히 擴散된 것을 뜻한다. 동시에 지금까지 自給用 채소만을 재배하던 中間地帶에 채소작을 基幹部門으로 하는 近郊型的의 農家를 (단 多種類 채소를 少量씩 집약적으로 多毛作하는 近郊農家와 비교하면 보다 粗放的인 少數種類에 專門化하여 보다 大規模로 이행하는 형태의 農家임) 광범위하게 創出시킨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高冷地나 西南暖地에 產地가 擴散된 것은 品種改良과 재배기술 특히 비닐재배의 導入등 기술혁신과 함께 대부분의 주요 채소가 周年供給을 가능케 하였다.

## 2) 菜蔬消費上的 특징

앞에서도 대체적으로 살펴보았지만 食生活의 多樣化, 西歐化로 進行됨에 따라 채소류 소비상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消費種類의 多樣化이다. (최근의 香辛의 채소를 포함하여 슈퍼마켓에서 거래되는 종류수는 100~120種에 달하고 있음)

대체적으로 보아 그전부터 多量消費되던 근채류, 엽채류 등의 감소와 洋菜類의 증가이며 品目도 劃一化, 單純化의 경향이다.

② 본래 季節性이 강했던 채소 소비에 季節性이 사라지고 있다.

天候에 의한 收量, 品質의 不安定性은 여전히지만 재배기술의 혁신(시설화)등에 따라 周年供給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값이 비싼 채소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양상치, 피만등 單價가 높은 洋菜類 소비가 늘고 있으며 가격이 높은 時期의 채소 소비의 증가인 것이다.(시설 원예보급)

④ 채소의 소비형태가 調理加工된 食品에 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부부 노동등으로 炊事時間등과도 관계된다. 최근은 수입 冷凍채소의 소비가 증대되는 것도 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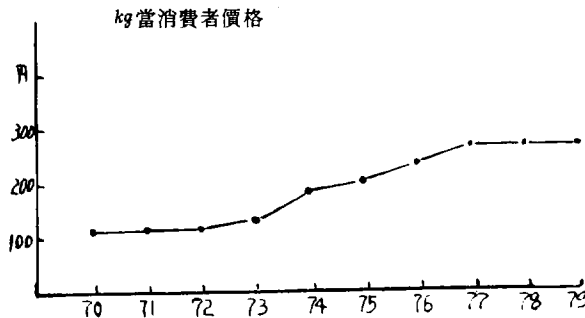
⑤ 채소의 品質低下가 문제되고 있다.(鮮도와 영양함유량에서 品質的으로 떨어진 채소의 증가에 따라)

### 3) 消費者價格과 需給展望

1955年을 100으로 할때 1965年의 消費者物價指數는 畜産물의 우유와 계란이 113, 肉類 167인데 대하여 果實 151, 채소는 250이다. 그림에 따라 채소류 流通問題가 close up되었는데 즉 채소의 유통문제는 消費者의 物價問題라는 측면에서 社會問題, 政治問題化하게 되었던 것이다. 채소류의 가격등귀는 고도 경제성장과 관계되는 것이며(巨大都市에의 人口集中等) 이에 따라 遠隔地를 中心으로 大型産地形成을 촉진케 하였다. 그 일환으로 構想된 것이 1966年의 야채생산출하 안정법(野菜法: 後述함)이다.

以來 채소의 소비자 가격은 72年이후 급상승을 계속하였지만 76年 이후로 安定狀態를 維持하고 있다.(圖IV-1)물론 이것은 채소 전체이지만 品目 혹은 季節에 따라 變動이 큰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全都市 平均 1人當 年間 購入量은 채소 70.3kg, 果實 45.8kg이며 1kg當 구입가격은 채소 224円, 果實 246円이다. 1978年)

〈圖IV-1〉





※ 濟州地域과 관계되고 채소의 東京市場 小賣價格(1kg)을 보면 (1979) 배추 106円, 양배추 112円, 양파 142円, 당근 240円이다.

한편, '79年 현재 채소류의 자급율은 97%이며(表 N-11) 수급전망은(表 N-12)와 같은데 1人當 消費量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表 N-11〉 野 菜 供 給 率 (단위; %)

	1965	1970	1975	1976	1977	1978	1979
야 채 류	100	99	99	98	98	97	97

資 料: 農林水産省ボケツ園藝統計, 1980.

〈表 N-12〉 野 菜 의 需 給 展 望

1978年				1990			
總需要量 (A)	國內生産量 (B)	自給率 (B)/(A)	1人當純食料 (kg)	總數要量 (A)	國內生産量 (B)	自給率 (B)/(A)	1人當純食料 (kg)
1,686萬t	1,641	97%	114.9	1,826	1,799	99	114

資 料: 農林水産省; 食料需給表 1981.

#### 4. 菜蔬의 需給調整

##### 1) 指定産地, 指定消費地域制度

채소의 需給調整方法에는 첫째, 産地의 需給調整會議(市場과 産地情報를 교환하여 各産地의 意思決定을 誘導하는 役割을 하고 있음)가 있고 둘째는, 産地의 市場指定이며 (全縣共販은 縣이 지정하지만 大型産地는 獨自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都賣市場에 대한 높은 占有率을 利用하여 旬別 出荷量을 契約함)

세째가, 指定産地, 指定消費地域制度인 것이다. 上記한 指定市場制度는 産地가 市場擴大와 價格變動에 대처하기 위하여 自主적으로 運營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정부가 채소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정의 手段으로서 만들어 낸 制度이다. '66年의 野菜生産出荷安定法(略稱 野菜法)에 의한 것인데<sup>48)</sup> 大消費地(推定消費地域)와 遠隔地 大産地(指定産地)를 연결한다는 소위「大型流通

48) 野菜法은 指定品目, 指定産地, 指定消費地域이라는 소위 廣義의 「指定産地制度」로서 생산, 유통, 가격형성 등 全領域에 걸쳐 채소의 생산, 유통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典型的인 法律制度라고 할 수 있다.

路線：全農을 中心으로 系統共販을 통하여 大型產地→大型共販→大型消費地域 中央都賣市場에 의 集中出荷→轉送(後述함)이라는 集散市場體系임]의 확립인 것이다.

또한 主要菜蔬價格이 趨勢價格을 기준으로 결정된 保證基準額을 밑돌 때는 國家, 道府縣, 出荷團体が 據出하여 만든 野菜供給安定基金(法人)이 價格補填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9)</sup>

그리고 野菜法은 主要品目を 「指定品目：14個品目」으로 하여 指定產地(大型專門產地 1,072個所)에서 大消費地(지정 소비지역 31個地域, 129個都市)에 共販을 중심으로 계획출하하는 것인데(表Ⅳ-13) 指定産地의 要件은 ① 葉莖菜類 또는 근채류 25ha, 夏秋果菜類 15ha, 冬季果菜類 10ha의 作付面積 ② 指定消費地域에의 出荷率 1/2이상 ③ 共同出荷率 2/3이상 등으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多品目 小量生産型의 도시, 근교지대의 農家에서는 대응할 수 없어 원격지에서 主産지가 형성되게끔 되었다.<sup>50)</sup>

(表Ⅳ-13) 野菜指定産地의 作付面積, 收穫量, 出荷量 및 指定數

單位 { 數量：t  
比率：%

品目	作付面積	收穫量	出荷量	指定産地數	總量에 占하는 比率		
					作付面積	수확량	출하량
무	12,400	559,600	513,265	93	17	22	29
당근	10,300	308,900	29,193	77	43	53	60
배추	13,200	687,800	636,499	105	35	49	61
양배추	17,200	787,600	724,474	112	41	51	56
시금치	2,530	41,900	37,671	23	11	11	13
파	4,040	113,400	103,607	29	17	21	27
가지	2,590	156,300	143,248	45	12	24	33
토마토	4,860	343,200	324,693	123	26	33	35
오이	8,980	500,800	451,131	191	35	46	51
피망	1,200	88,900	86,129	38	26	51	57
토란	4,360	71,100	57,152	32	14	16	22
양파	21,100	1,024,000	898,961	68	71	82	89
양상치	11,400	248,500	241,634	81	67	72	74

註：① 감자가 포함되어 14개품목이 되며 지정수는 1,072개소가 된다.

② 1979年の 現況임.

資料：農林水産省·「野菜生産出荷統計」에서 作成.

49) 현재의 指定産地는 趨勢值價格의 90%까지 保證되고 있어 産地의 가격폭락에 대한 위험은 면하고 있다.

그런데 菜蔬의 가격안정대책의 先進事例은 네델란드로서 네델란드方式은 生産者團体が 都賣市場을 운영하고 있어 價格이 안정수준이하로 떨어지면 販賣를 중지하고 나머지를 폐기하여 그 폐기량에 대해서는 所定額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50) 遠隔地의 産地形成이 80.8% 中間地域이 12.5%이며 近郊의 경우는 6.7%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은 菜蔬生産정책이 近郊에서 遠隔地中心으로 移行하여 大型産地育成, 大型市場網과의 결합이라는 방향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指定產地制度는 地域間, 市場間의 過不足을 創出, 擴大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즉 「指定消費地域」內에서의 만성적 과잉과 다른 지역내 市場에서의 만성적 부족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잉량은 270만t에 달하여 東京 中央市場만도 98t의 과잉입하량이 되고 있다. 결과 ①輸送圈과 轉送量(三大都市 中央市場과잉集荷에 의한 超過分의 地方市場 分散量임)의 擴大를 촉진하고 있으며(表Ⅳ-14) 이에 따른 輸送費負擔의 增加로 高價形成 ② 채소생산, 소비의 축소와 輸入擴大 ③ 生産地域에서는 값이 싸면서(농가 受取價格下落) 소비자 가격은 비싼 가격의 형성 ④ 品目, 地域·계층간의 불균형 등의 발전확대(지정품목의 외 것은 과잉요인이 되고 있음)⑤ 共販組織의 自主的 市場선택 곤란 ⑥ 地方市場의 經營곤란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도 사실이다.<sup>51)</sup>

〈表Ⅳ-14〉 채소의 轉送量動向

年次 ↓	項目 →	全都賣數量 (1,000t)	轉送量 (1,000t)	轉送比率 (%)
1965		6,955	153	2.2
1970		9,088	400	4.4
1975		11,237	592	5.3
1979		12,483	724	5.8

註 : 轉送比率는 全都賣數量에 對하는 轉送量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임.  
資 料 : 農林水産省 ; 「青果物都賣市場調査報告」.

그러나 野菜法은 主要 채소에 대하여 生産出荷의 近代化를 計劃的으로 촉진하여 大消費地에서 채소가격이 폭락한 경우에는 野菜生産 出荷安定資金에 의한 補填으로 生産자의 所得低下를 완화하고 그러므로서 生産출하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소비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目標로 하고 있다. 결과 채소의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에 공헌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生産農家の 專門化, 大規模化와 產地大型化가 이루어졌다.

## 2) 需給調整機構

全農의 채소 수급조정기구(圖Ⅳ-2)가 있는데 그 대상은 5개 품목(감자, 양파, 夏秋오이, 겨울양상치, 冬春피망)뿐이지만 綜合農協에 品目部會를 두어 單協으로 부터 全農까지 一貫體系를 형성, 조정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sup>52)</sup> 全國 level에서 guide post를 策定하고 調整委員會에서 趣旨를 決定하여 地域, 縣連, 農協, 生産者에 下向되었다 再次 上向되면서 出荷調整, 進行管理와 出荷時期調整, 事務情報 system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조정은 作付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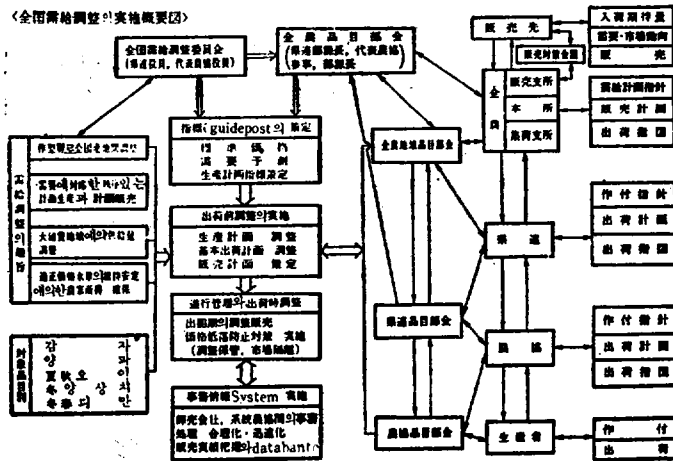
51) 首都圈流通問題研究會編 ; 農產物流通の現代的課題 1981, pp.45~46.

52) 梶井功編 ; 前掲書, pp.258~260.

階와 出荷段階로 check되며 全國 level의 system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需要豫測, 標準價格에 따라 生産計劃을 책정, 이것을 生産농가에 分擔하여 生産, 出荷케 하는 기구로서 채소생산상의 특징인 零細多數의 生産자를 統合한 marketing system이라 말할 수 있다.

〈圖 IV-2〉 全農의 野菜需給調整



〈堀井功 前掲書에서 인용〉

이상과 같이 全農에 의한 全國調整은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農林水産省도 이에 따라 종래의 部分的 需給調整에서 作付·消費에 이르는 一貫된 調整에 나선 것이 「重要野菜需給調整特別事業」인데 流通 level에서 生産統회에 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채소 정책의 轉機로 평가되고 있다.

80년부터 農林水産省은 「重要野菜需給調整對策事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窓口를 全農으로 하여 社團法人「全國 野菜需給 調整機構」를 設立하였다. 이에 따라 初年度에는 秋多期 무우, 배추, 양배추(周年)를 대상으로 ① 需要에 알맞는 生産出荷調整과, ② 出荷期에 있어서의 가격 폭락 대책을 주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81年度에는 春 양배추, 夏秋 양배추, 양파(周年)등 多品目化, 周年化하여 全國 中心의 生産出荷調整化가 이루어지고 있다(計劃生産 $\leftrightarrow$ 計劃出荷体系임).<sup>53)</sup>

53) 山口照雄; 「野菜過剩の構造と打開策」 農業と經濟 1981. 11, p.24.

## V 日本의 農産物輸入

### 1. 輸入農林水産物の 構成

#### 1) 輸入 構成

1980年 日本의 農林水産物 輸入總額은 <表V-1>과 같이 29,055百萬\$로서 이 중 農産物 17,616,4百萬\$(60.6%); 林産物 8,065百萬\$(27.8%) 및 水産物 3,373,5百萬\$(11.6%)이다.

<表 V-1> 農林水産物 輸出入額

	金 額 (100萬 \$)			前 年 比 增 (%)		
	1978	1979	1980	1978	1979	1980
輸 出	1,561	1,788	2,227	21.1	14.6	24.5
輸 入	21,402	28,927	29,055	11.0	35.2	0.4

資 料：日本貿易振興會；農林水産物の貿易，1981.

農産物の 內容을 좀 더 자세히 보면(表V-2) 農産品 68%, 畜産品 15.8%, 蚕糸 0.9%, 천연고무·綿·羊毛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農産品에서는 小麥과 飼料用穀物을 주로 하는 穀物(25%) 및 大豆, 油菜를 주로 하는 油脂原料(11.9%)가 가장 큰데 이것들이 農産品 수입 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果實, 채소, 기호식품, 음료, 담배 등 다양하다. 畜産物로는 原毛와 肉類가 쌍벽을 이루고 있으며 酪農製品이 그다음 되고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입 農産물의 主力을 需要面에서 보면 畜産物과 油脂需要의 증대에 기인된 것 (사료곡물, 축산물 및 식물성 유지원료) 및 수요의 多樣化에 기인된 것 (소맥, 열대성, 아열대성 과일, 채소, 기호식품, 음료, 담배 등)들이다.

#### 2) 主要農産物 輸入의 推移

<表V-3>은 60年이후 主要農産物 輸入의 推移를 본 것인데 農産물수입은 高度經濟成長期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어 60~70年の 10年間 金額으로 11배가 되고 있다. 75年 이후는 安定成長의 영향을 받아 수입신장율은 대체적으로 둔화되었다. 다만 畜産物 需要增大에 따른 肉類, 飼料穀物 및 植物油脂原料와 기호식품 수입량은 여전히 신장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54)</sup>

54) 日本의 人口는 世界의 2.7%이지만 穀物生産은 1.1%이고 輸入으로는 13%前後를 世界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81年 穀物 79%, 大豆 96%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農産物全体로는 46%를 占하고 있다.

<表 V-2>

農水林産物輸入額(1980年, 日本)

單位: 100萬\$

品目	金額	比率
(1) 農産品	11,977.2	68.0%
穀物	4,400.6	25.0
果實, 野菜	1,420.0	8.1
砂糖	1,385.3	7.9
커피, 코코아, 茶	1,001.2	5.7
기타 食飲料	594.3	3.4
植物油脂原料	2,102.2	11.9
담배	364.4	2.1
기타 농산물	709.2	4.0
(2) 畜産品	2,776.7	15.8
肉類	1,462.8	8.3
酪農品, 鳥卵	342.9	1.9
기타 축산물	971.0	5.5
(3) 蚕糸	156.7	0.9
(4) 天然고무, 綿, 羊毛	2,705.9	15.4
農産物總類	17,616.4	100.0
林産物總類	8,065.0	—
水産物總類	3,373.5	—
農水林産物計	290,555	—

資料: 日本貿易振興會, 農水林産物の貿易, 1931, p.61.

<表 V-3>

主要農産物の輸入狀況

單位: 1,000%, 1,000萬\$

	數 量				金 額			
	1960	1970	1975	1980	1960	1970	1975	1980
(1) 農産物輸入類	—	—	—	—	883.5	3,247.6	9,674.1	1,491
小麥	2,678	4,685	5,654	5,683	176.9	318.4	1,117.0	1,229.3
大豆	1,128	3,244	3,334	4,401	107.4	365.8	940.3	1,310.2
옥수수	1,353	9,807	11,264	17,048	81.1	638.2	1,678.6	2,644.2
肉類	38	204	365	430	13.6	124.1	572.5	1,188.2
마나나	42	844	894	726	6.6	144.2	164.1	189.8
粗糖	1,264	2,580	2,463	2,260	106.0	280.0	1,683.9	1,222.0
커피豆	11	81	109	175	8.6	55.9	156.4	659.0
카카오豆	10	35	29	23	6.4	261.0	51.4	70.6
油 菜	51	336	659	1,059	6.6	41.4	241.8	313.0
生糸, 玉糸	—	4	2	3	—	69.1	65.9	124.6
(2) 總輸入類	—	—	—	—	4,491	18,881	57,863	140,528
(1)/(2)					19.7	17.2	16.7	10.6

註: 농산물수입액에는 羊毛, 天然고무, 綿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資料: 農水林産省,

## 2. 主要 食用 農産物의 自給率

〈表V-4〉는 '60~'80年間の 主要 食用 農産物의 自給率推移를 본것인데 '60年 砂糖을 제외하면 대부분 品目의 自給率은 높았었다. 그러나 高度經濟成長에 따라 쌀 등 少數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저하하고 있다. 그 推移를 네개의 group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group : 60年 그때나 지금도 변함없이 完全 혹은 自給에 가까운 것인데 쌀, 채소류, 제란 등이다.<sup>55)</sup>

둘째 group : 60年 當時에 비하여 약간 自給率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國內生産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果實, 牛乳, 乳製品, 豚肉 및 牛肉이 포함된다.

셋째 group : 60년에 비하여 自給率이 현저히 저하하여 현재에는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인데 小麥, 大豆 및 飼料穀物(大麥 등)이 여기에 속한다.

네째 group : 60年 당시부터 거의 수입에 의존하였던 것으로서 砂糖은 그 전형적인 것이다.

이상에서 大體적으로 보아 經營을 維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넓은 土地面積을 필요로 하는 土地使用型品目 및 流通上 保存, 輸送性能이 높은 品目은 高度經濟 成長期에 수입량이 급증하여 현재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대로 經營上 좁은 土地面積에서 多額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資本使用型, 施設型品目 및 流通上 保存, 輸送性能이 낮은 品目은 國內 自給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農業就業人口 1人當 農用地 面積은 76年 美國 168ha, 英國 31ha, 西獨 9ha인데 日本은 0.7ha에 불과하다).

## 3. 農産物 貿易의 動向

日本の 貿易構造를 보면 工業製品(기계류, 운반기구를 포함하여 수출액의 81.7%—1977年)을 수출하여 燃料(33%), 原材料(18%), 食料(16%)를 수입하고 있다. 美國, 英國, 西獨에 비하여 異種産業間의 生産物 相互間의 수출입 즉 垂直的 貿易이 높고 同種産業 生産物 相互間의 수출입인 橫斷的 무역은 낮은 수준이다. 그 요인은 국제무역상의 比較優位가 公業이 농업보다

55) 채소류의 각국 自給率로 보면 영국 79%, 西獨 33%, 프랑스 93%, 네델란드 195%, 스위스 46%, 미국 99%이며 穀物自給率은 美國 174%, 캐나다 172%, 프랑스 152%으로서 수출국들이고 수입국인 西獨 80%, 이탈리아 74%, 영국 64%이다.

〈表 V-4〉

## 主要食用農産物の 自給率推移

단위: %

品 目	年 度	1960	1970	1975	1979	1980	
米		102	106	110	107	87	
小 麥		39	9	4	9	10	
大 麥, 裸 麥		107	34	10	17	15	
豆 類		44	13	9	8	7	
大 豆		28	4	4	4	4	
野 菜		100	99	99	97	97	
果 實		100	84	84	86	81	
계 탄		1,001	97	97	98	98	
牛 乳, 乳 製 品		89	89	77	80	81	
肉 類		91	89	77	80	81	
牛 肉	豚 肉	96	90	81	69	72	
		96	98	86	90	87	
砂 糖		18	23	16	24	28	
參 考	穀 給 物 率 自	쌀의 수급 균형을 전제로 한 경우	82	45	40	33	33
		쌀의 자연도 수급실세를 기초로 한 경우	83	48	43	35	29
	純國內産사료자급율	63	38	34	28	28	
	食料總自給率(水産物포함)	93	83	79	76	77	

資 料: 農林水産省「食料需給表」「飼料需給表」, 農業白書 1981年度에서 인용.

월선 크고 또한 兩者의 格差가 크게 벌어지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日本의 農産物 貿易은 수출액에 비하여 수입액이 월등히 큰것이 특징이 되고 있다. 81年 農산물 무역의 入超額은 148억 \$ (通關 base)에 달하고 있다. 農산물 무역중 수출에 대해서 보면 총수출액의 0.7%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65年代에 과잉米 수출에 의해 일시적인 증가는 있었지만 그 후 78년까지 일관하여 감소하여 왔다. 쌀을 제외한 수출의 主要品을 보면, 표고, 밀감果汁 등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수입은 장기적으로 보면 食料需要增大와 內容變化에 대응하여 금액이나 量的 모든 면에서 크게 증대되고 있다(表V-5).



〈表 V-5〉 農産物 貿易의 推移 (單位: 100萬\$, %)

區 分	年 度	1975	1980	1981	年 增 加 率	
					'75~80年	'80~81年
農 産 物 貿 易	輸 出 額	373	905	1,070	19.4	18.1
	(總輸出에 대한 占有率)	(0.7)	(0.7)	(0.7)	—	—
	輸 入 額	9,674	14,917	15,829	9.0	6.1
	(總輸入에 대한 占有率)	(16.7)	(10.6)	(11.0)	—	—
	入 超 額	9,301	14,012	14,759	8.5	5.3

資 料: 大藏省「通關統計」, 農業日書(1981年)에서 작성.

註 : 農産物에서 綿, 羊毛, 天然고무는 제외 되었음.  
(또한 水産物, 林産物도 제외된것이 농산물임)

## VI 日本의 菜蔬輸入

### 1. 菜蔬輸入의 長期的인 推移

輸出入과 聯關하여 菜蔬를 日本의 大藏省「日本 貿易月表」의 品目分類에 의거 다음과 같이 分類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① 生鮮菜蔬—양파, 마늘, 토마토, 기타 菜蔬(生鮮 혹은 冷蔵品인 것), 생강(粉碎되지 않은 것)
- ② 冷凍菜蔬
- ③ 乾燥菜蔬—竹筍, 표고버섯, 양파, 기타채소(건조된 것)
- ④ 塩藏菜蔬—작은 가지, 고사리, 락교, 기타 채소 (모두가 塩水 기타의 貯藏液으로 一時 저장한 것) 등으로 分類되고 있다.

(本 小論은 以上과 같은 分類를 기초로 하여 主로 生鮮菜蔬에 대한 日本의 輸入構造를 밝혀 봄으로서 우리 輸出擴大 可能性을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主내용이 될 것임)

다음 〈表VI-1〉는 菜蔬輸入推移를 長期的으로 살펴본 것인데 우선 채소 전체로는 '65年에서 '78年間에 輸入額이 약 17배로 늘어났고 최근에 와서는 총액이 1,078억圓을 上回하고 있다 ('80年 農産物 全体 輸入額은 176億\$, 3兆 8千億圓이었음). 그러나 品目別로는 伸張程度에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生鮮 채소는 채소중에서도 그 伸張率이 작은 쪽에 해당된다. 그리고 生鮮채소중 양파수입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比重은 每年 低下하여 '65~'67年에 72.1%였던 것이 '76~'78년에는 42.7%로 되고 있다. 그렇지만 金額面에서는 絶대적으로 증

가 하고 있으며(後述) 價格이 相對的으로 높고 輕量채소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다음에 冷凍채소는 가장 뚜렷한 增大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근래 몇年 사이에 뚜렷하여 앞으로 그 動向이 주목된다. 乾燥채소는 가장 伸張이 작은 분야이며 乾燥채소 중에서 비중이 큰 것은 버섯류이지만 이것도 대폭 낮아지고 있다. 한편 調製채소는 塩藏채소에 필적되는 伸張部門인데 특히 토마토 加工品이 뚜렷하다.<sup>56)</sup>

〈表 VI-1〉 野菜輸入實績의推移(1965~67年=1.0)

年次	生鮮野菜		冷凍野菜		乾燥野菜		塩藏野菜		調製野菜		合計 價額
	數量	價額	數量	價額	數量	價額	數量	價額	數量	價額	
1965~67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966~68	1.4	1.4	1.6	1.5	1.3	1.3	1.7	2.0	1.4	1.3	1.4
1967~69	1.5	1.6	4.1	3.8	1.5	1.7	2.3	2.7	1.9	1.8	1.8
1968~70	1.6	2.0	9.2	8.4	1.5	1.9	3.6	4.5	2.2	2.3	2.3
1969~71	1.9	2.9	14.3	13.0	1.7	2.3	4.6	6.1	2.6	2.7	2.9
1970~72	2.3	3.8	19.0	16.4	2.0	2.8	6.0	9.3	3.7	3.5	3.7
1971~73	3.0	4.9	33.3	29.4	2.4	3.6	7.9	14.2	5.4	5.3	5.3
1972~74	3.5	6.3	61.0	65.3	2.6	4.3	10.1	21.3	7.7	9.0	8.3
1973~75	3.4	7.6	70.4	81.8	2.8	4.9	13.8	32.6	8.4	11.6	10.4
1974~76	4.2	10.7	81.6	102.9	3.0	6.1	29.9	74.6	6.1	9.8	12.0
1975~77	4.1	12.3	84.9	111.3	3.1	7.1	38.3	123.6	6.8	10.6	14.4
1976~78	5.6	14.1	113.4	139.6	3.4	8.1	50.3	172.4	8.0	11.7	17.2

註 : 輸入量과 輸入價額의 3년年移動平均値에 대하여 '65~'70年을 1.0으로한 指數이다.

資 料 : 大藏省 ; 日本貿易月表에서 作成된것임. 高橋伊一編 ; 「輸入農産物」에서 引用.

또한 〈表 VI-2〉에 의해 채소수입액의 品目別 比率의 推移를 보면 '76~'78年 平均으로는 變함없이 調製채蔬와 乾燥채소 비율이 높다. 그러나 다른 品目에 대해서도 比率은 接近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핀 輸入推移의 영향을 받아 냉동채소와 凍藏채소의 share가 높아지는 점이 뚜렷하다. 어쨌든 全体를 통해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수입되는 채소의 品目이 多樣化하는 傾向인데 이것은 채소 消費의 高級化, 多樣化, 周年化 추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56) 日本의 農産物輸入動向('60~'80年)을 보면 20年間에 실질적으로 5배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점을 보면 ① 國內 쌀 생산을 크게 上回하는 2,500萬t의 穀物 ② 400만t의 大豆, 이상의 수입액은 전체의 40%에 이르며 이에 따라 穀物의 自給率은 20年前 80%에서 30%로 低下하고 있고 ③ 수입이 증가되는 領域은 畜産物, 채소, 果實, 多樣한 加工食品으로 확대되면서 多樣化하고 있는 점이다. ; 井野隆一 ; 「日本の農業は果に“過保護”か」 農業と經濟 1981. 8, p.34.

〈表 VI-2〉 野菜輸入額의 品目別比率推移 單位：%

年 次	生鮮野菜	冷凍野菜	乾燥野菜	鹽藏野菜	調製野菜	合 計
1965~67年	20.2	1.8	32.9	2.4	42.7	100.0
1966~68	21.4	2.0	32.0	3.5	41.1	100.0
1967~69	17.8	3.8	30.8	3.6	44.0	100.0
1968~70	17.7	6.8	27.9	4.8	42.7	100.0
1969~71	20.2	8.3	26.8	5.1	39.6	100.0
1970~72	20.6	8.1	25.3	6.0	39.9	100.0
1971~73	18.7	10.1	22.5	6.4	42.2	100.0
1972~74	15.4	14.5	17.2	6.2	46.8	100.0
1973~75	14.8	14.4	15.5	7.5	47.7	100.0
1974~76	18.0	15.7	16.6	14.9	34.8	100.0
1975~77	17.3	14.2	16.4	20.7	31.5	100.0
1976~78	16.6	14.9	15.5	24.1	29.0	100.0

資 料：大藏省『日本貿易月表』에서 作成。 高橋伊一：上掲書에서 引用。

## 2. 菜蔬輸入先의 動向

### 1) 全体的 흐름

〈表VI-3〉은 品目別로 菜蔬輸入先의 國가를 장기적으로 살펴본 것인데 우선 生鮮채소에서는 美國과 대만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 대만이 원래 미국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지만 서서히 미국이 접근하여 75年以後는 대만에 앞서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과 대만의 share경쟁에서 核心을 이루고 있는 부문은 양과수입량의 大小인데 여기에 따라 左右되고 있다. 한편 많았을 때에는 20~25%를 점하고 있던 中共이 근래에 와서 share가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生鮮채소 share는 28%로 5위에 머물고 있다(表VI-3).

다음 冷凍채소도 미국과 대만의 share가 압도적으로 높고 한때 오스트랄리아가 70% share까지 점한적이 있었지만 급속하게 떨어져 이제는 1%以下 比率로 떨어지고 말았다. 냉동채소 분야에서 한국은 5位圈 水準에도 끼지 못하고있다.

乾燥 채소에 대해서는 대만과 미국의 비율이 높지만 내용을 보면 '78年前까지는 中共이 훨씬 앞서오다 '78년에 비로소 미국이 앞서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韓國은 5位の 2.8% share임).

鹽藏 채소는 대만과 中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훨씬 비중이 높는데 兩國의 경우 한 때는 대만의 share가 zero로 떨어지는 사태도 있었지만 그 후 한꺼번에 中共('72年)을 上回하여 '78年 현재 3倍정도의 share를 대만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鹽장채소 부문에서는 中共 다음

〈表 VI-3〉

野菜輸入量の輸入先別比率推移

(單位：%)

品目	國名	年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生鮮野菜	미국	16.0	2.4	6.3	10.2	0.1	24.8	25.4	9.7	49.4	38.5	39.8	37.7	15.3	44.6
	台灣	68.9	72.9	42.9	45.7	85.3	49.1	40.8	47.7	25.5	29.6	36.9	41.7	49.3	24.3
	뉴질랜드	1.7	0.0	7.1	11.2	0.0	9.5	7.7	12.5	0.2	10.7	3.3	8.6	4.6	17.6
	스페인	0.0	0.0	0.0	10.6	0.0	0.0	0.6	0.0	9.9	5.8	0.0	0.0	0.0	3.7
	韓國	0.0	0.1	0.2	0.1	0.3	0.4	0.2	1.5	2.1	4.7	9.8	5.4	12.4	2.8
	기타	13.4	24.6	43.5	22.2	14.3	16.2	25.3	28.6	12.9	10.7	10.2	6.6	18.4	7.0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冷凍野菜	미국	21.0	14.3	10.1	11.2	8.1	3.0	3.1	10.0	21.7	33.7	49.7	49.5	43.5	48.6
	台灣	0.0	14.4	15.1	19.4	14.9	28.6	31.2	23.1	30.8	31.1	14.9	28.7	33.6	31.4
	뉴질랜드	2.7	0.0	2.2	2.2	15.4	21.5	35.3	24.2	14.4	14.7	10.4	8.0	8.2	8.9
	中共	1.7	2.7	29.1	45.5	21.5	9.4	20.3	30.6	23.0	11.8	16.8	9.9	7.9	7.0
	캐나다	0.0	0.0	0.0	0.1	19.1	8.0	0.2	0.5	2.8	2.9	2.6	1.3	2.0	2.6
	기타	69.6	68.6	43.5	21.6	21.0	29.5	9.9	11.6	7.3	5.8	5.6	2.6	4.8	1.5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乾燥野菜	台灣	44.6	34.3	32.8	44.6	47.8	52.9	49.8	55.0	54.6	46.4	42.2	43.3	45.0	42.9
	미국	1.4	1.6	1.7	2.4	2.7	5.6	1.8	1.9	5.4	8.5	14.0	13.8	15.6	26.6
	中共	47.7	52.9	50.4	38.6	38.8	35.3	35.4	33.9	28.0	31.4	32.2	35.2	30.7	16.5
	인도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1	0.0	0.0	3.7
	韓國	0.0	1.1	0.8	0.7	0.6	0.9	1.3	1.0	3.5	1.2	2.5	3.8	5.6	2.8
	기타	6.3	10.1	14.3	13.7	10.1	5.3	11.6	8.2	8.5	12.5	9.0	3.9	3.1	7.5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塩藏野菜	台灣	73.6	25.4	0.0	0.0	0.0	0.0	0.0	67.6	64.0	47.6	70.9	68.4	64.1	63.4
	中共	25.9	73.8	85.5	91.1	90.7	92.6	89.5	24.7	27.2	38.7	19.8	17.3	21.3	23.6
	韓國	0.0	0.0	14.4	7.9	7.8	6.5	9.7	5.1	5.3	7.7	5.0	7.7	5.8	3.1
	필리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6	1.8	3.5	2.9
	조선	0.0	0.0	0.0	0.0	0.1	0.2	0.8	2.1	2.4	2.7	1.8	1.8	1.6	2.4
	기타	0.5	0.8	0.1	1.0	1.4	0.6	0.0	0.0	0.4	1.3	1.9	3.0	3.7	4.6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調製野菜	台灣	54.9	28.8	0.0	0.0	0.0	0.0	0.0	55.0	45.2	49.5	64.2	73.1	71.2	78.0
	中共	35.4	45.5	65.7	80.5	83.4	79.0	76.8	13.4	16.9	9.8	8.6	10.2	7.4	7.3
	미국	5.6	7.3	5.5	2.3	2.3	1.8	1.5	1.8	7.2	7.2	5.2	3.6	4.3	4.7
	포르투갈	0.6	12.4	19.4	8.1	8.3	9.0	10.8	16.9	21.7	19.7	7.2	3.8	5.0	3.2
	韓國	0.2	0.3	0.5	0.4	0.8	0.4	1.5	1.0	0.9	1.4	2.0	4.0	3.6	2.0
	기타	3.5	5.7	7.8	8.3	6.0	10.1	10.9	7.6	8.6	10.2	12.8	5.3	8.5	4.8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大藏省『日本貿易月表』에서 作成.

高橋伊一編：前掲書에서 引用.

의 share 3.1%를 차지하고 있으나 中共에 비해 10분의 1의 비중이다. 어떠한 우리로서는 이分野에 좀더 商品開發등에 노력하면 가능성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調製채소는 대만이 독무대를 차지하고 있어 中共의 share는 점점 떨어져 이제는 10%미만이 되고 말았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日本의 채소 수입에 대한 share를 모든 분야에서 대만과 미국의 우위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80~'81年) 대만의 農産物 輸出動向을 요약 살펴 보기로 한다.

## 2) 대만의 農産物 輸出과 日本에 대한 比重

〈表VI-4〉는 '81年 대만의 農産物 수출 內譯인데 637억 7,100萬圓(38圓=1\$)으로서 前年の 641억 6,800萬圓에 비하여 0.6%가 감소되었다. 수출대상국은 日本이 最大市場으로 金額 base로는 295억 3,501萬圓으로서 農産物 수출 총액의 46.3%에 이르고 있다. 日本外로는 미국에 66억 1,217萬圓, 싱가포르에 21억 4,400萬圓, 南아공화국에 15억 3,033萬圓, 홍콩 20억 5,245萬圓, 한국 9억 365萬圓 순이다.

이 중 채소류 수출은 65억 8,749萬圓(18만 6,053t)으로 前年에 비해 14.8% 上回하였다. 內容別로 보면 生鮮채소 9억 3,515萬圓(88,311t) 冷凍채소 21억 605萬圓(57,409t), 塩藏 9억 5043萬圓(45,084t), 乾燥 16억 4,875萬圓(20,977t)이었다. 양선채소로는 양파 2억1,861萬圓(24,883t), 양배추 9,438萬圓(13,491t)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수출 대상국은 日本 5억1,523萬圓(30,184t), 홍콩 2억815萬圓(37,376t), 싱가포르 1억1,736萬圓(14,058t)의 3개국이다.

냉동채소는 대부분 아스파라가스로서 일본수출이 14억1,494萬圓(44,200t)인데 金額으로는 65.5%, 數量으로는 77.0%를 점하고 있다.

염장채소의 수출先도 대부분 日本으로서 8억2,052萬圓(40,442t)인데 金額으로는 86.3%(數量으로는 89.7%)를 차지하고 있다(日本 先은 漬物로 推定된다).

乾燥채소는 輸出先인 日本에 9억424萬圓(5,741t), 인도네시아 1억4,414萬圓(7,250t), 싱가포르에 6,942萬圓(1,760t) 등이다 (건조 채소는 대부분 버섯류임).<sup>57)</sup>

※ 花卉類 輸出額 1억2,930萬圓(2,761t)

## 3) 美國의 乾燥菜蔬輸出

美國의 世界最大의 채소 수출국인데 '74~'78년에는 年間 平均 2,210萬t의 채소를 商業的으로 생산하고 있다. 생산량중 절반은 生鮮品市場에서 판매되며 나머지는 加工된다. 乾燥채소의 생산에 관한 상세한 통계는 없지만 美國 乾燥양파, 마늘 協會(The American Dehydrated

57) 日本貿易振興會; 週刊, 農林水産物の貿易 1982, No. 1,379.

〈表 VI-4〉

## 台灣의農水産物輸出

(單位 100萬元)

	總輸出額		對日輸出	
	1980	1981	1980	1981
動物製品	19,786	24,881	10,800	15,276
生動物	363	152	45	26
食肉類	2,320	3,000	2,271	2,969
水産物	15,321	18,769	7,546	9,894
酪農品	326	418	238	300
기타動物製品	1,456	2,541	700	2,058
植物製品	13,117	13,793	6,395	7,973
花卉, 球根類	151	129	111	89
野菜類	5,740	6,587	3,477	4,438
果實類	2,592	3,321	1,581	2,105
커피, 茶, 香辛料	1,169	1,219	463	414
穀物	2,164	993	—	1
製粉	71	57	38	18
植物油脂	568	843	282	475
染色用植物	104	39	88	24
기타植物製品	558	606	356	409
動物植物性油脂	139	67	27	30
調整食品·飲料	31,126	25,030	9,786	6,256
食肉·水産物調整品	4,989	4,365	2,427	1,954
砂糖, 菓子類	8,345	5,291	3,708	1,507
코코아調整品	9.2	8.6	4	—
穀物調整品	631	659	65	42
野菜·果實調整品	15,759	13,117	2,858	2,033
기타食料品	824	982	568	551
飲料	194	182	40	77
飼料	101	85	78	63
담배	274	340	39	27
合計	64,165	63,771	27,008	29,535

(出所) Monthly Statistics of Trade, Republic of China.

日本貿易振興會：週間，農林水産物の貿易 1982. 137號에서 引用.

Onion and Garlic Association)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다(表VI-5).

반면 國內生産도 大規模로 되고 있지만 輸入도 하고 있는데 건조감자를 비롯하여 총수입량은 '75年 2,928t. '76年 3,125t, '77年 4,454t, '78年 5,250t, '79年 5,706t으로 착실히 증가하고

<表Ⅵ-5> 미국의 건조양파, 마늘 생산실적 단위: t

구	분	1975	1976	1977	1978	1979
양	파	64,682	44,135	54,521	55,157	59,557
마	늘	14,334	9,026	12,292	14,696	20,502

있다. 輸入先은 수량으로 발전도상국의 share가 약 40%이다('79年)

그런데 국내의 양파와 마늘생산은 高率關稅에 의하여 크게 보호되고 있는데 양파, 마늘의 관세는 35%의 從價稅가 부과되고 있다.<sup>58)</sup>

### 3. 菜蔬輸入實積

日本の 農産物 수입은 앞서도 대략 살펴본 바 있지만 경제의 고도성장과 이에 따른 生活水準의 向上, 食料需要의 增大 및 需要構造의 變化에 대응하여 每年 擴大되어 80年의 農産物 輸入額은 3兆 3,879億圓에 이르고 있다(表Ⅵ-6, 表Ⅵ-7).

農産物中 菜蔬 및 調製品은 上記와 같은 社會的 變化에 따라 크게 증대되고 있어 '80年 1,078億圓으로서 農産物輸入의 3.2%를 占하고 있다. 채소류수입의 構成比를 보면 生鮮, 乾燥品(生鮮, 양파, 마늘, 건조품, 죽순, 양파, 표고 버섯 등) 43%, 채소 통조림(아스파라가스, 그-린 피스, 죽순등) 16%, 其他 調製品(토마토 加工品, 염장채소) 41%로 되고 있다. 또한 수입수량 指數로는 79년에 비해 5%증가이고 금액 指數로는 8%증가를 보인다.

특히 '80年 2月 菜蔬價格安定에 관한 輸入緊急對策事業에서는 양배추를 대만, 中共에서 800t, 배추를 대만에서 380t을 수입한 바 있다.

<表Ⅵ-6> 菜蔬類輸入額 單位: 億圓

		1979	1980
農	產 物	32,178 (100)	33,870 (100)
菜	蔬 類	938 (3.1)	1,078 (3.2)
	生 鮮, 乾 燥 品	403(42%)	466(43%)
	菜 蔬  통 조 림	163(17%)	167(16%)
	其 他 調 製 品	385(41%)	445(41%)
	輸 入 量 指 數 (75=100)	198.2	198.7
	輸 入 額 指 數 (75=100)	98.1	105.9

資 料: 日本農業年鑑 1981, 1982에서 作成.

58) 日本貿易振興會; 上掲書 1982, 1,369號.

	1979	1980
生 鮮 양 파	72,800	77,000
冷 凍 品	100,000	112,400
토 마 토 加 工 品	38,900	46,400
調 製 品	33,600	38,400
塩 藏 品	64,200	73,100

資 料：上同.

'80年の輸入實態를 品目別 主要國別로 살펴보면 〈表Ⅵ-8〉와 같다. 生鮮채소의 수입은 저장성이 높은 것중에서도 양파, 마늘, 양상치, 사뭇트가 主要品目이 되고 있으며 主要輸入先은 '78년까지와 마찬가지로 台灣, 美國, 뉴질랜드, 한국 順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價格高騰時에 수입되는 즉 spot輸入이 많다. 또한 켈기에 産의 채소, 美國産의 호박, 멕시코産의 食用사보덴등 「高價의 채소」수입이 착실히 늘어나고 있다.<sup>59)</sup> 이들 채소는 모두 항공편으로 수입되어 같은 종류의 日本産에 비해 가격은 3배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高價의 야채」의 수입량은 채소 전체에서 보면 1%미만의 미미한 수준이다.

品 目	國 名	대 만	미 국	뉴질랜드	한 국	중 공	기 타	계
生 鮮 冷 藏	양 파	14,206	30,094	19,957	9,391	222	1,307	76,917
	마 늘	705	47	—	98	923	2	1,775
	사 뭇 트	3	—	—	18	—	13	34
	양 상 치	8	205	—	—	—	—	213
	송 이 버섯	—	1	—	234	2	124	361
	기 타	15,914	740	2,804	2,534	1,909	577	28,078
계	34,436	31,087	22,761	12,275	3,056	3,823	107,438	

品 目	國 名	미 국	대 만	뉴질랜드	중공	카나다	기 타	계
冷 凍	감 자	25,236	—	—	—	3,965	1	29,202
	豆 類	8,020	36,636	7,372	2,874	582	79	55,563
	sweetcorn	26,431	7	1,431	—	352	109	28,330
	기 타	17,136	4,431	2,149	3,174	1	770	27,661
	계	76,823	41,074	10,952	6,048	4,900	959	140,756

資 料：日本大藏省；「日本貿易月表(1980)」, 1981. 3.



또한 가장 현저한 것은 <表Ⅵ-9>와 같이 冷凍채소로서 이것은 '75年 25,000t정도 수입되었지만 80년에는 14萬t을 上回하고 있다. 그동안 冷凍 채소의 日本內 生産이 늘기도 했지만 수입량 증가가 훨씬 앞서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부문이 豆類 56,000t(팥콩잎), 다음이 감자 29,000t, Sweet Corn(팥옥수수) 28,000t등으로 되어 있다. 그 외로는 mix-vegetable, 토란, 시금치, 당근, 冷凍딸기, 메론, 브로콜리...등 여러가지 종류가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食生活의 變化속에 外食 및 加工食品이 증대하는데 요인이 있으며 學校給食에서도 수입 냉동채소가 퍼 소비되고 있다.<sup>60)</sup>

<表Ⅵ-9>

冷凍채소의 推移

單位 : t

項 目	年 次	75	76	77	78	79	80
國 內 生 產 量		53,215	60,034	83,359	77,787	80,769	76,084
輸 入 量		24,954	52,031	63,870	81,294	117,624	140,756
輸 出 量		8	16	32	40	34	49
國 內 流 通		78,161	112,049	147,197	159,041	198,359	216,791

資 料 : ① 生産量 ; 「日本冷凍食品協會」  
 ② 輸入量 ; 「日本貿易月表」

<表Ⅵ-10>

國內市場에 점하는 輸入野菜의 數量比率

(單位 : %)

年 次	生 鮮 野 菜	冷 凍 野 菜	塩 藏 野 菜	調 製 野 菜
1965	0.3	5.7	—	10.9
1966	0.1	7.1	—	9.3
1967	0.3	11.6	—	8.1
1968	0.4	8.6	—	12.7
1969	0.2	15.2	—	14.3
1970	0.3	21.7	1.9	14.5
1971	0.5	26.8	1.9	15.7
1972	0.4	25.9	2.2	20.6
1973	0.5	42.0	2.6	20.8
1974	5.7	43.7	2.7	24.7
1975	0.4	31.9	4.2	17.4
1976	0.8	43.4	4.1	18.7

註 : 農水省 ; 青果物出荷統計 日本冷凍協會, 日本缶詰協會.  
 大藏省 : 日本貿易月表.

60) 일반적으로 給食材料 중에서 채소가 가격변동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서도 안정된 냉동 채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反面 輸入채소의 國內市場 또는 生産量에 차지하는 比重을 2가지 側面에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입채소를 구분, 수입량比率에 의하여 長期的으로 살펴본 것(表Ⅵ-10)이고 이에 따르면 冷凍채소의 比重이 월등히 높고 鹽藏채소가 급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② 食料 需給表에 의거 國內 生産量과 수입량을 총체적으로 비교한 것인데(表Ⅵ-11) 品目構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음은 生鮮 채소 특히 主宗品인 양파를 中心으로 해서 輸入의 문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長期的인 동향을 보면 수입채소의 國內 市場에서의 share는 냉동채소를 제외하면 그렇게 급격히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冷凍채소는 40%內外에서 멈추고 있다. 그러므로 全体的으로 보면 <表Ⅵ-10>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表Ⅵ-11).

(表Ⅵ-11) 國內채소와 輸入채소의 동향 (단위: 千t)

項 目	年 次	75	76	77	78	79
국 내 생 산 량		15,651	15,755	15,473	16,409	16,314
수 입 량		226 (1.7)	277 (1.7)	311 (1.9)	450 (2.7)	452 (2.7)
수 출 량		8	3	4	3	2
국 내 유통 량		15,869	16,029	16,780	16,856	16,764

資 料: 農林水産省「食料需給表」註: ( )는 國內 유통량에 대한 비율(%)

#### 4. 生鮮菜蔬의 輸入事情

日本에 수입되는 生鮮채소의 종류는 꽤 多樣하나 中心이 되는 것은 양파, 마늘이며 이들은 비교적 저장성이 높은 品目이다. 그 외에 생강, 당근, 양배추, 莢豌豆, greenpease, 풋콩(枝豆), 우엉, 냉이, 송이버섯, 양상치 등 저장성이 낮은 것들이 해당된다. 양파나 마늘이 主宗 品目이 되는 것은 저장성이 높고 비교적 risk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며 저장성이 낮은 것은 spot的인 수입이 되고 있다. 生鮮채소의 수입은 앞서서도 본 바와 같이 輸入先은 美國, 대만, 뉴질랜드가 中心이 되고 있지만 韓國도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양파를 中心으로 日本의 輸入事情과 輸出國들의 사정을 특히 韓國과 대만과의 비교를 重點的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양파의 수입량은 國內산에 대하여 6.7%의 比重을 점하고 있으며 主要國들로 부터의 양파수입 동향은 다음과 같다(表Ⅵ-12).

〈表 VI-12〉 양파의 國別 輸入量 (金額單位: 1000\$)

78			79			80		
國名, 順位	數量 (t)	金 額	國名 順位	數量 (t)	金 額	國名, 順位	數量 (t)	金 額
	94,332	25,974		72,819	25,832		76,977	22,269
1. 米 國	45,850	13,283	1. 뉴질랜드	27,591	10,727	1. 米 國	30,094	10,410
2. 뉴질랜드	18,513	4,703	2. 米 國	17,409	6,827	2. 뉴질랜드	19,957	5,405
3. (台 灣)	18,292	4,638	3. (台 灣)	14,319	4,270	3. (台 灣)	14,206	2,796
4. 스 페 인	3,959	1,268	4. 카 나 다	4,685	1,557	4. 大韓民國	9,391	2,611
5. 大韓民國	2,463	678	5. 豪 州	2,541	942	5. 스 페 인	1,971	644
6. 필 립 핀	2,621	652	6. 大韓民國	3,574	590	6. 豪 州	716	226

資 料: 農林水産省經濟局; 「主要農林水産物の 主要國; 地域別輸入實績(1978~1980年), 1982 .p. 48.

## 2) 輸 入 事 情

### (1) 輸入業者의 輸入行動分析

生鮮채소의 輸入業者는 總合商社, 채소 專門輸入業者, 都賣市場의 荷受會社, 產地出荷業者 외에 食品 maker 및 super market등이다. 總合商社는 채소전문수입업자나 荷受會社 혹은 產地出荷業者의 수입을 代行하여 一定率의 commision을 받는 형식이 지배적이며 中小수입업자는 telex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종합상사에 輸入代行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中小輸入業者는 關西地方에 많음).

輸入된 生鮮채소는 都賣市場의 競賣에 上場하기도 하고 super나 產地出荷業者에 賣渡된다. 물론 加工業者에 팔려지기도 하며 이렇게 된 연후에는 國產品과 같은 流通經路를 거치면서 소비된다.

輸入業者의 國內에서의 販賣方式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는쪽(買方)이 결정되어 價格을 契約하는 경우이다. 이 방식은 賣渡時 實際의 價格이 계약가격을 上回할 때는 輸入業者가 그 차액만큼 손실을 보고 下回할 때는 수입업자의 수입이 된다.

둘째는 去來時점에서 輸入業者와 買方이 價格交涉을 하는 경우인데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서는 輸入業者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한 risk로 부담한다. 이런 경우는 가격상승이 크게 전망될 때 적극적으로 택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都賣市場에 委託하는 방식인데 品質에 어려움이 있을때, 전망이 밝지 못할 경우 편의를 생각해서 競賣에 評價를 붙여 파는 경우이다. 물론 risk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수입업자 (주로 전문수입업자, 賣買市場의 荷受會社)들에 우선 당면하는 것은 불안정한 장래가격을 사전에 豫測하는 것이 最大의 point가 되는데 양파를 中心으로 輸入行動의

實態를 찾아 보기로 한다.

日本の 양파 栽培作型을 보면 ① 가을 조기 파종재배~4月上旬~4月下旬 收穫 ② 가을 보통 파종재배~5月上旬~5月下旬 收穫 ③ 가을 파종 저장재배~6月上旬 收穫 ④ 봄 파종재배~9月 收穫으로 大別된다.<sup>61)</sup> 그러므로 日本은 11月무렵부터 3月무렵까지는 양파의 端境期가 되는 것이며(表Ⅵ-13, 表Ⅵ-14) 이 때는 저장양파가 공급된다(채소 중에서 저장성능이 높은 것이 양파이다).

이상과 같은 狀況下에서 양파의 輸入은 10月 무렵부터 다음해 3~4月까지 集中하게 되고 輸入의 成否는 이 時期 저장양파의 供給量을 明確히 예측하는데 달려 있다. 특히 봄파종 재배는 北海道가 主体이다. 그래서 北海道의 생산 狀況이 저장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양파 수입은 北海道產 양파의 수확량, 品質狀態 등을 감안하고 있다. 그 다음 主産地인 兵庫, 大阪 등의 냉장 양파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8~9月的 天候가 冷蔵庫의 入庫量을 左右하게 되는데 이때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강우량과 기온으로서 수확시의 品質狀態, 수확후 냉장될 때까지가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北海道產의 作況에 따른 생산전망 및 兵庫, 大阪의 天候狀態에 따른 저장량 상태와 함께 저장될 때까지의 消費動向, 價格, 다른 채소의 作況, 外國의 양파 生育狀態 등은 저장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출국의 作況이나 品質이 수입량을 좌우하기도 하는데 國內產 양파의 出回量이 많아도 品質적으로 우세할 때는 수입이 촉진되기도 한다. 한편 輸入價格은 C&F가 通例로 되어 있으며 狀況에 따라 輸入業者가 보험에 들기도 한다.

輸送은 보통 船便에 의하며 美國의 西海岸이나 뉴질랜드의 경우는 12日, 대만은 4일이 요한다. 그러므로 前者의 경우는 25~30日前에, 後者は 2週정도 전에 수입교섭이 시작된다.

〈表Ⅵ-13〉, 〈Ⅵ-14〉은 端境期인 11月~다음해 4月까지의 產地別(外國 輸入品 포함) share를 살펴본 것인데 東京都賣市場에서 '67年~'79年의 12年間 出荷量 share 1位가 불변인 것은 11~12月, 1~3月的 北海道와 4月的 靜岡뿐이고 大阪都賣分에서는 東京과 달리 兵庫가 '68年~'79年의 11年間 계속 年間 入荷量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輸入品の market share는 東京市場에 2월에 美國 2位(8.5%), 3位 뉴질랜드(1.4%), 3월에 뉴질랜드 2位(10.0%), 3位 오스트랄리아, 3位(4.5%), 대만 3位(10.6%), 4월에 뉴질랜드 2位(17.5%), 대만 3位(각각 24.5%, 10.6%)가 있다.

61) 農文協編;「ネギ類・タマネギ」, 1977, p.619. 韓國의 作型 ① 濟州의 極早生 4月中旬 出荷 ② 全南, 경남의 南海岸地域 早生の 5月初旬 出荷 ③ 務安, 咸平의 6月初 出荷(中晚生種의 本格的인 출하)와 거의 유사하다. 이와같이 作型的 類似성과 氣象條件의 유사성은 時期別差別이 한국과 日本에는 없는 것으로서 수출상의 문제점이 없지 않다. 즉 日本의 作況이 나쁠 때는 한국도 그러한 圈에 포함될 수 있어 국내공급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다.

〈表Ⅵ-13〉 東京都中央都賣市場의 月別・産地別入荷量 Share 變動 (單位: t, %)

月別	年次	入荷總量	第 1 位			第 2 位			第 3 位			
			産地名	入荷量	Share	産地名	入荷量	Share	産地名	入荷量	Share	
年計	'67	127,074	北海道	33,989	26.7	大 阪	26,817	21.1	長 愛	野 知	12,336	9.7
	'79	186,622	北海道	79,815	42.8	大 佐	阪 賀	16,135	8.6	兵 庫	兵 庫	13,298
1 月	'67	8,141	北海道	4,508	55.4	大 阪	1,971	24.2	兵 庫	兵 庫	942	11.6
	'79	11,879	北海道	10,540	88.7	大 米	國 國	1,035	8.7	兵 兵	兵 庫	107
2 月	'67	7,935	北海道	6,510	82.0	大 阪	710	8.9	兵 庫	兵 庫	166	2.1
	'79	13,288	北海道	11,689	88.0	大 米	國 國	1,129	8.5	兵 兵	兵 庫	186
3 月	'67	8,922	北海道	7,463	83.6	大 阪	334	3.7	兵 庫	兵 庫	400	4.5
	'79	16,913	北海道	12,125	71.7	大 米	國 國	1,684	10.0	兵 兵	兵 庫	1,393
4 月	'67	9,332	靜 岡	3,393	36.4	北 海 道	2,358	25.3	台 灣	台 灣	2,289	24.5
	'79	17,342	靜 岡	6,527	37.6	北 海 道	3,028	17.3	台 灣	台 灣	1,834	10.6
5 月	'67	14,486	靜 岡	4,938	34.1	愛 知	3,087	21.5	千 佐	藥 賀	2,240	15.3
	'79	19,032	愛 知	6,093	32.0	愛 知	2,399	12.6	千 佐	藥 賀	1,956	10.5
6 月	'67	12,900	大 阪	4,321	33.5	和 歌 山	2,688	20.8	兵 庫	兵 庫	2,079	16.1
	'79	17,684	大 香	5,273	29.8	和 愛	5,119	28.9	兵 兵	兵 庫	2,673	15.1
7 月	'67	11,665	大 阪	4,649	39.9	兵 庫	2,943	25.2	和 歌 山	和 歌 山	2,011	17.2
	'79	14,564	大 佐	3,947	27.1	兵 兵	2,669	18.3	和 兵	和 兵	2,198	15.1
8 月	'67	11,737	大 阪	4,791	40.8	兵 庫	1,784	15.2	和 歌 山	和 歌 山	1,714	14.6
	'79	14,172	大 佐	3,415	24.1	兵 兵	2,522	17.8	和 兵	和 兵	2,415	17.0
9 月	'67	11,514	大 阪	3,742	32.5	長 野	3,661	31.8	兵 庫	兵 庫	1,377	12.0
	'79	13,757	大 長	5,466	39.7	長 佐	2,469	17.9	兵 兵	兵 庫	1,498	10.9
10 月	'67	10,253	長 野	4,908	47.9	北 海 道	1,851	18.1	大 阪	大 阪	1,459	14.2
	'79	17,118	北 海 道	13,440	78.5	長 野	2,649	15.5	大 佐	大 佐	371	2.2
11 月	'67	10,460	北 海 道	4,578	43.8	長 野	2,833	27.1	大 阪	大 阪	1,564	15.0
	'79	16,245	北 海 道	15,815	97.4	兵 庫	159	1.0	大 長	大 野	82	0.5
12 月	'67	9,729	北 海 道	6,517	67.0	大 阪	1,454	14.9	兵 庫	兵 庫	589	6.1
	'79	14,627	北 海 道	14,213	97.2	兵 兵	290	2.0	大 大	大 阪	37	0.3

資 料: 「東京都中央都賣市場年報」 등에서 作成. 農政調査委員會: 「たまねぎの産地形と集出荷体制」日本の農業 1981에서 引用.

이러한 market share는 3~4월이 北海道の 저장양파와 府縣의 저장양파가 감소되는 시기로 서 (日本은 양파 생산을 크게 北海道産 양파와 府縣産(大阪, 兵庫 등의 主産地縣)으로 크게 大別하고 있다) 早生 양파의 出荷에는 아직 빠른 端境期에 해당된다. 이 시기를 目標로 수입되어 北海道 양파와 4~5月的 極早生, 早生양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사실이다.<sup>62)</sup>

참고로 北海道の 양파 저장 시설의 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表Ⅵ-15).

62) 農政調査委員會; 「たまねぎの産地形と集出荷体制」日本の農業 No. 133. 1981, p. 15.

(表 VI-14) 大阪市中央卸賣市場의 月別·産地別入荷量 Share 變動 (單位: t, %)

月別	年次	入荷總量	第 1 位			第 2 位			第 3 位		
			産地名	入荷量	Share	産地名	入荷量	Share	産地名	入荷量	Share
年計	'67	35,730	兵庫	18,089	50.6	北海道	8,087	22.6	北海道	2,395	6.7
	'79	44,244	兵庫	22,843	51.6	北海道	4,827	10.9	北海道	3,836	8.7
1月	'67	1,988	兵庫	1,147	57.7	大阪	669	33.7	京都	47	2.4
	'79	2,990	兵庫	1,863	62.3	和歌山	232	7.8	香川	164	5.5
2月	'67	2,634	兵庫	1,054	40.0	北海道	724	27.5	北海道	588	22.3
	'79	3,525	兵庫	1,437	40.8	北海道	931	26.4	北海道	360	10.2
3月	'67	3,063	北海道	1,166	38.1	台兵	797	26.0	兵庫	405	13.2
	'79	4,304	北海道	1,608	37.4	台兵	886	20.6	兵庫	573	13.3
4月	'67	3,581	台兵	884	24.7	静岡	701	19.6	北海道	511	14.3
	'79	4,382	長崎	1,077	24.6	静岡	832	19.0	和歌山	503	11.5
5月	'67	3,589	大阪	1,281	35.7	兵庫	1,013	28.2	和歌山	438	12.2
	'79	4,433	兵庫	1,908	43.0	大阪	1,011	22.8	香川	629	14.2
6月	'67	2,932	兵庫	2,173	74.1	大阪	477	16.3	香大	97	3.3
	'79	3,543	兵庫	2,172	61.3	香大	882	24.9	大阪	407	11.5
7月	'67	2,989	兵庫	1,695	56.7	大阪	970	32.5	和歌山	234	7.8
	'79	3,388	兵庫	2,377	70.2	香大	704	20.8	大阪	136	4.0
8月	'67	3,045	兵庫	2,232	73.3	大阪	555	18.2	和歌山	119	3.9
	'79	3,593	兵庫	2,751	76.6	大阪	239	6.7	香大	183	5.1
9月	'67	2,860	兵庫	2,308	80.7	大阪	458	16.0	香川	45	1.6
	'79	3,714	兵庫	2,876	77.4	大阪	334	9.0	香川	159	4.3
10月	'67	2,813	兵庫	2,223	79.0	大阪	469	16.7	和歌山	108	3.8
	'79	3,635	兵庫	1,988	54.7	北海道	579	15.9	大阪	419	11.5
11月	'67	3,023	兵庫	1,644	54.4	大阪	1,118	37.0	香川	112	3.7
	'79	3,251	兵庫	2,220	68.3	北海道	669	20.6	大阪	163	5.0
12月	'67	3,213	兵庫	2,174	67.7	大阪	740	23.0	香大	197	6.1
	'79	3,484	兵庫	2,236	64.2	北海道	795	22.8	大阪	301	8.6

資料: 「大阪市中央卸賣市場年報」 등에서 作成.

註: ① 産地名「不詳」은 産地가 불확실한 것인데 대부분 수입품(미국, 대만, 필리핀을 제외 한)이라고 생각됨.

② 引用: 上同.

(表 VI-15) 양과貯藏의 推移와 現況(海北道)

支廳別(54年)	農協系統				商業系統				合計			系統農協의貯藏能力比率(%)	支廳別貯藏能力比率(%)
	棟數(棟)	面積(千㎡)	貯藏能力(千t)	1棟當貯藏能力(t)	棟數(棟)	面積(千㎡)	貯藏能力(千t)	1棟當貯藏能力(t)	棟數(棟)	面積(千㎡)	貯藏能力(千t)		
'74	108	78	134	1,239	162	32	50	309	270	110	184	72.8	—
'76	116	92	165	1,419	162	32	50	309	278	124	215	76.7	—
'79	150	111	195	1,303	162	42	50	311	312	152	246	79.3	100.0
石狩	41	19	31	765	41	7	9	218	82	27	40	77.5	16.3
空知	42	20	48	1,130	49	11	14	277	91	31	61	78.7	24.8
上川	27	16	21	762	27	9	11	407	54	25	32	65.6	13.0
十勝	4	3	4	973	3	2	2	613	7	4	6	66.7	2.4
網走	36	53	92	2,560	42	12	15	295	78	66	107	86.0	43.5

資料: 引用; 上同.

### 5. 양파의 輸入 및 價格

日本の 農産物輸入(林産物, 水産物 除外)額은 80年 현재 3兆 3,870億円이며 이 중 菜蔬類는 3.2%의 1,078億円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이 중 生鮮, 乾燥菜蔬가 466億円で 43%를 차지하고 있다. '80年 양파는 76,977t, 22,269,000\$ (약 53億円)로서 生鮮, 乾燥菜蔬의 11.4% 水準이다. 물론 輸出도 하고 있는데 수출량은 '79年 995t, 47,703,000\$로 輸入量('79年 72,819t)의 1.4%에 불과하다.(表Ⅵ-16) 그러면 양파의 수입과 가격동향등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 1) 需給 動向

日本の 양파 소비량은 年間 120~130만t 정도이며 대부분 國內생산으로 充當하고 있으나 端境期(2~4月) 直前に 수입이 집중되고 있다(表Ⅵ-16). 한국은 <表Ⅵ-12>에서 이미 본 바와 마찬가지로 '80年 4位の 비중으로서 9.391t-2,611,000\$을 수출한 바 있는데 이것은 量的인 면에서 12.2%, 금액에서 11.7%를 차지하고 있다.

年次	區分	國內生産	輸入(A)	輸出	國內流通(B)	(A/B%)
1976		1,123,000	62,280	155	1,185,125	5.3
1977		1,120,000	39,868	2,206	1,157,662	3.4
1978		1,114,000	94,332	2,088	1,206,244	7.8
1979		1,254,000	72,819	995	1,325,824	5.5
1980		1,150,000	76,977	206	1,246,054	6.2

#### 2) 輸入 實績

수입관계를 편의상 60年代 後半 및 70年代 後半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表Ⅵ-17>은 '68년에 최고 28,860t을 기록하였지만 2萬t 안밖의 수입과 國內産에 대한 비중은 年平均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年平均 59.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表Ⅵ-18>은 '78년의 94,332t 수입을 최고로 하여 '70년의 2萬t 수준에서 '80년의 77,000여t으로서 수량면에서 거의 4배의 증가이다. 또한 국내생산에 대한 比重도 2%대에서 7%로 상승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7만여t에 6~7%의 比重에서 安定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내 시장 가격은 해에 따라 오히려 수입양파 가격이 낮은 수준도 보여주고 있다.

〈表 VI-17〉 양파의 輸入實績('66~'70)

年 度 區 分	數 量 (t)	金 額 (\$)	수입비중(수입/국내산%)	年增加率%	輸入價格(\$/T)
1966	7,097	635,000	0.69	—	89
67	20,261	2,347,500	2.12	185.44	115
68	28,860	3,589,722	2.80	42.44	124
69	13,170	1,036,111	1.19	— 54.36	78
70	21,651	2,983,056	2.23	64.40	137

資 料：延世大學校産業經營研究所；對日農產物輸出增大方案研究 1972에서 引用.

〈表 VI-18〉 양파의 輸入實績('75~'80)

年 度 區 分	數 量 (t)	金 額 (\$)	수입비중(수입/국내산)%	수입가격\$/t	도매가격(\$/kg)	
					국산(円)	수입(円)
1975	30,054	—	2.9	—	58	54
76	62,280	17,092,746	5.5	274.45	98	—
77	39,868	9,309,975	3.6	233.52	84	99
78	94,332	25,974,000	8.5	275.35	68	69
79	72,819	25,832,000	5.8	354.74	64	84
80	76,977	22,269,000	6.7	—	—	—

資 料：① 日本貿易振興會；「農林水産物の貿易」, 1980. 1981.

② 農林水産省；「農林水産統計」에서 作成.

## 6. 輸 入 制 度

輸入形態는 生鮮, 冷蔵, 乾燥에 의한 것이고 實行關稅率은 slide關稅이며 輸入制度는 AA이다 (채소류는 대부분 AA品目이며 토마토쥬스, 토마토кет찜, 토마토소오스의 3가지만이 IQ品目이다). 그런데 토마토 加工品以外가 AA品目이라고 하지만 菜蔬輸入에 一切의 法的 規制가 없는 것은 아니다. '關稅에 의한 規制外에도 生鮮채소에 대한 植物防疫法의 規制가 있으며 調劑채소에는 添加物質이나 容器的 資材에 관한 食品衛生法의 규제가 있다. 더욱이 대만으로 부터 수입되는 양파에 대해서는 輸出入 去來法에 의한 輸入組合이 窓口로 되어 있기 때문에 同法의 規制도 따르고 있다.

즉 채소의 수입제도에 관계되는 問題로서는 ① 關稅, ② 輸入數量制限, ③ 植物防疫法 ④ 食品衛生法 ⑤ 輸出入 去來法 등이 있는 것이다.

(1) 우선 關稅制度에 限定하여 (다른 규제는 省略하기로 함) 요약해 보면 채소의 實行稅率



은 品目에 따라 반드시 같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生鮮채소가 5%, 冷凍채소가 10% 乾燥채소가 15%, 塩藏채소가 10~28%, 調製채소가 20~35%이다. 加工도가 높을수록 稅率이 높게 되어 있다.

그런데 生鮮채소중 양파에 대해서는 1970~71년의 가격 등위를 계기로 하여 그때까지는一律적으로 10%였던 關稅가 72년 이후 slide관세 방식으로 바꾸었다. 즉 ① CIF價格이 1kg當 67円 이하의 것 10%부과 ② 67~73.7円인 것은 73.7円과 CIF 가격의 差를 가지고 1kg當의 關稅額으로 하고 있고 ③ 73.7円이 넘는 것은 Free로 되어있다.<sup>62)</sup>

한편 양파의 輸入價格의 動向을 보면 다음 <表Ⅵ-19>와 같은데 평균가격은 前年에 비하여 18.4%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대만의 가격하락이 현저하다.

또한 日本의 農産物은 都賣價格이 輸入 CIF價格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 많은데 다음<表Ⅵ-20>의 2 group는 국내 도매가격과 비슷하다 (牛肉은 수입가 kg 905円인데('80年) 國內 도매가격은 1,907円으로 2배 이상이 높은 것이 있다).

<表Ⅵ-19> 양파의 輸入價格 (單位: t當, \$)

	1976	77	78	79	80
총 평균	274.45	233.52	275.35	354.74	289.29
미 국	283.21	262.14	289.71	392.15	345.92
뉴 질 랜드	292.72	289.01	254.04	388.79	270.83
대 만	252.20	205.70	253.55	298.21	196.82
한 국	—	—	275.27	165.08	278.03

資 料: 日本貿易振興會; 農林水産物の貿易 1980, 1981에서 계산.

(2) 輸入去來法에 의한 規制: 대만으로 부터의 양파수입에는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며 수입 창구는 日本野菜輸入組合에 일원화 되어 있다. 이 조합은 '63年 11월에 만들어진 것인데 '61年 양파가 端境期에 가격소동으로 대만産 양파에는 日本의 수입업자가 200社나 쇄도하여 과당경쟁으로 분규가 끊임없었다. 그런데다 품질이나 규격에 대한 대만측 생산자의 意識은 낮은 상태였는데 이를 重視한 대만은 1963年 生産者 團體인 台灣省 農會와 수출업자 단체인 대만구 채소수출업 同業公社에 창구를 일원화하는 조치가 나왔다. 그 결과 대만의 양파는 파는 쪽의 支配的인 것이 됨에 따라 日本에서는 그의 對抗策으로서 '65년에 수입업자가 輸入組合의 설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게 되었고 현재 會員은 200業者 정도로 되어 있다.<sup>63)</sup>

6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輸入實積.

63) 日本野菜類輸入組合의 member는 綜合商社 7個會社, 都賣市場荷受會社 約 100個社, 專門輸入業者 約 100個社로 되어 있다.

〈表Ⅵ-20〉 主要農産物の 輸入 CIF價格과 國産品都賣價格과의 比較(1980) (單位: 円/kg)

品目	輸入 CIF 價格	國産品都賣價格	備考
1 group			
小 麥	63.8	178.4	국내산은 정부매입가격
大 麥	39.8	161.7	
大 豆	67.2	233.7	국내산은 생산자가격
2 group			
양 과	65.9	86.8	국내산은 동경 시장가격
토마토케찰	192.1	—	
豚 肉	869.0	890	
닭 고 기	203.1	306.0	
3 group			
오 랜 지	135.5	147.0	국내산은 溫州
맥 터	453.1	1,135.0	
粉 乳	220.8	427.0	
牛 肉	905.0	1,907.0	

註 : 1\$ = 225.78円.

資 料 : 日本貿易振興會 ; 農林水産物の貿易1981에서 계산.

輸入組合은 植付前(8—9月)에 輸入量에 대하여 대만측과 서로 상의하여 1月下旬부터 2月初에 價格交渉을 하게 되고 同時에 規格, 包裝, 船積 등의 조건에 대한 合議도 行해된다. 현재 대만의 양과 수출업자는 70~80個社 정도 있는데 수입割當 범위내에서는 日本의 수입업자는 어떤 輸出業者(대만의)를 선택해도 좋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措置는 品質向上, 規格統一을 촉진하여 クレ임등이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대만 양과는 3月에서 4月中旬까지로 輸入可能時期가 한정되어 있고 實積割當이란 것도 있어서 share를 늘리는 것이 어렵고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대만 양과수입 비율은 저하하고 있다. 수입조합이 만들어진 '65년에는 70%이상이 대만 것이었지만(많은 때는 90%로 上回할 때도 있었음) 그 비율은 점차 저하하여 현재는 절반 수준이다.

## Ⅶ 韓國의 農產物輸出

### 1. 農產物輸出的 推移

1) '50年代('58年以後)의 輸出農產物은 米穀등 穀物과 오징어, 해태, 활선어 등 水產物이 대부분 未加工狀態로 輸出되었으며 加工品은 인삼정도였다. 또한 이러한 品目の 輸出對象國은 90%以上이 日本, 香港, 미국이었으며 나머지는 小量이 東南亞 몇 나라에 수출되었다. ('61年 總輸出額 408,784\$, 農林水產物 30,751千\$에 대한 比重 42.8%).

2) '62年을 分岐點으로 하여 1次 五個年計劃 期間동안('66년까지 年平均 43%의 輸出伸張率로 성장하여 '66年度에는 250,334千\$ (農林水產物 69,186千\$, 比重 27.6%)의 경이적인 수출기록을 세우게 되나 農林水產物은 工產品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에 따라 '70年の 農林水產物의 輸出比重은 점차 낮아져 16.6% 수준이 된다 (農林水產物 輸出額이 1億\$ 넘어선 해는 '69年) 이상의 흐름속에 輸出立國—工業爲主는 農林水產物의 상대적 침체로 이어졌으며 農林水產物 輸出品目은 '60年代 初半에 生豚, 生絲輸出이 主宗品目으로 등장하였고, 後半에는 洋松茸통조림, 참치, 인삼 및 同製品이 새로이 각광을 받게 된다. 이와같이 小數品目爲主의 추세는 '70年代 후반까지 계속되었는데 國內 消費와 경합이 없어 수출의 지속을 가능케 하였다.

3) 1973년에 農產物('71年 以後는 農林水產物의 統計를 農產物로 바꾸기도 한다. 農產物은 畜產物까지를 포함하고 水產物, 林產物은 除外 된다)의 輸出은 1億\$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133百萬\$ 比重 4.1%), 81年 現在 182百萬\$이 農產物 輸出額이다 (全体에 대하여 0.9%) (表Ⅶ-1).

'70年代 中半부터 羊肉加工輸出을 포함한 肉類와 과일 및 菜蔬가 새로운 品目으로 追加되는데 '75年을 基點으로 農產物 輸出品目上의 構造的 變化를 現象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Ⅶ-2).

가) 農產物輸出的 大宗品인 生絲類의 경우 '75年 57.7%의 位置에서 '81年 14.3%로 급격히 share가 低下하여 主導商品의 地位를 상실하고 있다. 이 경우는 두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데 첫째는 外貨稼得率을 높이기 위하여 加工輸出(견직물)로 生絲를 國內에 供給하고 있음에 이어서 둘째 世界 生絲需要量의 70%를 수입하고 있는 最大의 市場인 日本이 固有의 市場의 西歐化, 견직물의 在庫累增에 따른 수요감소 추세와(日本의 生絲輸入規制 實施등) 日本은 물론

〈表Ⅶ-1〉

## 年度別農産物輸出推移

單位：100萬\$, 濟州1,000\$

	總輸出		農産物輸出		濟州地域農産物輸出		B/A (%)	C/B (%)
	金額(A)	前年比增加率(%)	金額(B)	前年比增加率(%)	金額(C)	前年比增加率		
1971	1,352	34.7	63	—	329	△ 73.2	4.7	0.5
1972	1,807	33.6	78	22.9	1,338	306.7	4.3	1.7
1973	3,257	80.2	133	70.9	815	△ 39.1	4.1	0.6
1974	4,713	44.7	133	0.4	1,060	30.1	3.0	0.8
1975	5,427	15.2	209	56.8	1,535	44.8	4.1	0.7
1976	8,115	49.5	176	△ 15.8	1,889	23.1	2.3	1.7
1977	10,474	29.1	275	56.3	1,673	△ 11.4	2.7	0.6
1978	12,711	21.3	281	2.2	876	△ 47.6	2.2	0.3
1979	15,056	18.4	266	△ 5.3	284	△ 67.6	1.8	0.1
1980	17,505	16.3	225	△ 15.4	319	354.4	1.3	0.6
1981	20,963	19.9	182	19.1	593	85.9	0.9	0.3

註：林産物, 水産物을 除外한 農畜産物을 農産物로 하였음.  
資 料：農林部, 濟州道.

〈表Ⅶ-2〉

## 主要農産物輸出實績

單位：1,000\$

	1975	구 성 비	1976	구 성 비	1978	구 성 비
生 糸 類	120,590	57.7	73,120	41.5	96,919	34.5
農 産 物 組 織	—	—	—	—	59,919	21.3
(양 송 이)	(21,231)	(10.2)	(35,274)	(20.0)	(55,274)	(19.7)
果 實 類	3,081	1.5	3,358	1.9	7,439	2.7
菜 蔬 類	4,661	2.2	8,744	4.9	12,521	4.5
기 타	20,438	9.9	—	10	68,638	24.4
畜 産 物	38,838	18.6	—	21.6	35,787	12.7
合 計	208,840	100.0	—	100.0	281,234	100.0

	1979	구 성 비	1980	구 성 비	1981	구 성 비
生 糸 類	81,698	30.7	65,315	29.0	25,963	14.3
農 産 物 組 織	50,003	18.8	33,208	14.8	29,404	16.2
(양 송 이)	(46,114)	(17.3)	(27,631)	(12.3)	(20,630)	(11.3)
果 實 類	7,078	2.7	15,000	6.7	15,524	8.5
菜 蔬 類	14,786	5.6	23,808	10.6	21,515	11.8
기 타	66,735	25.1	61,801	27.4	65,879	36.2
畜 産 物	45,729	17.2	25,825	11.5	23,748	13.0
合 計	266,029	100.0	224,957	100.0	182,033	100.0

資 料：農林部.

다른 국가에 대한 中共의 계속적인 dumping수출에 따른 가격 경쟁이 불리한데서 기인된다.<sup>64)</sup>

나) 독특한 향취와 높은 영양가로 유럽 및 北美先進國에서 인기가 높은 양송이 가공품이 한 때(1976年) 生絲 다음의 20% share를 차지했지만 점감추세에 있어 '81年 현재 11.3%까지 낮아져 수출부진 상태에 있다. 이러한 要因은 우선 主要輸出市場인 美國에서 中共이 '80年 2月부터 最惠國 대우를 받게 되었고, 대만, 홍콩과 더불어 한국의 강력한 수출경쟁국이 되었으며 '80年 11月부터 美國이 양송이 수입관세를 20%나 인상한 점이다. 또한 양송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美國內 生産이 增加하여 輸入輸要가 둔화되었음은 물론 여기에도 中共의 dumping으로 수출가격의 하락등이 겹쳤다 (양송이 수출은 전체의 50%가 美國임). 그리고 國內에서는 油價引上등 生産原價上昇에 따라 전체 양송이 생산량이 줄고 있어 절대 수출량이 감소하는데 기인된다.

다) 반면 1975年 果實類 1.5%, 채소류 2.2%의 share에 지나지 않던 것이 '81년에는 각각 8.5%, 11.8%의 share를 차지하게 되어 전통적 小數品目の 限定性에서 多樣化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된다. 물론 채소류는 '76年, '79年産 마늘, 양파의 풍작에 따라 국내 가격하락 방지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수출장려,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바나나 對應輸入權을 부여한데 힘입은 바 없지 않다.<sup>65)</sup>

채소류 수출량 單位: %

〈表Ⅶ-3〉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양 파	2,228	2,210	7,752	—	13,304	5,000
마늘	7	—	—	—	9,466	52
송이 버섯	430	222	253	872	393	316
표고 버섯	430	400	650	584	692	696
양송이	15,939	17,092	37,821	2,744	132	108
양배추	—	1,810	667	1,346	1,932	1,346
오이	—	—	—	—	61	155
당근	—	1,380	838	—	291	229
배추	—	1,700	1,865	4,000	—	—
토마토	—	190	245	—	63	57
산나물	—	—	155	—	—	—
딸기	419	2,860	270	—	212	—
고추	—	—	—	—	—	—

자 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食品需給表 1980年度.

64) 農協中央會; 농협연감, 1981.

65) 農協中央會; 上掲書, p. 68.

어떻든 菜蔬類의 수출증대는 무역구조 변화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며 品目構成에도 多樣性을 보여주지만(表Ⅶ-3) 문제는 '75年 이후 '80년까지 매년 지속적인 수출 品目은 버섯류(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이고 그 다음이 양파, 양배추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不規則的인 즉 spot의인 수출인 점이다.

라) 輸出對象國을 보면 日本과 美國이 全農產物輸出의 77%(1979年)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10年間 지속되는 지역편중 현상이다(1979: 日本 159,715,000\$ 60%, 美國 44,063,000\$ 16.5%, 사우디아라비아 16,097,000\$ 6.1%, 캐나다 12,434,000\$ 4.7% 順이다). 그러므로 농산물수출국의 多邊化가 요구되고 있다.

## 2. 對日輸出動向

對日 農產物 輸出構成을 보면(表Ⅶ-4)農產品構成이 '78年 54.7%에서 '80年 69.5%로 증가하는 반면 蚕糸는 36.6%에서 17.0%로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農產品의 主內容을 보면 1,000萬 \$ 이상의 品目은 果實類, 松茸정도이다(이러한 數值들은 日本 農林水產省 農林水產物 輸入實積, 1980에서 간추린 것이기 때문에 國內 統計數值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그 한 예가 1978年은 日本에 양파수출이 없었는데(表Ⅶ-3) 日本은 2,463t·678,000\$ 輸入으로 되어 있다. 추측컨대 輸出入에 대한 年度差異에 비롯된 것으로 보아진다).

金額面에서는 小額이나 冷凍菜蔬(關稅率10%)가 '78年 371t 806,000\$, '79年 595t 620,000\$, '80年 678t 1,178,000\$로 꾸준히 증가를 보이고 있고 밤이 '78年 60t 235,000\$, '79年 35t 178,000\$, '80年 90t 259,000\$이 최근 追加되고 있다.

反面 蚕糸와 같이 低下가 뚜렷한 것은 양송이 통조림인데(관세율20%, '78年 1,498t(2,917千\$)이 '80年 519t(1,102千\$)로 저하되고 있다. 그러므로써 全体 農產物輸出額은 '78年 20,715萬\$에서 26.5%가 감소된 152,165,000\$(1980)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構造的인 變化에

〈表 Ⅶ-4〉

對日農產物輸出構成

	農 產 物	%	農 產 品	%	畜 產 品	%	蚕 糸	%
	(1,000 \$)		(1,000 \$)					
1978	207,150 (100.0)	100.0	113,327	54.7	15,872	7.7	77,952	36.6
1979	153,744 (74.2)	100.0	94,018	61.2	19,557	12.7	40,169	26.1
1980	152,165 (73.5)	100.0	105,806	69.5	20,454	13.4	25,905	17.0

對應, 對日 輸出增大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韓國이 對日 農産物輸出 依存度는 '79年 60%이지만 日本의 對韓輸入 依存度는 '78年 1.8% 수준에서 '80年 1%로 저하되고 있음은 注目될만하다(表VII-5).

〈表 VII-5〉 日本의 農産物輸入 對韓依存度

	1978			1979			1980		
	輸入額 (A)	對韓輸入 額 (B)	B/A (%)	輸入額 (A)	對韓輸入 額 (B)	B/A (%)	輸入額 (A)	對韓輸入 額 (B)	A/B (%)
	(100萬 \$)	(1,000 \$)		(100萬 \$)	(1,000 \$)		(100萬 \$)	(1,000 \$)	
合 計	11,352	207,150	1.8	14,055	153,744	1.1	14,911	152,165	1.0
農 産 品	8,663.3	113,327	1.3	10,637.3	94,018	0.9	11,977.2	105,806	0.9
畜 産 品	2,407.2	15,872	0.7	3,176.0	19,557	0.6	2,776.7	20,454	0.7
蛋 糸	271.6	77,952	28.7	241.7	40,169	16.6	156.7	25,905	16.6

資 料: ① 日本貿易振興會; 農林水産物の貿易 1981.  
 ②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輸入實績에서 計算.

農林水産物로는 韓國의 share가 2.5%(1980年)가 되고 있지만 11位('79年 10位)로서 대만 6位 3.4%, 中공 8位 3.2%, 필립핀 9位 2.9%, 泰國 10位 2.9%에 못미치고 있다.<sup>66)</sup>

### 3. 濟州地域의 農産物輸出

濟州의 '81年 全体 輸出額은 19,271千\$로서 우리나라 總輸出額에 차지하는 비중 (0.09%)은 미미하나 稼得率이 높은 점에서 높이 評價될 필요가 있다. 그 構成은 水産物이 82.5%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農産物은 2.7% 수준이나 우리나라 農産物輸出에 대한 share는 0.3%(表VII-1)로서 '73年 208,000\$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濟州는 周知되는 바와같이 水産物 中心의 對日輸出이 主軸을 이루고 있는데 特有的 活魚(대부분 전복, 소라)鮮魚(삼치, 방어, 돔종류) 冷凍品 등으로 되어 있으며 日本의 消費者들 에게는 다시없는 기호품인 동시에 濟州道 沿岸이 無公害地域이라는 定評이 나왔다.

그런데 農産物輸出은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間歇的인 즉 spot的인 현상이 뚜렷하다(表VII-6). 이것은 持續的인 一定水準의 수출이 아니라 對象國의 氣象變動의 여건에 따라 必要時에만 수출되어 짐을 뜻한다. 能動的이라기 보다 受動的인 형태인 것이며 對象國의 輸入要請이 있더라도 國內의인 需給均衡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아직은 定期的인 一定水準의 수출수준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66) 日本貿易振興會; 前掲書, p.59.

한편 特徴的인 것은 수출품이 生鮮채소에서 부터 加工品에 이르기까지 多様한 점이다. 그 構成을 (表Ⅶ-7)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表Ⅶ-6〉 濟州의 農林水産物の 輸出 單位: 1,000 \$

	合 計	水 産 物	農 産 物	畜 産 物	林 産 物	工 産 物
1975	9,049 (100.0)	6,269 (103.0)	515 (100.0)	1,020 (100.0)	689 (100.0)	556 (100.0)
76	10,939 (120.9)	7,874	916 (177.9)	973	548	628
77	13,027 (144)	9,683	575 (111.7)	1,100	877	792
78	13,903 (153.6)	11,411	876 (170.1)	—	606	1,010
79	15,426 (170.5)	13,257	284 (55.1)	—	299	1,586
80	18,764 (207.4)	15,268	1,158 (224.9)	+61	464	1,713
81	19,271 (213.0)	15,898 (253.6)	523 (101.6)	70 (6.9)	449 (65.2)	2,330 (419.1)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1981.

〈表Ⅶ-7〉 濟州의 農産物 輸出品目別 推移 單位: 1,000 \$

	生鮮菜蔬		乾燥菜蔬		罐藏菜蔬		加工食品		其 他		蚕 糸		合 計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1975	102	19.8	17	3.3	181	35.1	23	4.5	78	15.1	110	21.4	515	100.0
76	424	46.3	213	23.3	273	29.8	17	1.9	3	0.3	—	—	916	100.0
77	123	21.4	123	21.4	59	10.3	—	—	24	4.2	246	42.8	575	100.0
78	28	3.2	—	—	100	1.1	398	45.4	—	—	440	50.2	876	100.0
79	—	—	—	—	30	10.6	210	73.9	—	—	44	15.5	284	100.0
80	921	79.5	5.6	4.8	—	—	181	15.6	—	—	—	—	1,158	100.0
81	315	60.2	—	—	—	—	208	39.8	—	—	—	—	523	100.0

資料: 濟州道産業課 資料에서 作成.

濟州의 農産物 속에는 畜産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加工食品은 찜고구마, 마늘통조림, 콩나물 통조림 등이며 其他는 스테비아등이 포함된 것이나 분류상 불분명한 것들의 數值이다.

〈表Ⅶ-7〉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의 農産物 輸出品目은 '77~'79년의 3年間 蚕糸가 포함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外는 菜蔬類中心에 特化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菜蔬류중 生鮮채소는 양배추를 中心으로 토란, 당근, 양파 등이며 乾燥 菜蔬는 무우말랭이, 罐藏菜蔬는



저립무우이다.

이상에서 볼 때 제주지역의 輸出品目으로 一定性を 유지하며 발전이 가능한 것은 양배추, 당근, 양파, 양호박, 토란, 무우저립 및 말랭이 등으로 생각된다.

## VII 綜合結論

### 1. 生産一出荷의 System化

1) 濟州의 地域農業은 自給的 經營形態에 商業的 經營形態로 60年代부터 移行하고 있는데 生産과 동시에 流通處理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2) 한국은 아시아의 monsoon이라는 高溫多濕의 風土下에 畚作中心의 農法이 發展하여 왔지만 濟州는 monsoon 下의 田作地로서 乾燥地農法(dry farming)의 형성. 발전, 즉 一般 耕種 農業+畜産의 複合農業에 일찍부터 정칙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商業經營形態의 進進에서 專門化는 單一耕種(mono culture)의 形態—菜蔬栽培의 專作化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次元의 農法을 요구하고 있는데 菜蔬作+畜産의 農法의 移行인 것이다.

3) 겨울의 溫暖性的의 有利點과 遠隔産地라는 不利點이 共存하고 있어 如下히 輸送農業을 항구적으로 立地케 하느냐는 것이 과제이다.

4) 또한 地域開發을 觀光産業主導로 推進해 나갈때 觀光産業과 農業과의 chain문제로 「農—觀 構造」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다.

5) 이상이 構造的 變化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計劃生産—計劃出荷로 生産의 安定性を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生産要素의 最適給合이라는 農法의 對應과 재배관리기술의 向上—기술혁신이 있어야 될 것이다. 기술혁신은 農産物의 輸出戰略化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이며 「農—觀構造」形成에도 전제되는 필수조건이다.

6) 暖地菜蔬의 産地形成에 相應하는 기반정비, 物的 施設등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現단계의 流通體系—폐쇄적, 고정적인 圃田賣買 形式은 개방적, 경쟁적 체제로 生産者 組織에 의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7) 현재의 양배추, 당근은 數量的인 成長策—생산비의 절감과 판매촉진과 質的 向上策—大量均一의 標準化, 포장의 개선. 개발, 제주의 특성을 附加시키는 加工방법 등의 개발—이 병행 추진됨이 바람직 하다.

8) 거듭 강조되는 것은 需給의 計劃的인 調整과 유통체제의 개선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중요문제로서 生産者 組織의 育成強化로 생산-판매의 system化를 실현시켜 나가야만 될 것이다.

## 2. 菜蔬類輸出의 戰略化

1) 菜蔬類의 對日輸出問題가 중요롭게 提起되기 시작한 것은 1972年 1月初 채소 輸出擴大會議에서 비롯된다. 이에 앞서 '71年 農開公의 對日 輸出試驗을 필두로 '72年 농협이 시험수출을 試圖하므로써 對日 輸出上의 문제점과 그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80年 현재 農林水産物의 對日 輸出額은 737,7百萬\$이나 日本의 對韓輸入 share는 11位, 2.5%에 지나지 않고 있다 (농산물은 1.0% 수준).

2) 對日 農産物輸出에 대한 聯關係 研究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① 科學技術處: 農水産物 加工品の 海外市場開拓을 위한 海外與件에 관한 研究 1968.

② 韓國貿易協會: 우리나라 農林水産物의 輸出增大를 위한 諸戰略의 構想(研究機關: 韓國農業經濟研究所), 1971,

③ 延世大學校 産業經營研究所: 對日 農産物輸出增大方案研究, 1972.

3) 日本의 菜蔬生産動向은 作付面積에서 60만ha 内外, 生産面에에서 1,600萬t 内外로 推移, 安定狀態에 있으나 生産構造의인 性格에서 즉 畝作地 轉換에 의한 채소재배 확대는 過剩基調를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러나 季節的, 또는 品目에 따라 過不足이 共存하고 있으며 施設채소의 增大는 에너지 문제가 또한 제기되고 있으며 根菜類는 微減傾向이, 葉莖菜, 果菜類는 安定狀態에 있으나 洋菜類는 增加가 현저하다.

4) 菜蔬에 대한 需給調整施策은 「重要野菜 調整特別事業」이 실시되고 있으며 對象品目은 양배추, 무우, 배추, 양파로 되고 있으며 全國 出荷調整會議(全國 農業協同組合聯合會=全農이 主導)를 통하여 計劃生産-出荷 사업이 進行되고 있다.

5) 양파의 例를 보면 全農은 全國段階의 需給調整會議과 실무 담당자인 「全農 양파部會」의 정기적 회의에 의한 情報交換과 生産, 出荷計劃의 조정 및 輸入適正化등 대의적인 조정도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V-4 참조).

6) 양파는 年間 絕對必要量은 118만t (1人當 5.5kg 소비, 전체 채소 구입량에 비중 8.3%, 전국 소비량의 약 35%가 場外流通 즉 外食産業에서 소비되고 있음)으로서 이를 전국적으로 作付面積의 產地 指標를 作成, 이에 따라 作型別, 月別, 地域別로 유도한다. 이와같이 계획

적으로 調整하여도 氣象條件에 의한 變動은 있게 마련이며 이에 따른 生産出荷量의 變動은 좀처럼 간단하게 해소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일본의 양파는 3~4월이 端境期로서 이때의 공급은 國內的 調整이 아니라 國際的인 調整 即 輸入에 의하여 安定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시기의 必要物量은 北海道産의 作況, 府縣産의 저장 물량등에 따라 달라진다. '80年 輸入動向을 보면 다음 <表Ⅷ-1>과 같으며 한국의 share는 3位의 12%를 점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Ⅷ-4 참조).

<表Ⅷ-1> 1980年 양파수입의 國別 動向 單位: t, 1,000 \$

	輸 入 量	Share	金 額	Share
美 國 (1位)	30,094	39.1	10,410	46.7
뉴질랜드 (2位)	19,957	26.0	5,405	24.3
대 만 (3位)	14,206	18.5	2,796	12.6
한 국 (4位)	9,391	12.2	2,611	11.7
스 페 인 (5位)	1,971	2.6	644	2.9
호 주 (6位)	716	0.9	226	1.0
合 計	76,977	100.0	22,269	100.0

7) 韓國의 share는 80年 4位, 12%를 점하고 있지만 '79年 6位 5%, '78年 5位 2.6% 수준이 었음을 볼 때 '80年의 水準은 높은 share이다. 그러면 日本과의 比較優位性은 어느 정도인가를 勞動生産性을 中心으로 살펴 보면 다음 <表Ⅷ-2><表Ⅷ-3>과 같다(勞動生産性의 上昇=單位數

<表Ⅷ-2> 양파의 韓日 生産性比較

	日 本		韓 國	
	北海道産	都府縣産	全 國	濟 州
10a當 勞動時間	144.9	190.2	233.4	231.4
10a當 收量(kg)	4,796	5,388	3,568	2,853
時間當 收量(kg)	33.1	28.3	15.3	12.3

註: ① 韓國 1980年 日本 1979年이며 10a當 收量은 調查農家의 平均値임.

② 韓國: 2次 生産費 1kg當 60.8원(全國)

日本: 2次 生産費 1kg當 51.2円(北海道)

〃 〃 36.6円(都府縣)

③ 韓國: 都賣價格 1kg當 145.1원

日本: 東京中央市場 價格 1kg當 65.9円

資料: 韓國; 1980年 農畜産物標準所得(농촌진흥청)

日本; 1979年 野菜生産費調査(農林水産省)

(表Ⅶ-3)	양파의 韓日生産力發展 比較		(1ha當 收量)
	韓 國(全 國)	日 本(全 國)	
1975	2,262(100.0)	3,450(100.0)	
76	2,442(108.0)	3,930(113.9)	
77	2,139(94.6)	3,400(98.6)	
78	2,326(102.8)	3,690(107.0)	
79	3,954(174.8)	4,240(128.9)	
80	3,552(157.0)	—	

資料：韓國；農林水産部；農林統計年報 1981.

日本；農林水産省；農林水産統計 1980.

量當 投下勞動時間의 감소는 農産物의 cost 引下에 공헌한다. 그런데 勞動生産性=(資本裝備率)×(資本生産性)으로 표현되어 노동생산성은 그 自体가 資本裝備率(資本集約度)과 자본생산성(技術向上을 포함)을 構成要素로 하고 있으므로 노동생산성은 생산능률의 尺度가 된다).

上記 <表Ⅶ-2> <Ⅶ-3>에서 보면 한국과 日本의 生産性은 일본이 훨씬 上位에 있으며 또한 生産力 發展에 있어서는 한국의 增加率이 높으나 절대 수량은 아직 미달이다 (日本의 채소류 10a當 收量은 대략 3~4t에서 推移하고 있다). 그런데 生産費面에서는 한국이 有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요인은 생산비중 60~70% 차지하는 勞賃費의 差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商品化率이 낮은 즉 生産效率性이 낮은 수준이며 都賣價格이 生産費以上을 실현된다는 보장은 日本에서도 없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商品化率이란 生産量에서 生産農家의 自給量과 商品이 될 수 없는 規格外品 혹은 폐기부분을 뺀 生産量인데 商品화율은 93%이다).

이하의 당근도 마찬가지로의 生産能率의 低下를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生産性 向上과 標準化에 의한 商品化率의 提高가 바라진다.

8) 당근은 제주에서도 수출된 바 있고 지금도 ('81年 5月 100t 수출되었는데 kg當 CIF價格은 0.5\$이었다). 小量씩 수출되고 있으며 Boiled하여 냉동으로 수출, 外食用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九州産과의 競爭에서(表Ⅶ-4)(表Ⅶ-5) 每年 一定性을 유지하지 못하고 spot的인 一時的 輸入에 머물고 있다 (國內産 週期變動에 對應하여 補充的인 것임).

그러나 당근에 있어서는 日本人的 기호에 알맞는 品質의 生産一例 日本市場에서는 당근의 윗부분이 地面에 露出되어 약간 綠生을 띤 것은 상품가치가 없다—에 注力할 때 가능성은 있는 것이며 農산물 수입이란 것이 自國內에 생산이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品質의 特性에 따라 무역이 성립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品目別 規格과 品質에 대한 等級別 生産体系가 세워져야만 한다.

〈表Ⅶ-4〉 당근의 韓日 生産性 比較

	韓 國		日 本
	全 國	濟 州	秋 冬 作
10a當 勞動時間	169	121	143.9
10a當 收量(kg)	1,892	2,717	3,831
時間當 收量(kg)	11.3	22.5	26.6

註 : ① 한국 1980. 日本 1979 數值임.  
 ② 한국; 2次 生産費 1kg當 87.4원(全國)  
 都賣價格 \* 258.9원  
 ③ 日本; 2次 生産費 1kg當 54.3円  
 都賣價格 \* 116円

資料: 上同.

〈表Ⅶ-5〉 당근의 韓日 生産力發展 比較

	日 本(全 國)	韓 國(全 國)	濟 州
1975	2,162(100.0)	897(100.0)	708(100.0)
76	2,260(104.5)	1,086(121.1)	1,000(141.2)
77	2,430(112.4)	1,018(113.5)	1,132(160.2)
78	2,340(108.4)	1,374(153.2)	1,245(175.8)
79	2,450(113.3)	2,010(224.1)	1,354(191.2)
80	—	1,889(210.6)	2,385(336.9)

資料: 上同.

9) 價格條件단을 基準으로 삼고 對日 菜蔬輸出을 計劃한다면 大概 「農家 販賣價格(또는 輸出業者의 購入價格)+26% 수출에 따른 비용부담율」이 日本의 小賣價格과 一致할 때가 損益分界點(break-even point)이 될 수 있다.<sup>67)</sup>(表Ⅶ-6 參照)

10) 輸送方法은 Bulk수송, Dry Container, Chilled Container, Freden Container를 使用하고 있으며 포장-선적-日本 도착까지 대략 4~5일이 소요되어 부패, 변질의 위험성이 항상 內在하고 있다. 이에 따른 리스크발생시는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委託販賣가 支配의인데 契約金과 中央市場에서의 競落價格과의 差가 있을 때는 이것도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있다.(去來方式은 Ⅶ-5로 참조 할 것)

67) 延世大學校 産業經營研究所; 對日農産物輸出增大方案研究, 1972, pp.152~153.

〈表 Ⅴ-6〉

國內 時勢와 日本 時勢가 同一할 때의 損益推定

基準：國內；國內 輸出業者 購入 價格

發 生 地	費 用 內 譯	所 要 額
韓 國	① 輸 出 費 用	3%
	② 倉 庫 料	2%
	③ 船 賃	13%
	④ ※輸入商社 手數料	5%
日 本	① 輸 入 稅	5%
	② 揚 陸 後 運 賃	2%
	③ ※수퍼마켓 手數料	20%
	④ 輸 入 費 用	5%
	計	55%
	⑤ 換 率 調 整 差 減	-18% 37%

資料：農協中央會 1972.

註：※이 자료는 日本內에 위탁판매를 할 경우이므로 直輸出(直輸入)의 경우.  
두가지 수수료(5%+20%=25%)에는 下向調整의 여지가 있음. 그리고  
rink\$에 의한 \$當 約 400원의 혜택(損失補填)은 계상하지 않았음.

資料：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對日 農産物輸出増大方案研究 1972. p.153에서 引用.

11) 양과는 日本 菜蔬類出組合이 輸入窓口를 담당하고 있으며 會員會社는 약 200여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台灣의 경우는 대만 菜蔬輸出同業公社가 1963年 부터 설립되어 수출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에 있어서도 채소류의 수출을 적극화 하기 위해서는 수출조합과 같은 조합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母體를 中心으로 輸出指向의인 生産의 高度化와 함께 外國市場 情報의 분석, 세일에 임해야 될 것이다. 현재 제주에는 수출업체다운 업체 하나가 없는 지경으로서 지속적인 日本市場의 分析등으로 수출확대에 노력할 主体가 없고 다만 一時的인 物量 要求가 있을 때만 이에 응하고 있다. 그러므로써 한 예를 보면 값이 안정되어 있던 양배추가 수출이 이루어진다는 소문만 나면 그 값은 몇배로 뛰고 中間商人들이 매점하여 있기 마련으로서 가격면에서 절대 우위성을 가질 수 없고 수출업자는 수지가 맞지 않아 수출을 포기하는 예가 없지 않다.

또한 日本 등지에서 바라는 채소류는 地域的 特産物性格인 것이 많다. 그러므로 地域에 專門輸出業者를 育成하여 이들이 先導役割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될 것이다.

12) 이상의 問題와 관련하여 채소류 輸出의 戰略化라는 차원에서 國家的인 施策이 있어야 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농산물은 국제 가격보다 비싸다, 그러므로 輸入은 있을 지언정 輸出에는 國際競爭力이 약하다는 생각이 支配的이어서 수출은 아예 거론치도 않은 사례가 없지 않다. 이러한 先入見을 하루속히 拂拭하는 일인것이다. 채소류는 季節에 따라 品目에 따라 輸出이 가능한 品目은 얼마던지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小量, 小數이고 生鮮채소는 수 집, 포장, 수송에 번거로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1톤부담이 큰 것이지만 이들을 輸出戰略化하려는 意志가 國家, 地方行政체에서 있어야 될 것이며 中小企業育成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수출 생산 단지를 조성, 육성할 때 채소류의 수출전망은 더욱 확실해 질 것이다.

— Summary —

## A Study on the Marketing of Winter Crops in Jeju-do and the Increase of the Export to Japan

*Kyung-sun Kang · Chang-khil Song*

(1) The mean atmospheric temperature of Jeju area is higher than that of Seoul by 3°C and in the coldest month by 8°C, so Jeju-do is regarded as important place to cultivate subtropical plants. Such a natural state has accelerated the crop production suitable to warm region from time immemorial. Jeju-do has become a main producing district of tangerines, sweet potatoes, barleys and rapes since the beginning of 1960's and Jeju-do's latest main products are wintering vegetables such as cabbages, carrots, garlics and onions. Such a term favorable to an off-crop season is developing Truck Farming.

(2) A milder winter causes us to save petroleum needed to cultivate plants under vinyl plastic hot houses, where some 200cc of petroleum is needed to cultivate a tomato, some 100cc to cultivate a cucumber, some 18cc to cultivate a melon, some 200cc to cultivate a tangerine, and some 50—60cc to cultivate an eggplant.

(3) A case study on sales method of carrots, garlics and cabbages shows that 64—60% of farmers sell out a crop estimate on vegetable garden before harvesting.

(4) A case study on distribution margin shows that gross margin rate is 66.2% in carrots, 77.2% in cabbages and 53.6% in garlics, and the income rate of above-mentioned products in a farmhouse is 33.8%, 22.8% and 46.4% respectively, while transporting expenses—cabbages (23.2%), carrots (12.1%) and garlics (8.7%)—are given much more weight than any other expense.

(5) Japan limited the total output of vegetables with 16 million ton of vegetables



in 600,000 ha of vegetable culture area to keep the change of demand safe in 1979, but the increase of vegetable culture area, both by changing rice fields and by the propensity to consume energy, is becoming primary factors in the alteration of vegetable product structure.

(6) The amount of annual vegetable consumption per head of population has changed into 110kg, and the vegetables consumed over 5kg are cabbages, onions and radishes and sweet potatoes. Cucumbers are staying between 4kg and 5kg. The present propensity to consume vegetables represents multiformity, annual plants and high-grade food, with western vegetables as the central one.

(7) The amount of Japanese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marine fields came up to \$29,055,000,000 in 1980. The income amount in agricultural products reaches \$14,911,000,000 which is equal to 51.3% of total. The income amount in fruits and vegetables reaches \$1,420,000,000 which is equal to 95%. America holds the foremost place as importer Country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Taiwan the sixth place, but Korea takes 11th place, earning \$738,000,000 annually. The income amount from Korea in agricultural comes up to \$152,000,000.

(8) The income amount of vegetables in Japan reached \$107,800,000,000, and the change of vegetable income (1965-1978) tells that income amount has increased the quantity by 17 times. Main articles of vegetables are frozen vegetables and salted ones.

(9) No importer countries surpass America and Taiwan. The export share of fish and vegetables in Taiwan and Korea shows that Taiwan exports 24.3% of total Japanese import (2nd position), while Korea does 2.8% (5th position). For frozen vegetables, America holds the first position, exporting 48.6% and Taiwan the 2nd position, exporting 31.4%, while for dried vegetables, Taiwan holds the first position, exporting 42.9% and Korea 5th position, exporting 2.8%. Also, for salted vegetables Taiwan exports 63.4% (1st) and Korea 3.1% (3rd), while for prepared vegetables, Taiwan exports 78% (1st), and Korea 2% (5th).

(10) The agricultural export amount of Korea came up to \$182,000,000 which corresponded to 0.9% of total export, \$20,993,000,000, while the export amount of Jeju-do reached

\$593,000, corresponding to 0.3%. The raw silks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in 1975 were main export articles, corresponding to 58% of total agricultural products, but they are remarkably decreasing into 14.3%. The vegetable export share was 2.2% in 1975, but 11.8 percent increase in 1981 is a characteristic found only in the vegetable export.

Thus, the fact that vegetables are given much weight in the export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shows an important change and the probability to develop in the future. Therefore, in the aspect of vegetable export, diversified studies are needed to prepare good vegetable-producing center and to foster special articles like dried, salted, frozen, and manufactured vegetables.